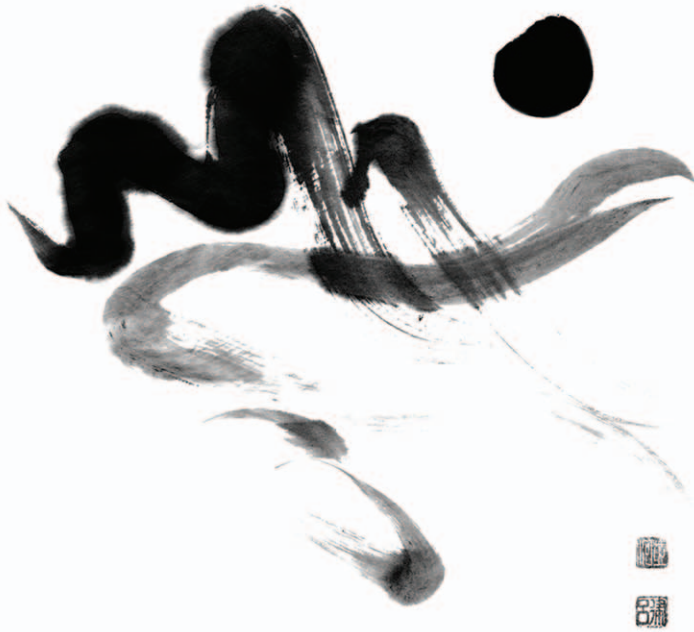


목포환경운동 25년사



| 표지는 목포환경운동 25년을 맞이하여 김지하 시인에게서 보내주신 글·그림입니다. |

| 서남해안 섬, 갯벌, 천일염은 우리의 미래 |



사진제공. 목포과학대학교 박종길교수
사진작가. 목포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생명의 젖줄 영산강,
지금 그 생명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책임,
우리에게 있다는 솔직한 고백



생명의 강,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발
제1회 영산강살리기대탐사 발
생명의 강,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발
제1회 영산강살리기대탐사 발

사진제공.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김정봉 의장



| contents |

* 발간사	6
* 주요활동사진	7
1. 목포환경운동사	9
• 제 1 부 영산호를 살리자	11
- 배경	13
- 진로 주정공장의 추방	19
- 주정공장 추방 이후	42
- 영산호 문제의 현주소와 투쟁과정에서의 교훈	55
-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언	58
• 제 2 부 찢겨진 삼학도에 날개를 (삼학도보전회편)	60
- 찢겨진 삼학도	60
- 곡물 싸이로	61
- 시멘트 싸이로	63
• 제 3 부 유달산을 이름답게	69
- 유달산과 케이블카	69
-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는 왜 안되는가	70
- 유달산 보전에 관한 투쟁일지	72



| contents |

• 제 4 부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편)	75
2. 목포환경운동사	77
• 강살리기	79
• 습지· 해양보전	85
• 핵· 골프장· 난개발· 숲	96
• 환경현안	103
• 환경 교육	117
• 회원· 연대 사업	129
• 소모임· 재정사업	137
3. 주요활동일지	141
8. 부록	205
• 창립선언문	207
• 정관	209
• 회원 명부	213
• 소식지	214
• 환경과 건강연구소 정기발행지	215

발간사



지난 1983년, 남도의 젓줄이자 목포시민의 생명수였던 영산강에 주정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해 목포에 처음으로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먹는 물을 지키기 위한 생존투쟁이었고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운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도 길이 남는 장거였고, 환경운동이란 단어조차 생소했던 당시, 목포를 초창기 환경운동의 '메카'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후 삼학도 유달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으로 이어지면서 목포의 환경운동은 더욱 단련되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운동을 위한 목포녹색연구회의 탄생, 그리고 1996년 사단법인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1997년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은 목포지역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는 주로 서한태 이사장의 강연과 「환경과건강」 책자발간 등 교육계몽활동을 중심으로, 목포환경운동연합은 강살리기, 갯벌습지, 핵, 에너지, 숲, 생태도시, 그리고 지역현안에 대한 성명발표, 토론회, 집회 등 대중활동을 중심으로, 마치 서로 역할분담이라도 한듯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1983년부터 1988년까지의 기록은 1988년 목포녹색연구회가 펴낸 책 《내땅을 지키고자-목포지역 반공해운동 성공사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실었고, 연구소의 활동 일지는 서한태 박사님께서 잘 정리해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부터 1996년까지의 내용은 먼저 활동분야별로 정리하여 그 의미와 활동일지를 묶었습니다.

그동안의 방대한 분량의 사진과 자료 등을 묶어 책자로 발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빛바랜 사진들과 자료, 먼지 낀 옛 회의서류들을 꺼내어 정리해 주신 편집위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재정적 후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쉽 없이 달려온 목포지역 환경운동의 지난 발걸음을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고, 나아가 목포환경운동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 전망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목포환경운동 25!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07. 10. 26

목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손 현 이** 재인

주요활동사진



① 전국환경단체 연대회의(목포)



② 목포 수돗물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③ 물관리 일원화 축구 쫄기 대회(목포역전)



④ 1992년 결성된 목포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비상대책회의



⑤ 음식물 쓰레기 의무감량화 방안 논의



⑥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 월례회

주요활동사진



① 유달산 - 고하도 케이블카 설치 반대 토론회



② 환경체험을 마치고 학생들과 함께



③ 영산강 골재채취를 반대하는 회원들과 전국습지연대회의 활동가들



④ '98환경인의 밤과 고철환 교수 특별초청 강연회



⑤ 서남권 관광개발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주제발표 : 엄서호 경기대 교수)



⑥ 보행권 조례제정 운동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주요활동사진



① 환경·주민 친화형도시 - 목포 만들기 토론회



② 목포환경운동연합 '99정기총회



③ 전남서남권 갯벌보존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



④ 2000 유달산 지키기 자전거 대행진



⑤ 유달산 지키기 차량시위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



⑥ 유달산 지키기 목포역 집회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

주요활동사진



① 어린이 갯벌 탐사



② 유달산 지키기 환경문화제



③ 회원 ·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기행



④ 사진모임 밝음이 출사



⑤ 백폐기장 후보지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 (호남지역 백폐기장 반대대책위원회)



⑥ 장도 습지 탐방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함께)

(1983년~1988년)



목포환경운동사

* 여기에 실린 글은 목포녹색연구회에서 1988년에 발간한 「내땅을 지키고자 - 목포지역 반공해 성공사례」 (풀빛)에서 일부 발췌한 것입니다.



제 1 부 영산호를 살리자	13
제 2 부 찢겨진 삼학도에 날개를	60
제 3 부 유달산을 아름답게	69
제 4 부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75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편)	

| 영산호를 살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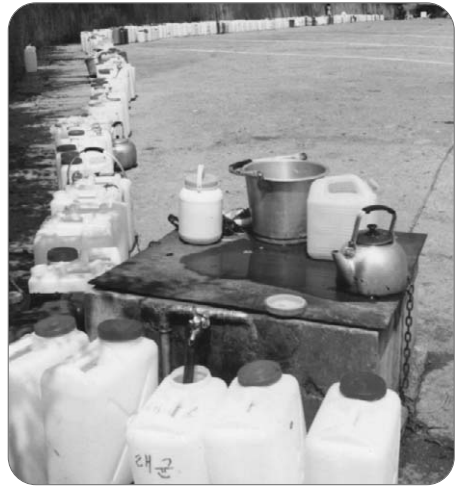
1. 배 경

❖ 목타는 목포

다도해의 푸른 물결이 밀려드는 향도 목포, 아직도 세인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삼학소주와 현재의 보해소주의 고향이기도 한 목포가 ‘갈증에 타는 목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하지만 목포 시민들은 개항 이후 지금까지 거의 1세기 동안을 갈증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목포의 물사정은 ‘목포에 사는 사람치고 물지게 한 번 안 져본 사람이 없다’는 말로 표현된다. 지난날 공동수도전 앞에 길게 늘어선 물동이 옆에서 물지게를 지고 서성거리며 아귀다툼을 하는 모습은 목포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 ‘목포에 시집가서 살려면 물받는 싸움부터 배워야 한다.’는 말은 하나의 격언

처럼 되어 있었다. 60이 다 된 어느 부인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었다. 이 부인은 목포로 시집오기 전에는 비록 수도시설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풍족한 지하수로 물 걱정이라곤 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목포로 시집온 후로는 하루도 물 걱정을 안 해본 날이 없었다. 가입한 공동수도에서 물이 안 나오면 이웃 동네에서 눈치를 보며 물을 받은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물이 끊어질까봐 물받는 순서를 두고 다투는 동안 ‘는 것은 욕뿐’이었다. 제한급수 때문에 밤마다 수도꼭지를 틀어 놓고 물소리 나기만을 기다리면서 선잠을 자다가 물소리가 나면 새벽 1시고 2시고 쫓아 나가 물을 탱크에 가득 받은 다음에야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아예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어 버렸다. 어쩌다 서울이라도 한 번 가면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길거리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소음과 하늘을 뿌옇게 가린 매연을 보고, 돈주고 살라 해도 못 살겠다던 목포 사람들이지만 꼭지만 틀면 힘차게 쏟아지는 수도꼭지는 부러워하곤 했다. 이처럼 물의 지옥에 사는 목포 시민들은 한마디로 물에는 한이 맺혀 있다.



❖ 한국에서 제일 비싼 물값

목포 시민들이 이렇게 흑심한 물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수도물의 생산 및 보급의 절대량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과는 달리 바닷가에 위치한 탓으로 양질의 지하수와 지표수가 없어 식수는 물론 생활용수까지도 모두 수도물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수원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물을 목포까지 끌어오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더구나 남아빠진 배관시설로 인해 누수율이 40%에 달해 수도물 값은 더욱 비싸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끌어 올 물이라도 풍족하다면 비싼 값으로라도 풍족한 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시원치 않아서 목포 시민들은 수도물을 적게 쓰기도 수도물 값은 가장 많이 내고 있다. 수도물 값이 비싼 데는 취수원이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원인도 있다. 지난날 상수도 시설용량 55,000m³/일 중 20,000m³/일은 나주호 계통의 물을 취수원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취수원은 시내에서 약 70km나 떨어져 있어 이 물을 시내로 끌어 오는 데는 4개의 중간 가압장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래저래 물 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목포시의 상수도 역사는 갈증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목포시의 상수도 원년은 1911년으로 8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음에는 수원지를 만들어 160지구 8백여 명에서 상수도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 후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 4개의 수원지를 더 만들었으나 절대량은 계속 부족했다. 그래서 1964년부터는 58km나 떨어진 나주 삼도리의 영산강 중류에서 매일 3만톤의 물을 끌어오기 시작했다. 이때의 1인당 1일 급수량은 120 l 였다.

그러나 지난 78년부터는 영산강 물이 극도로 오염되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 이후 대기오염이나 하천 오염 등과는 상관없이 무리하게 진행시킨 농업정책이나 경제정책의 피해를 애매한 서민만이 톡톡히 본 셈이다. 영산강(나주 취수장) 물을 먹지 못하게 되면서 목포시민들은 한 동안은 이 취수장에서 12.6km나 떨어진 송현 저수지에 새로운 취수장을 설치하여 나주호의 물을 마시게 됐다. 그러나 나주호의 1일 공급량으로는 1인당 1일 250 l 를 공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때 당국은 73년부터 착공한 함평군의 대동제가 완공되면 1인 1일 250 l 의 물을 공급하여 다시는 ‘물의 지옥 목포’라는 오명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시민들을 달랬다. 그러나 81년 12월 24일 대동제가 완공되고서도 시민들의 꿈은 실현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계획대로 대동제에서 3만 5천톤, 나주호에서 2만톤을 취수하여 1일 5만 5천톤씩을 공급했지만 5월 7일부터는 대동제가 마르기 시작하여 급수량을 1일 1만 1천톤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 29일부터는 완전히 고갈돼 다시 나주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나주호도 농지개량조합의 관계용수 부족으로 단수상태에 이르러 상수도원에서 제외해야 할 실정에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목포 시민들에게 다가 온 영산호의 소식은 하나의 꿈이요 희망이었다.

❖ 전남도민의 꿈 영산호

노령산맥의 골짜기 담양 추월산에서 발원한 영산강은 여러 개의 지류를 부채꼴 모양으로 거느리며 9개 고을, 장장 300리 길을 감돌아 목포 하구로 흘러내리는 강이다. 유역 면적은 28만 정보이고 그 중 6만 8천 정보가 논으로서 전라남도 전체 논 면적은 1/3이 강 유역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영산강을 ‘우리의 젓줄’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천혜의 자원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어서 때로는 유역 주민의 걱정거리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 강 유역에 쏟아지는 강우량은 연간 35억 톤이나 되지만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가 일쑤여서 홍수의 피해를 주는 때가 많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강바닥이 드러나 가뭄을 걱정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 강은 여름철 태풍의 진로와 일치하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때때로 해일의 피해를 주기도 했다.

영산호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또 영산강이 유역 주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어 지난 80년에 중공, 강이 아닌 호수로 탈바꿈했다. 하구엔 길이 4.351m, 총 저수량 253.2백만 m^3 인 동양 최대의 하구엔 준공으로 유역에는 5천 5백 정보의 새로운 농지가 개발되었고, 전에는 뱃길로 다니거나 수백리 길을 돌아 다녀야 했던 목포와 영암이 육로로 연결되었으며 유역에 대한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동양 최대의 호수 ‘영산호’가 탄생했다.

개항 이후 80여 년 간을 갈증에 시달려 온 목포 시민들에게 이 영산호는 정말 벅찬 희망으로 다가왔다. 영산호는 바로 풍부하고 값싼 물의 원천이었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영산호 준공 이후 영산호를 목포시의 항구적인 식수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영산호 계통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사업 내용은 1993년을 목포년도로 하여 1인 1일 평균 급수량을 330 l로 늘려 타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킴과 동시에 유지관리비를 절감시켜 저렴한 수도 요금으로 시민에게 급수할 수 있도록 영산호를 취수원으로 하는 120,000 m^3 /일 시설 규모의 상수도 확장계획이었다. 그 결과 타당성 조사는 긍정적인 것으로 회신이 왔고, 목포시 당국은 타당성이 있다는 보고를 토대로 무안군 몽탄면에 취수장을 설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영산강 상류에 주정공장이 세워진다는 날벼락이 떨어졌다. 이 소식은 목포 시민들에게는 시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그것이 주정공장이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분노는 도를 더해 갔다.

❖ 기억에 생생한 아령이

목포 시민들에게는 아령이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다. 심오륙년전만 하더라도 공해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깊지 못했고 당시에는 삼학소주와 보해소주의 주정공장이 시내 한복판에서 버젓이 가동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폐수는 정화되지 않은 채 바닷가로 흘러 들어갔다.

당시의 상황을 초대 영산호보존회 서한태 회장은 이렇게 회고한다. “나는 등하교 길에 항상 주정공장에서 흘러보내는 주정공장 폐수가 흐르는 도랑을 통과해야만 했다. 이른 아침 등교를 하다보면 언제나 새까만 도랑에서 진한 갈색의 물이 김을 모락모락 내면서 흘러가고 있었다. 그 도랑을 지날 때면 항상 한참 전에 숨을 깊이 들이쉬고 숨을 참은 채 한참 동안 재빨리 뛰어가서 몰아쉬 숨을 내뱉곤 했다. 어찌다가 숨을 잘못 쉬어 그 냄새를 맡게 되면 역겨운 기운이 한참 동안 가시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것을 직접 보면서도 별 생각이 없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끔찍한 생각이 든다.”

현재 주정공장 폐수는 그 무엇보다도 심각한 공해의 원천이다. 주정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전분질 원료 및 당질 원료를 주정 발효시킨 후 증류기에서 주정분만을 추출하고 남은 것으로서 유기질 함량이 대단히 높은 폐액이다. 참고로 공해 추방 투쟁과정에서 목포 시민들이 주장한 주정공장으로 인한 오염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주정공장에서 나오는 폐액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높은 유기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강이나 하천으로 흘러가면 산소와 결합하여 다시 부패작용이 일어난다.
- ② 부패하면 악취를 발생하고 부패 과정에서 유독성 아황산가스를 발생하며 산소를 소모하게 되므로 산소부족으로 물고기도 폐사하게 된다.
- ③ 폐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미생물의 처리 조건이 나쁠 때나 처리 시설이 고장 날 때에는 주정공장에서 폐액을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
- ④ 공해처리 시설을 하여 환경보존법상의 배출 허가기준 이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량의 한계치에 불과할 뿐 배출 허용기준 이하의 부유물질이 쌓이고 쌓이면 다시 부패하게 된다. 따라서 공해 처리(유기질 처리)는 완벽할 수 없다.
- ⑤ 이러한 유기질 폐액이 호수로 들어가게 되면 물이 오염되어 식품위생법상 음료수로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이 주장은 목포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흘러나온 지 보름 만에 영산호 수질오염방지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다. 물론 이 단체는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정보가 흘러나오자마자 바로 공해추방 활동을 전개해 왔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 볼 싸움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목포 시민들의 공해추방투쟁은 실로 신속하고도 기동성 있게 전개되었다.

❖ 목포 시민들의 뼈아픈 경험과 반성

목포 시민들은 외지 사람들에게 ‘삼학도를 구경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마다 곤혹스러운 빛을 감추지 못한다. 삼학도가 없기 때문이다. 아니 그보다는 삼학도를 잃어버렸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이다. 지금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는 삼학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삼학도는 목포의 눈물만큼이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학도가 육지와 연결된 이후 삼학도의 역사는 수난의 역사였다. 육지와 연결된 초기만 하더라도 삼학도는 학생들의 백일장을 여는 장소로서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위락 공간으로서의 제몫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계속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하던 사람들은 삼학도의 허리를 깎아내서 제분공장을 지었고 석유 저장 탱크를 세웠다. 그리고는 어느새인가 그 깎아진 허리를 타고 사창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은 추억 속의 삼학도로서만 남아 있을 뿐이다. 결국 무책임한 행정관료와 사사로운 이익에 급급한 자들이 결탁하여 목포 시민들에게서 삼학도를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지금은 삼학도를 살리자는 캠페인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본래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 안타깝기만 할 뿐이다.

이러한 기억은 삼학도만이 아니다. 목포가 항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선창가에 나가보면 항구 특유의 시원스런 경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눈앞에는 우중충한 3층 건물이 도열해 있고 파란 물과 뱃고동을 울리며 떠나는 여객선과 하얀 갈매기는 그 너머에서 외롭게 놀고 있다. 그 건물에서 버리는 쓰레기와 그 건물로 인한 답답함 때문에 목포는 ‘지저분한 도시’라는 또 하나의 오명을 갖고 있다. 목포와 그 주변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관광객들이 대하는 곳은 흥도나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잠깐 들르는 선창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목포 시민들의 쾌적한 위락 공간이 사라져 갔고 또 한편으로는 국토개발과정에서 계속 소외돼 왔다. 해방 당시 손에 꼽을 정도였던 목포가 현재는 전국 도시 중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의 명백한 증거이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지역사회를 가꾸고 발전시켜 나갈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들이지 임기를 채우면 떠나가는 행정관료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더 명백해졌고 그 동안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려는 노력을 너무 소홀히 해 왔다는 자각’이 싹텄다.

❖ 국제봉사클럽협의회와 지역단체협의회

6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지역 유지인 기업가들이 앞장서서 일해 왔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유지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적극적 행동은 둔화되었다. 이는 모든 정치권력은 일부 소수의 특권계층이 틀어쥐고 있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요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당시의 암흑과도 같은 유신정권의 반민주성에 기인한 것이었다.

실례를 들면 700리 바다의 뺨 속에 몇 백년 동안 잠겨있던 신안 보물선을 인양했을 때 그 고귀한 유물들이 정작 보관되어야 할 목포를 떠나 서울로 실러가는 것을 보면서 내 고장에 해양박물관이 생겼으면 하는 시민의 뜻을 모은 분들이 구체적인 추진운동을 위한 기초작업을 하고 건의문까지 만들어 기존 유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 적이 있었다.

박물관 유치를 소망하는 많은 분들이 상공회의소에 모여 결의를 하고 건의문을 올리려 할 때 유지라는 사람들은 혹 불가능한 것을 건의했을 때 웃어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지나 않을까 지레 겁을 먹고 작성된 건의문을 발송치도 못하고 말았었다. 시민의 소망마저도 유지들은 앞장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무렵의 목포의 분위기는 시민의 소망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가 뜻깊은 제안을 하거나 받기라고 하면 ‘재가 뭘데’ 하는 식으로 덮어 놓고 묵살하였고 그러면 으레 추진하던 일을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혹 웃어른의 심기를 괴롭히는 결과가 되어 자신의 사업이라도 망할까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의 정당한 요구는 전달될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74년 국제봉사클럽 회장 총무들이 모여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일이 있을 때 국제봉사클럽이 발기인이 되고 추진 단체가 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제봉사클럽에서 종전에 유지들이 하던 일을 대신해서 하게 되자 이번에는 또 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말이 많게 되어 결국 상공회의소, 국제봉사클럽협의회, 예총, 개발위원회 등 4개 단체의 각 단체에서 대표 5명을 선출하고 사무직원 11명을 확보하여 사무직원 11명을 포함한 24명이 매월 돌아가면서 의장을 맡는 목포지역단체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은 지방자생조직의 존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공해추방운동처럼 주민운동의 차원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인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 목포의 경우도 국제봉사클럽협의회나 지역단체협의회 존재는 공해문제에 기동성있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존의 조직적인 세력들은 자연스럽게 운동의 지도부로 부상하여 운동을 이끌어갔다.

2. 진로 주정공장의 추방

(1) 서막-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의 탄생

‘영산호를 살리자!’는 기치 아래 전개되었던 목포 시민들의 공해추방투쟁은 시민들 스스로가 이 싸움과정을 초반전, 중반전, 종반전으로 부르듯이 홍보와 조직, 동원 등의 활동에서 하나의 전투를 방불케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도 편의상 진로 주정공장추방과정을 서막(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의의 탄생), 초반전(배출시설 설치불허 정), 중반전(환경청의 번복), 종반전(시민의 승리) 순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진로 주정공장 추방운동의 서막은 82년 10월 3일 진로측이 주정공장 이전 신청을 내면서 열리게 된다. 진로 주정공장은 73년부터 제주도에 있는 (주)천마물산의 시설을 임대하여 공장을 가동해 오고 있었다. 그동안 주정공장에서 버린 폐수와 고구마 찌꺼기가 제주도 제주항 근해 어장(전북, 소라, 미역)을 오염시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오염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고 제주도 당국으로부터 공해업소로 지정됐었다. 이와 더불어 시설의 노후화로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52년 중공)과 함께 82년 9월 30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82년 10월 1일 가동을 중지하고 이전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영산강의 지류인 몽탄강 상류 영산포 삼영리로 결정하고 10월 31일 이전허가 신청을 냈다. 물론 여기에는 보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지역의 소주시장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했다.

그러다 대다수 유역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소수의 인사들만이 정보를 독점한 채 막후교섭의 형태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는 막후교섭이 아닌 광범위한 주민운동으로

그러나 공해추방싸움의 과정이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듯이 소수에 의한 막후교섭이란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해추방은 오로지 광범위한 주민운동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목포시의 단체들은 환경청장, 전남도 지사 등 9개 당국에 반대 건의문을 발송했으나 모두가 허가권자인 전남도 지사에게 위임되었다는 회답만을 보낼 뿐, 대책을 세우는 데는 하등의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전남도지사도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상 자신의 재량권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 83년 5월 20일에는 목포시 대표, 금성시 변영회장, 목포시장, 금성시장, 전남대 교수, 조선대 교수, 환경청 직원 등 17명이 모여 목포시 대표가 주정공장 설립반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금성시 대표의 입장등이 개진되었으나 아무런 결론을 얻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공해 피해의 당사자인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막후교섭에서는 모든 주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결론이 내려지기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기 쉬우며 설령 주민들을 염려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마련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의 회합은 무책임한 말만 무성할 뿐이다. 이 당시 사계의 전문가로 알려진 교수들의 모임도 있었으나 이 모임에서는 ‘공해 문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결론이 났다. 하나의 호수, 그것도 동양 최대의 호수인 영산호의 오염에 대한 평가는 면밀하고도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정공장은 영산호의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한 것도 사실은 주민들이 무지한 상태에서 회합이 진행된 결과이다.

❖ 소신없는 어용교수의 결정이 큰 뜻을 그르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포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정보가 흘러나온 것은 목포 경찰서 정보과 형사에 의해 영산호보존회 초대회장 서한태 박사에게 알려진 83년 6월 15일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아주 긴박한 것이었다. 지방대학 일부교수들은 “주정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영산호는 크게 오염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도지사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는 한 주정공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정보과 형사의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 주정공장이 들어설 장소는 목포 시민들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래의 취수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몽탄강 상류의 영산포 삼영리라는 것이었고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12억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보수하고 있고 폐수처리 시설도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장에서 배출될 예정인 폐수는 자그만치 하루에 약 2700톤에 이른다는 것이었다.

❖ 활동이 미미한 조직도, 없는 것 보다는 유사시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입수한 서한태 박사는 주정공장 설치반대는 소수인들의 막후교섭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주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방운동을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당시 자신이 소속돼 있던 ‘청호 라이온스클럽’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6월 17일 ‘국제봉사클럽협의체’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회의 때 가지고 갈 결의문 작성을 서둘렀다.

그리하여 6월 17일 하오 5시 YMCA 2층에서 국제봉사클럽협의체의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 석상에서 목포시의 상수원인 영산강 상류에 주정공장이 세워진다는 것이 거론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흥분되기 시작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웬만한 목포 시민이라면 옛날 산정동의 주정공장에서 흘러보냈던 아랭이(주정공장 폐수)의 악취에 인상을 찡그리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주정공장의 폐수는 모두가 고개를 내젓지 않을수 없는 문제였다. 목포 시민들이 작성한 유인물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주정공장은 흡사 하나의 화약고처럼 받아들여졌고 공장폐수는 독약으로 받아들여졌다.

주정공장 설치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곧 바로 옛날의 어두운 기억들을 되살아나게 했고 회의장의 분위기는 성토대회로 바뀌어갔다. 한마디로 “주정공장 설치는 죽어도 안된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심정이었다. 청호라이온스클럽에서 준비해 간 건의문도 문맥이 너무 약하니 더욱 강력한 것으로 작성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인 정도로 회의장의 분위기는 참으로 열띤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주장공장 설치를 결사 반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절차상 국제봉사클럽협의체,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 예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단체협의회의 소집 요구와 요로에 건의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건의문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우선 청호라이온스클럽에서 미리 작성해 온 것을 보내고 앞으로 계속 다듬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당일로 발송했다.

❖ 영산호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의 탄생

앞서 소집한 지역단체협의회는 바로 다음 날인 6월 18일에 회의를 개최한다. 상황이 급해서 18일 오전에 전화로 연락을 취했으나 갑작스런 소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회원이 참석했다. 이 회의도 분위기가 폭발 직전의 숙연한 분위기였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무척 애를 썼고 시 당국에서도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남도에 상신했으며 시개발위원회의 노력도 있었으나 사계의 전문가로 알려진 교수들의 모임에서 목포 시민들에게 불리한 의견이 피력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먼 훗날을 위해서도 심의에 착수했던 교수들의 명단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말도 튀어 나왔고, 영산호에 대한 오염평가는 면밀하고도 장기적인 과학적 기초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주정공장이 영산호에 영향을 미치느니 안 미치느니 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는 등의 말이 오고 갔다.

이 회의는 흥분되었던 분위기를 가라앉힌 다음 “이 문제에 대한 대처는 범주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설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오늘의 이 모임을 발기인회로 간주하고 최단기일 내에 창립총회를 갖자”는 것을 결의한 다음 이의 준비위원으로 4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주민운동에서의 상설기구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운동에서는 연대감이나 실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다. 주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은 한결같이 장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해문제와 같이 평생을 두고 전개해 나아가야 할 주민운동에 있어서는 지속성의 문제가 더욱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상설기구는 주민운동에서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또한 역으로 생각하면 이 상설기구의 탄생은 전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설기구의 탄생은 그 자체가 주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전열정비라는 의미를 갖는다.

창립총회를 위한 4명의 준비위원들은 준비 작업을 일사불란하게 진행시켜 23일에 창립총회를 갖기로 합의하는 한편 시민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역전 육교에 플랭카드를 걸기로 했다. 그리하여 21일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어떠한 시설도 우리는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역전 육교에 걸림으로써 주정공장 설치 반대 싸움의 포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시작되면서 주정공장 설치반대는 하나의 추방운동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시민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당시에 소집되던 각 모임에서도 영산호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6월 21일에는 재목(在木)라이온스클럽 신·구 총무, 회장단의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영산호의 문제가 농도깊게 거론되었으며 결의문 채택과 함께 한 클럽에서 두 개씩 열 여섯 개의 플랭카드를 걸기로 결의한 후 바로 실천에 옮겼다. 그리하여 23일에는 시내 요소요소에 플랭카드가 나붙기 시작했다. 플랭카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어떠한 시설도 우리는 결사반대한다”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그 어떤 행위도 23만 시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영산호는 우리의 생명수이다. 오염행위는 결사반대한다.”

6월 23일에는 드디어 근로자회관에서 상설기구 창립총회가 열렸다. 아직도 홍보활동이 미흡했던 관계로 경과보고의 형식을 빌어 참석자들에 대한 홍보를 곁들이면서 진행된 이 총회에서는 80여 명의 참석자 전원이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를 만들어 범주민 운동을 전개하자고 결의했고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산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어떤 시설도 좌시하지 않는다.
- 23만 시민의 젖줄을 오염시키는 것은 살인행위로 간주,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 영산호 수질보전을 위해 온 시민이 일치단결하여 수질 보호 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영산호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준다.
- 영산호 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에 23만 시민이 총력을 경주한다.

(2) 초반전 -배출시설 불허결정-

❖ 뿌리내리는 주민운동

상설기구가 탄생한 다음 날인 24일부터 목포시는 흡사 무슨 일이 금방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목포시의 중심가인 오거리를 비롯하여 항만 여객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2호 광장, 구법원 앞 등지에서 국제봉사클럽회원들을 중심으로 가두서명을 벌이는 한편 “영산호 환경을 보존하자”는 내용의 리본을 달아주고 유인물을 살포하였으며 국제봉사클럽협의체의 각 단체들과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 예총 등의 단체가 지역별로 분담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서명운동은 계속 추진되어 다음 날인 6월 25일에는 9,000명 27일에는 11,000명이 서명했다. 특히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장소의 뒷 벽에는 플래카드를 걸어놓음으로써 공해를 기어 이 추방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하여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하였다.

유인물은 대량 살포되었다. 유인물은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인 만큼 시민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제작해서 나누어 주었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면서 가두방송까지 곁들여 입체효과를 내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전개된 공해추방운동은 그동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눌러 참아야 했던 시민들의 입을 열게 했고 그 소리를 함성이 되어 메아리쳐 갔다.

24일 오후 2시에는 시내의 약사들이 모여 “수질오염은 우리 약사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도 시민 계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위원장단은 각 단체들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조직 정비작업과 기관 방문 등을 추진했고, 자체적으로 유인물 살포와 리본달기를 전개해 나갔다.

25일에는 남일극장에서 6·25기념행사가 있었고 거기에는 관제동원으로 모인 1,000여 명의 참석자가 있었다. 위원장장은 이 모임에도 찾아가 그들에게 직접 리본을 달아주고 유인물도 함께 배포하였다. 그러자 이 광경 지켜보던 뜻있는 부녀들이 “우리가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 위원장장은 얼마나 가슴뭉클했는지 모른다.

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 내 고장에서 공해를 추방하고 사람답게 한 번 살고픈 간절한 염원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만으로, 기관의 눈총과 관계 언론의 냉대에서 굴함없이 굳세게 싸워온 회원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주민운동이 진일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서명운동, 리본달기, 유인물 살포작업은 시민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어 갔고 6월 27일부터는 본격적인 가두방송이 시작되어 홍보활동에서도 진일보해 갔다. 특히 가두방송은 낭랑한 목소리로 호소력있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시민들을 흥분시킬 정도였다.

한편 영산강 오염방지대책위원회는 6월 28일 근로자회관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앞으로는 기획, 총무, 홍보, 동원, 학술 등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체계적인 투쟁을 벌이기로 다짐했다. 특히 학술부분은 공해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흔히 공해문제가 야기될 때 주민들이 듣는 내용은 어려운 용어를 나열한 끝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든지” “피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일 뿐이었다. 주체적으로 조사하여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한 이상 언제나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다.

목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진로측은 주정공장이 폐수처리시설만 갖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선전을 계속했고 만일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그러한 선전에 넘어 갔을 것이다. 이 사항은 뒤에 진로측과의 공방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또한 기획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월말이나 다음 달 초에 대통령의 방문이 있으니 이에 대비하여 앞으로 2일간을 고비로 생각하고 가두방송, 서명운동, 리본달기에 가일층 노력하기로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동원체계를 확립할 것을 결의했다.

❖ 진로의 만행을 규탄한다.

이렇게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운동을 추진해 나가던 중 6월 30일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진로측이 확산되어 가던 주민운동에 쐐기를 박기 위하여 광주일보에 대문짝만한 크기로 해명서를 발표했던 것이다. 이 내용은 마치 영산호 오염방지대책위원회가 시내 모 양조업자의 앞잡인 것처럼 발표됨으로써 목포시민들의 자존심을 극도로 자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정공장 폐수가 영산호의 오염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이었다.

영산호 오염방지대책위원회에서는 즉시 반박 성명서를 만들어 다음날 광주일보를 찾았다. 그런데 엉뚱한 것은 보통 때면 40~50만원이면 가능한 광고료를 최고의 액수인 880만원이나 달라는 것이었다. 진로측이 이미 880만원을 지불하고 광고를 게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자본력있는 대기업의 무자비한 횡포였다. 그래서 위원회는 차라리 그 돈의 100분의 1만 가지고 몇 만장의 유인물을 만들어 뿌리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하였다.

이러한 진로측의 행동은 목포시민들에게는 하나의 만행으로 비쳤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박문도 아주 통렬한 어투로 일관했고 진로측의 공해무관, 고용·세수증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반박문에서는, “진로측 주장에 의하면 공장에서 흘러보낸 물이 깨끗한 물이어서 아무런 염려가 없다는데 맑은 물 같으면 왜 버리는가?

그 물을 다시 정수해서 쓰면 될 것 아닌가? 진로특이 별소리를 다 해도 못 믿겠으니 그 ‘깨끗한’ 폐수를 사장이 마신다면 믿겠다.”고 하면서 그 누가 보아도 옳은 일에 나선 사람들의 당차고 패기있는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선전전에서는 내용에서의 객관성 유지와 간결하고 평이한 선전방식을 통해 운동의 대중성을 확보해 나간 모범을 보여 주었다.

❖ 언론기관의 추태

한편 이렇게 공해 추방을 위한 싸움이 간단없이 진행되고 있던 도중에 이번에는 각 중앙 일간지가 찬물을 끼얹기 시작했다.

23일 영산호오염방지대책위원회 탄생 직후에는 목포 시민이 영산호의 오염방지를 위해 꺾기하고 나섰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으나 26일로부터는 마치 이 싸움이 목포시와 금성시의 싸움인 것처럼 오도하는 내용을 다루어 게재하기 시작했다.

6월 26일 경향신문에 “진로 주정공장 가동 싸고 맞서 목포시민 반대, 금성시민 환영”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실린 이후로 각 일간지들은 목포 시민이 오염방지를 위해 꺾기했다는 기사가 차지했던 면보다 몇 배나 더 되는 지면을 할애하며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 기사의 표제도 가지각색이었다.

“영산호에 때아닌 술 소용돌이(동아일보 6월 30일), 금성시내 진로 주정공장 가동 싸고 목포·금성 주민 맞서(한국일보 6월 30일), 진로 주정공장 가동 싸고 목포·금성시민 찬반대립(조선일보 6월 30일) 등등 목포 시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공해추방운동은 하루 아침에 술 소용돌이 내지는 지역간의 싸움으로 전락해버렸다.

물론 당시에 금성시에서는 “진로 주정공장 금성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공인협의회와 나주 군민 대표 30여명이 모여 29일 오전에 춘광예식장에서 꺾기대회를 열었다. 그러나 실상은 중앙 일간지의 내용처럼 금성시 시민 대 목포시 시민의 대립은 아니었다.

나주 시민들에게는 나주 비료공장으로 인한 뼈아픈 경험이 있었다. 나주 비료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주 군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공장이 들어선 이후 수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고 공장이 이 지역에 들어선 이후 나주 군민들에게 돌아 온 것은 비소로 인한 토양오염이었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은 셈이다. 그래서 나주 군민들도 대다수는 주정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모 국회의원과 소수의 상공인 그리고 눈 앞의 세수증대에만 눈이 먼 일부 행정관료들이 주정공장의 설립을 환영하는 의사를 나타냈을 뿐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유치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아보지 않은채 중앙 일간지들은 금성사에서 나온 유인물만을 기초로 하여 추측기사를 무책임하게 휘갈겨댄 것이었다.

창간 기념일이나 신문주간만 되면 언론의 책임이 어떻고 지금까지의 언론의 역할은 이랬다는 식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하여 떠들어대던 언론이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몇 십만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실을 오도했다는 것은 실로 커다란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 한 시민은 사회의 공기라는 언론이 공기가 아닌 공해의 원천으로 전락해 버린 느낌이 든다며 분노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호 보전회 초대회장 서한태 박사는 공해문제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일화를 상기시켜 주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쯤에 모 목포시장이 일본에 가서 일본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해산업이라도 좋으니 목포에 공장을 유치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었다. 이 목포시장의 말은 당시 공해문제로 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그래서 공해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던 일본인들에게는 하나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신문지상에까지 대문짝만한 크기로 게재되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 신문을 시장이 가지고 와서 목포시의 유지들에게 자랑삼아 내보였고 지방유지들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공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해만 충족되면 된다는 몰지각한 기업인의 표상을 보는 듯한 일화였다. 그러면서 서한태 박사는 지금의 금성시가 어찌면 10여년 전의 목포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씩씩해 했다.

❖ 승리로 끝난 초반전

이와 같은 진로측의 공격이나 일간지의 추태는 공해추방운동을 주춤거리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더 필사적인 공해추방운동을 전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직정비와 가두서명운동, 가두방송, 각 가구에 유인물 살포하기 등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자 7월 1일경 도지사로부터 “유역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알았으니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는 연락이 왔다. 이에 7월 2일과 3일은 잠잠하게 지내고 있던 차에 7월 4일 “배출시설 설치를 불허한다”는 도지사의 결재가 났다는 소식이 왔다. 설치할 경우 현재의 영산강 오염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영산호는 담수호로서 오염물질이 누적될 경우 유기물질이 쌓여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이 나타나는 등 영산강 하류지역 주민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 동안 목포시민들이 주장해 왔던 바가 주민운동의 활발한 전개를 통하여 관철되었던 것이다.

* 강이나 호수에 생활하수(대표적인 것 합성세제)나 공장폐수 또는 비료나 유기물질 등에 의해서 물 속에 영양염류인 질소나 인 등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태양광선을 받아 단세포의 물풀이나 식물성 플랑크톤, 대형의 수중 식물 등이 폭발적으로 증식된다. 겨울철이 되면 식물이 줄게되어 하천이나 호수에 침전되며 그것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등을 방출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점차로 영양염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영양염류의 유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과 아울러 계획적으로 영양염을 제거해야 한다.

** 바닷물이나 강물이 갑자기 붉게 물드는 형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고기들이 수면에 떠오르고 양식 중인 수산물이 폐사하게 된다. 해수가 공장폐수나 유기물질에 오염되어 유독성분을 지닌 적색 플랑크톤이 갑자기 번식하기 때문이라는 학설이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이런 현상은 1년에 한 두 차례 발생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마산 앞바다의 물은 항상 붉은 빛을 띠고 있어 1년 내내 적조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며 84년에는 인천 앞바다에서도 처음으로 적조현상이 나타나 사람들을 긴장시켰었다.

(3) 중반전 -환경청의 번복-

❖ 운동지역 확산과 조직정비의 노력

배출시설 설치불허 소식을 접한 목포 시민들은 곧바로 공해추방운동은 영산호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 주민들도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운동의 확산에 주력했다. 사실 영산호의 오염은 목포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산호 유역 주민 모두에게 공통된 문제였고 또 영산호 유역 주민 모두를 이 싸움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진로 주정공장 추방싸움이 앞서 지적했던 바처럼 지역 간의 싸움인양 오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선 위원단장은 연락하기가 비교적 쉬운 무안, 함평, 영암, 해남 등 4개군의 의사와 평통 위원들에게 7월 5일과 6일 양일 간에 걸쳐 지역 모임에 참가해 줄 것을 전화로 연락했다. 그리하여 7월 7일에는 위 4개군의 주민들과 함께 대책회의를 가질 수 있었다. 7월 7일 3시에 열린 이 대책회의에서는 앞으로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산하고 그 대신 무안, 함평, 해남, 영암 등 4개군을 포함한 영산호유역환경보존위원회를 탄생시키기로 결정했고 그 대책회의를 발기인 총회로 간주하고 준비는 수질오염방지대책위원회 위원단장에게 일임한다는 결의를 한 다음 해산했다. 장차는 나주군과 금성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었지만 당분간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영산호유역환경보존위원회의 탄생은 위원장단 내의 의견 불일치로 늦어졌다. 7월 7일 대책회의 이후 8월 7일까지 한 달간은 주로 조직정비 작업으로 보내면서 소강상태를 유지했는데 그 이유는 배출시설 불허조치가 난 후 금성시 일각에서 상공인 등이 흥분될 조짐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자극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삼가 달라는 전남도 지사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였고 한편으로는 조직 구성 문제에 대한 위원장단 내의 의견 불일치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의견 불일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집행부 구성문제였다. 의원장단 일부에서는 환경보존위원회의 조직은 자발적인 지역기구인 만큼 그 조직은 철저하게 민주적이어야 하며 그 래야만 참여한 사람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되고 따라서 강력한 체제로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의 조직은 회원제를 바탕으로 하고 회원 10~20명에서 한 사람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이 대의원 중에서 집행부를 구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직을 회원제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목포시민 전체가 회원인데 그 무슨 회원제가 필요하느냐고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사실상 조직의 의의와 역할마저도 몇몇은 부정하려 들었고, 조직을 개방하고 비례대표제로 할 경우 종교계와 학생 등 진보적인 세력도 환경보전위원회에 참가할 것을 두려워한 일부 친여 인사들에 의해 이 제안은 거부되었다. 이들이 이 제안을 거부한 데는 만약 비례대표제로 집행부를 구성할 경우 회원수가 적은 상공회의소, 평통 등의 힘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싸움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정리하고 연구할 사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운동에 헌신적이며 활동적인 젊은 사람을 상근직원을 두자는 안도 제출되었으나 일부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대서(代書)나 할 정도면 된다는 식으로 맞서는 바람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공해추방 주민운동의 경우 직접 업무를 담당한 집행부는 자신이 하나의 감투를 썼다는 것에 위안을 갖고 자부심을 느끼기 보다는 한 사람의 심부름꾼이자 주민운동을 이끌어 나가 는 지도자로서 끊임없이 투쟁방법과 계획을 개발해 나가야 하며 때로는 온갖 회유와 협박도 감당해 나가야 한다. 주민운동 조직은 조직 전체의 내용이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형성되고 그 조직의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환경보전위원회 결정과정에서 벌어진 의견 불일치는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고 이에 따라 회칙이 만들어졌다.

❖ 계몽과 회원의 확산

그러나 이러한 소강상태 하에서도 앞으로 주민운동이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한 다각도의 분석, 검토 작업은 계속되었다. 8월 13일 YMCA 회관에서 열린 국제봉사클럽협의회 월례회 석상에서는 왜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를 빨리 탄생시키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준비위원들에게 대한 항의가 있었고 빨리 탄생시키라는 촉구 결의까지 있었으며 보전회가 탄생될 경우 우리 봉사클럽은 전 회원이 적극 참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 회의 석상에서는 아직도 영산호 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설문지를 통해 시민을 계도하자는 결의가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설문지란 사람들의 의식상태를 종합해 보는 것이 주 목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훌륭한 계몽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봉사클럽에서는 주로 후자의 취지에 맞게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작업을 실시했다. 너무 의도가 뻔히 드러나 좀 거칠다는 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목표로 하고 있는 계도에는 더할 나위 없는 기능을 훌륭히 수행해 주었다.

한편 회원 가입도 순조로이 진행되어 의료업계인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약협회 등이 회원 가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뜻을 비쳤다. 이 때까지만도 종교계에서는 공해문제를 자신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남노회 목포시찰회에서는 “내땅이 죽어간다”는 제하의 공해문제 인식을 위한 강연회를 계획했다. 이 강연회는 7월 24일 목포 양동교회당에서 열렸는데 연사로는 전 연세대 교수였고 기장 선교교육원장으로 있는 서남동 목사(주제: 환경문제와 교회의 사명) 중앙대 교수이며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이사인 유인호 교수(주제: 공해는 추방될 수 있다)가 초청되었다. 이 강연회는 종교계에 공해문제를 인식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고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어 그 후 종교계가 공해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종교인들의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는 그간 분투해 온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었다.

❖ 이해할 수 없는 환경청

그러나 이러한 진전이 있었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주정공장 측에서 7월 27일 환경청에 소원을 제출 했고 그것이 심의 중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판정은 전남도 지사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찬정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판정이 8월 8일에 결정됐었는데도 유역 주민은 물론 환경보전회의 집행부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집행부 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8월 19일이었고 유역 주민들은 8월 25일 경향신문 사회면에 “환경청에서 도지사의 설정이 반복되었다”는 기사가 실린 후의 일이었다. 이 소식은 환경청의 결정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기는 어렵다는 소식과 함께 전해졌다. 환경청의 결정 요지는 “법적인 허가 요건을 갖춘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공장가동을 하겠다는 것을 공해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방지시설의 설치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환경보전위원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내세워 환경청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고 맞섰다.

첫째, 전남도 지사는 20여일 내에 처리해야 할 민원서류를 반년이 넘도록 끌면서 심사속고한 끝에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불허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런데 환경청이 유역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를 현지조사도 없이 몇 장의 서류만을 보고 10여일 만에 졸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환경청의 처사는 50만 주민의 생존권보다 1개 기업의 이유를 중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둘째, 환경청 스스로도 82년 10월 20일 4대강 중에서 영산강의 오염도가 가장 심하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기존 공해 업소에 대해서 엄중히 단속하고 공해시설을 철거시키거나 소량의 공해를 배출하는 업체라고 신규허가를 불허하는 것이 원칙인데 엄청난 공해를 주정공장의 설치를 인가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처사이다.

셋째, 현재 목포시는 120억 원의 세계은행 차관을 들여와 영산강에서 식수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 8월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취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머지않아 몽탄강이 목포시의 상수원이 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이 상수도 보호지구로 확정되어, 일체의 공장 설립이 중단되는데 서둘러 현행의 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은 1개 기업의 이해에 환경청이 이끌려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넷째, 환경청은 현행 보존법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의 생존권은 어떠한 법에도 우선한다. 법이 문제라면 법 개정을 위한 싸움도 불사하겠다.

다섯째, 우리는 장성의 고려시멘트가 보여준 공해문제의 실상을 너무도 분명히 지켜 보았다. 장성 시민들이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동안 수없이 진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그 정도로도 괜찮다는 듯이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방관만 하고 있다.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싸울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청에 대한 반박이유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공해추방문제는 유역 주민들이 물러설 수 없는 절박한 문제였고 환경청의 반복은 오히려 약간의 소강상태에 빠져있던 공해추방운동에 불을 당겼다.

(4) 종반전 -시민의 승리-

❖ 전열정비

19일 환경청의 번복결정이라는 소식에 접한 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모임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를 탄생시켜 전열을 정비하고 더욱 더 적극적인 주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8월 23일에는 근로자회관에서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의 창립 총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시민들도 8월 25일 경향신문에 환경청의 불허조치 번복 기사가 난 후로 다시 긴장상태에 들어갔다.

8월 27일 오후 2시에는 의사회관에서 이사회 모임을 갖고 “이제 전시체제로 돌입했으니 모든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서 조직상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집행부 내부 뿐만이 아니라 시민 각층에서도 활발히 일어났다. 7월 24일에 있었던 서남동 목사와 유인호 교수의 강연을 통해 많은 종교인들이 감동을 받아 8월 30일에는 기독교로 장로회 시찰회가 영산호 오염방지운동에 동참하였다. 곧 이어 9월 2일 오후 6시경에는 한 때 주먹을 휘두르며 놀았던 청년 40여명이 모여 “우리도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도 임무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들의 주장은 “지금까지 선한 사람도 때리며 살아 왔는데 지난 날을 속죄하는 뜻에서라도 이번 주민들의 생명수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는 식의 험악한 말까지 오갔다. 그리고 이 날 오후 8시에는 만호동의 유지들이 서명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한편 9월 5일에는 목포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영산호 환경보전에 적극 나섰다. 목포 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공해추방운동을 방관한 채 사회정의나 복음을 말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데에 뜻을 같이하고 스스로 ‘영산호오염방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공해추방운동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카톨릭계에서도 신부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9월 18일에는 사도회 연합회가 “우리도 영산호의 문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후 궤기대회가 준비되면서부터는 불교계에서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주민운동을 위한 정열은 다듬어져 갔다.

한편 초반전이 진행되고 있을 무렵부터 시민들 가운데는 마치 위원장단이 시내 모 주정공정의 앞잡이라는 식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두 사람도 못 건나가서 뜻있는 시민들의 빈축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분이 아닌데 “칼맛을 소리 하지 마라”는 식의 반박을 받아 확산되지 못했다. 그런데 진로측은 선전이 있고부터 좋지 않은 유언비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집행부측은 이러한 것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조문을 만들어 뿌렸다.

애향시민의 협조를 바랍니다!

뜻이 있는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영산호 상류에 주정공장이 설치 되어서는 안된다」고
 한결같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결정한 것은 좋던 나쁘던 따라야 한다」느니
 심지어는 「주정공장이 생겨도 우리의 상수원에는 큰 지장이 없다」느니
 하면서 우리 시민을 오도하는 분이 더러 있는데 이런 분을 발견하는 즉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발간할 「영산호」라는 잡지에 주정공장이 서도 좋다는 분의
 명단을 공개하여 먼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합시다.
 우리는 역사를 의식하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행동합시다.

알리는 곳 : 목포시 무안동 2가 6(의사회관 내)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

또한 집행부는 외지에서 손님이 오거나 염탐꾼이 오더라도 먼저 서비스업소에 들릴 것이
 예상되니 우리의 굳은 의지와 단결력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다방과 음식점, 숙박업소, 이미
 용업소에서 리본달기의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해추방운동은 이렇게 빈틈없이
 정력적으로 진행되었다.

❖ 기획위원회와 집행부의 활동

9월 6일에는 의사회관에서 기획위원회가 소집되어 앞으로는 가급적 일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도 그 계획대로 추진시키기로 하여 3단계로 나눈 계획표를 작성했다.

1단계는 리본달기, 플랭카드 달기, 탄원서·건의서 보내기, 청원서 서명운동, 회원모집, 설
 문지를 통한 계몽활동 등이었고 2단계는 서울에 대표단 파견·각계 방문, 공청회 개최, 국
 회에 청원서 제출, 동원체제 정비, 각 군과의 협조체제 구성 등이었으며, 3단계는 시민궐기
 대회의 순이었다.

이 계획대로 대표단은 9월 8일 서울로 출발하여 9월 9일 지역구양 국회의원과 면담한 후
 환경청에 들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어 국세청에 들러 앞으로 우리 주민의 뜻을 참작해 줄
 것을 부탁했다. 대표단이 환경청에 갔을 때의 일이다. 환경청의 한 환경전문가는 대표단에
 게 어려운 학술적 용어를 써가며 대표단의 기를 꺾으려 했다. 그 환경전문가는 대표단에게
 BOD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는 등 여러 말을 해대면서 대표단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 때 서위원장은 “우리는 그런 어려운 것은 잘 모른다. 딱 잘라 말해서 주정공장이 들어서는 것이 영산강을 오염시키겠는가 아니면 들어서지 않는 것이 좋겠는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최수일 환경청장은 “아무래도 공장을 세우지 않는 것이 오염되지 않고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위원장은 앞에 놓인 탁자를 사정없이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그러면 이제 말을 다 끝났다. 영산강을 오염시키는 주정공장은 절대 설치할 수 없다”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환경청을 나왔다.

대표단이 국세청에 들른 이유는 주정공장 조업 재개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조업허가와 이 전허가를 내주어야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정보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장은 “주정공장보다는 시민의 상수가 중요하며 앞으로 유역 주민의 뜻을 깊이 참작하겠다.”는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 또 대표단은 이날 오후 동아·조선·한국·중앙일보사에 들러 목포시의 사정과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목포에서 리본달기, 플래카드 달기, 서명운동 등으로 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한편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지사의 결정 마감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도지사는 환경청의 결정에 따라 9월 29일까지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9월 7일에 열린 기획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관청과 기업주에게 주민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궤기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결재 마감일 전인 9월 25일(일요일) 1시에 근로자회관에서 공청회 및 궤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와 궤기대회를 같이 열기로 한 것은 공청회일 경우 진로측과 시민 대표가 같이 참석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으로 보아 상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곧 바로 궤기대회로 연결시킬 계획이었다.

❖ 총궤기 계획

시민궤기대회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활발한 홍보활동으로 이제는 공해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신교, 카톨릭, 불교계 등의 단체가 공해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에 동원문제에도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궤기대회 시간을 1시로 잡은 것은 목사님들이 예배 후 신도들을 이끌고 오겠다는 약속 때문이었다.

말이 공청회 및 궤기대회라고 했지 실은 이 날의 행동을 통해서 한 판 승부를 볼 셈이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궤기대회의 유인물 1만장을 만들어 시중에 뿌렸다.

※ 공청회 (시민궐기대회)

한 기업인의 이권과 영산호 유역 50만 주민의 생존권이 대결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뜻있는 목포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때 : 1983년 9월 25일 (일요일) 오후1시
- 곳 : 근로자회관 (노동회관)
- 주최 :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

유인물의 내용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궐기대회는 하나의 대결장으로 설정되었고 시민 각계의 힘은 이 궐기대회를 향하여 모아지고 있었다. 9월 17일 기획위원회가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의한 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떨쳐버리고 공해추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던 개신교측은 물론이고 9월 18일에는 카톨릭 사도회가 궐기대회 개최에 보조를 같이 하기로 가짐을 하고 나섰고, 9월 22일에는 보현정사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계에서도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여기에다 향만노조원과 100여명의 국제봉사클럽 회원들도 궐기대회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어서 궐기대회 당일의 예상 동원 인원은 적어도 5,000명은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수용능력이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근로자회관에 이토록 많은 인원을 동원하려 했던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날의 대회를 통하여 공해추방싸움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시민의 굳은 결의를 내보이자는 생각에서였다. 앞으로 시민의 식수로 사용될 수원에 폐수를 흘려보낼 주정공장 설립에 대해서 관(官)에서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또 설립당사자인 주정공장측도 공장을 세우겠다는 의지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이상 이것을 시민의 힘으로 저지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이 날 예정대로 대회가 개최될 경우 5,000여 명이라는 군중의 집회가 시위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사실이었다. 사태가 이렇게 진전되자 가장 예민한 반응을 보인 곳은 정부기관이었다.

9월 22일 오후 7시 서한태위원장을 비롯한 소수의 위원회 대표들은 연락을 받고 시내에 있는 함흥냉면집으로 갔다. 그 자리에는 목포시장을 비롯하여 목포경찰서장, 검찰청 목포지원 검사장, 안기부 소장 등의 기관장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기관장들은 위원회 대표들에게 법테두리 내에서 일을 추진하라며 은근한 협박을 가해 왔다. 이에 대해서 서위원장은 “나는 시민이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아버님의 산소 앞에서 여생을 값지게 살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했다.(며칠 전이 추석이었다-편자주-). 지금 준법투쟁을 강요하는데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관하는 법이라면 법개정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나중에 서위원장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담담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또 뒤에서 성원해 주신 시민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마음을 털어 놓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급해진 쪽은 기관장들이었고, 위원회측은 29일이 지사의 결재 마감 날이었기 때문에 29일이라는 마감일을 철회하면 위원회도 25일자 의 결기대회를 연기하겠다는 것을 제안하여 합의를 보았다. 그 다음 날인 23일 오전, 관계 정보기관을 통하여 29일의 결재 마감일이 무기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오자 위원회측은 시내 요소요소에 결기대회가 무기 연기되었다는 공고문을 붙였다.

이 일을 잊은 뒤로 집행부는 시민들로부터 집행부가 너무 나약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진로측과의 공방

이 무렵, 주정공장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가장 쉬운 일은 주정공장측이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진로 주정공장 사장에 대한 시민들의 편지보내기 운동과 위원장단의 사장면담 설득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어 호소력에 의해서 사장의 마음을 돌려 보려고 노력을 하는 한편 위 단장은 상경하여 사장과 수차 면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는 큰 성과가 없었고 상황은 결재가 날 듯 한 방향으로 치달았다.

그러던 중 10월 중순경 한 달 전에 진로측으로 보냈던 편지에 대한 답신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이 편지의 내용은 앞으로 시민들의 식수원이 될 영산호와 공해와의 문제는 거두절미한 채 배출시설의 완벽성만을 강조하여 선진국의 배출시설과 비교해 볼 기회를 드리겠다는 식으로 뜻있는 시민들의 속을 건들어 놓았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한주 씨께

보내주신 글 잘 받았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며 맥내에도 늘 밝음이 꽃피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간곡하신 지적과 같이 고향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해문제는 오늘의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포의 경우처럼 오랜 시간 식수의 어려움을 겪어야했던 사정으로서는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 진로가 금성에 주정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착수했던 것이 1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소요로 하는 폐수처리시설이었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하여 밝힌 바와 같이 이 시설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속하는 시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목포 시민들께서 원하신다면 대표들을 선발, 이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유럽 등지의 선진국에 집적 모시고 가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생각마저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설을 해놓고 가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표명하시는 분도 있으나,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우리 공장이 손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은 폐수를 에너지화하여 공장의 동력으로 사용토록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전이 돌 경우를 염려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시설은 자가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공장은 영산강을 오염시킬 요인을 지니고 있지 않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다른 공장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진로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같은 공해요일들을 앞장서 제거할 각오를 지니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진로는 혼자서만 자 살려는 그런 기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장의 설립에 있어서도 전남 지역의 산업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의 참다운 이념을 실현코자 하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편안하시고 하시는 일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83.10. 주식회사 진 로

대표이사 사장 장 익 룡

이 편지에 대해서 서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반박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첫째, 선진 구라과에 고구마를 원료로 하는 주정공장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지적해 보라.

둘째, 호수에 주정공장 배출시설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가리켜보라.

셋째, 더구나 식수원인 호수에 공해 배치시설이 한 곳이라도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경비를 들여 확인해 보러갈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 후 이상의 내용에 대한 회답은 없었다.

그런데 진로주정 사장인 장익룡씨와의 3차에 걸친 면담 중에서 위원회 대표들은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포착했다. 장익룡 사장의 말 가운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것인데 20여억 원이 투자된 지금에 와서 어쩌란 말이냐”는 대목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은 처음부터 ‘주정공장을 설치해도 된다는 것’이 내용적으로 목계가 되었던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표단은 10월 4일 지사와의 면담 시에 주정공장 사장의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으면……”이라는 내용의 말을 꺼냈다. 그랬더니 지사는 묵묵부답이었고 보사 국장이 “자기 멋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괜히 우리 입장만 난처하게 한다”고 했다.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은 위원회 대표들은 10월 18일 금성시 삼영동에 있는 공사를 찾아가 확인을 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현장에는 기존 시설의 보수뿐만 아니라 공해배출시설공사를 하다가 그것이 중단된 광경을 목격할 수가 있었다.

❖ 부자에 약한 감독관청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던 중 10월 17일, 이미 이틀 전에 지사로부터 배출시설 허가가 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보전위원회는 다시 실행행사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주정 공장 측의 배출시설 공사건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국무총리 앞으로 질의서를 보냈다.

……앞의 진로주정공장 사장 장익룡씨의 말과 전남도 보사국장의 말 내용이 ……달라서 저희들이 10월 18일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결과 이미 상당한 시설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상식으로는 개인이 조그마한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도 사전에 허가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소한 건축법 위반행위도 가차 없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는 몇 억 원씩 투입하는 공사를 허가도 없이 사전에 착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여기에 대하여 11월 1일 정부 합동민원실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 1983.11.10 국무총리실에서 당실로 이관된 귀하의 민원사안을 검토한바 동 사안은 불법건축 관련 진정내용으로 이는 전남도에서 조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 기관으로 하여금 민원 사무처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 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회신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 동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지체되거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상당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차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그 후 11월 22일에는 전남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귀하가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주식회사 진로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하여 달라는 내용이므로 허가 및 단속권자인 금성시장으로 하여금 별첨과 같이 처리토록 지시하였으나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첨부 민원처리 지시문)

- 1) 관내 서한태가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한바 주식회사 진로가 허가 없이 공장시설을 증축하고 있다는 내용이니 현지 출장하여 동 시설물의 구조, 규모, 용도 등을 조사하여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하여(건축법 제 49조 용벽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 2) 허가 대상인데도 무허가로 축조하였다면 철거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건축법 제 42조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제 42조의 2위반 건축물 설계자 등에 대한 조치, 건축법 제 43조 보고 및 감사 등)
- 3) 허가 대상이 아니라면 민원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 4) 이 민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이관된 사항이므로 처리 결과를 정부합동민원실에 보고하기 바람.

※ 그리고 이에 앞서 11월 15일에는 금성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귀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서가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바 공작물의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금성시 삼영동 296-1번지 주식회사 진로에서 설치한 고가수로 공작물은 8미터 미만으로 건축법 제 47조 및 동 법시행령 10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대상이 아니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국무총리에게 보낸 결의서는 정부합동민원실...전남도 지사...금성시장의 순으로 떠밀어져 진로가 설치하고 있는 고가수조 공작물은 8미터 미만으로 건축법 및 동 시행령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현지사진을 첨부하여 건의서를 발송하면서도 위와 같은 건의서의 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다.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을것 같았지만 한결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폐수 처리 시설은 건축법이 아니라 환경보전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환경보전법에는 15조에 “배수시설 설치허가 조항에서 배출시설은 반드시 허가증을 교부 받은 연후에 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위원회는 곧바로 진로주정공장의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여 감사원에 고발했다.

우리 영산호 유역 50여 만 주민과 자손만대의 생존권을 위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로에서는 전남 금성이 상영동에 위치한 진로 주정공장 폐수 배출시설을 허가도 득하기 전에 수역원을 들여 사전공사를 하였으며 1983년 10월 15일자로 전남지사의 시설설치 허가가 났다고 하여 10월 18일에 본 위원회에서 대표단을 구성하여 현지답사를 해 본 결과 진로주식회사에서는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수역 원을 들여 사전공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한 기업의 이권을 위해 특권층은 이래도 되는지요.

정의사회 구현의 정신으로 우리 영산호유역 주민의 뜻을 모아 고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는 11월 3일자로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귀하가 당원에 제출한 민원서류는 다음과 같이 처리 중임을 알려 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접수 일자 및 접수 번호 :83.11.1.1994
- 2) 처리 내용 : 환경청에서 조사처리하여 귀하에게 통보함

※ 그 후 환경청에서는 11월 12일자로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귀하가 83년 10월 28일 감사원장에게 제출한 민원이 당청에 이첩되었기 다음과 같이 회신 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음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보전법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 6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결국 감사원에 제출한 고발장도 환경청으로 떠밀어졌고 환경청에서는 처리 내용은 전혀 없이 법조물만을 나열하고 말았다. 관청은 ‘부자에 약한 관청’ 이라는 것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채로 이 일은 마무리 되었다.

❖ 다같이 불러본 “고향의 봄”

마침내 전남도 지사로부터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나버렸지만 영산호보전위원회는 그러한 것에 개의치 않고 공해추방운동을 간단없이 추진해 나갔다.

무기연기로 무산되어 버린 꺾기대회 등의 실행행사를 다시 준비했고 공해추방 캠페인도 계속했다. 한편으로는 영산강유역환경 보전위원회의 이름으로 영산호보전에 관한 문예작품 현상모집을 포스터를 통해 광고하였다. 이 포스터에는 시내 곳곳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를 시에서 철거한데 항의하여 ‘영산호를 살리자!’ 는 큰 글씨를 써 넣어 플래카드를 대신할 선전 벽보로 사용하였다. 일요일이었던 10월 30일에는 새로 단장된 영산호 휴게소를 아직 가보지 않은 임원도 있고 하여 구경도 하고 현지에 가보면 각자의 투쟁에 임하는 자세와 각오도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 오후 4시 휴게소로 집합하기로 하고 일부는 가는 도중 봉고차에 플래카드를 걸고 마이크를 설치하여 가두방송을 하면서 공해추방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휴게소에서는 그 곳 버스승차장에서 리본도 달아주고 유인물도 나누어 주는 등 그 곳에 와있던 사람들에게도 활발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약 1시간에 걸쳐 캠페인운동과 홍보활동을 한 다음 휴게소 3층에 모두 모여 경과보고를 갖고 다함께 ‘고향의 봄’ 을 불렀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물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의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그리고는 만세삼창으로 끝을 맺었다.

이렇게 한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치열한 공해추방운동을 벌여 나가자 진로측은 마침내 손을 들었다. 11월 8일 동아·중앙·조선·한국 등 중앙일간지에는 “자진하여 반월공단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게재되었다.

영산호 유역 주민들은 만세를 불렀다. 그날 밤 바로 연락을 취해서 근로자회관에서는 70여 명이 모여 “영산호보존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그 동안 만사 제쳐놓고 공해추방을 위해 싸웠던 주민들의 얼굴엔 승리자의 환희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은 환희에만 젖어 있을 수는 없었다. 앞으로 부딪혀야 할 문제 중의 하나를 어렵게 해냈을 뿐 문제는 산적해 있었다.

가슴 벅찬 환희와 함께 영산호를 지키겠다는 굳은 각오와 결의가 얼룩진 밤이었다.

3. 주정공장 추방 이후

약 5개월간에 걸친 진로주정공장 추방 싸움에서는 승리하였지만 현재 한국에서 공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곳이 거의가 그렇듯이 영산호 주변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었다.

영산호보존회(1983.12.19. 영산호유역환경보전위원회를 영산호보존회로 개칭)측에서는 진로 주정공장이 물러가던 날 밤 열었던 ‘영산호 보존의 밤’ 행사 때부터 광주천 오염에 대한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지금까지 영산호 보존회의 활동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 광주천 종말처리장 가동촉구

진로 주정공장 추방문제는 영산호의 오염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시급히 대처해야 할 당면 과제였지만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주범은 무엇보다도 광주천에서 흘러내리는 공장폐수와 생활하수였다. 100만을 넘는 광주시민의 생활하수와 분뇨, 공장폐수는 광주천을 새카만 폐수로 만들어 버린 지 오래며 이 폐수는 정화되지 않은 채 영산강 지류를 타고 영산호로 흘러든다. 따라서 광주천 종말처리장의 설치 및 가동은 영산호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둘러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우선 영산호 보존회는 광주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질의서를 보냈다.

……따라서 광주천 종말처리장의 가동이 촉구되기를 바라면서 자연하천과 하수로의 분리 문제라든지 가정하수와 공장폐수의 별도 관로 등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소상히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그 후 12월 14일 광주시 부시장 임두일씨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시문이 왔다.

당시 시가지 중심부를 흐르는 광주천의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은 시정의 주요 과제로서 이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정화조 일제 청소지도, 위생처리장 시설강화 등을 통하여 광주천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인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설부에서 기본설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 고 -

※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안)

- 1) 현 하수배출량 1일 16만 톤
(91년에는 30만 톤 예산)
- 2) 하수도 대장 및 기본계획 82년도 완성
(1억 5천만 원 투입)
- 3)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건설부
(사업비 2억 원 기간은 84년 초)
- 4) 84년도 실시 설계공사 개요
 - 처리장 1일 설계공사 개요
 - 때공사기간: 85~88년
 - 때자집관거: 82킬로미터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89년 이전까지는 종말처리장이 가동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그동안 담수호를 바꾼 영산호는 치명적인 오염피해를 볼 것임이 확실하여 영산호 보존회에서는 이 시설의 설치와 가동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 특히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국회에도 “영산강 유역 환경보전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였다.

(2) 광주에 민간 환경보전단체 탄생 촉구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주시민들 사이에서 광주천 보존회(가칭) 등이 생겨나서 광주천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광주시장, 광주일보 편집국장 및 광주시의 의사회 간부, 봉사클럽, 문필가 등에게 편지도 보내고 직접 만나 수차에 걸친 설득을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목포시민의 간절한 호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4대강 중 영산강이 가장 오염되어 있다는 보도가 수차 있었음에도 100만여에 가까운 광주시민 가운데 영산강 오염의 주범인 “광주천을 살리자”는 절실한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을 살리자”는 한강보전위원회, “낙동강을 살리자”는 낙동강보존위원회가 관과 협조하여 끈질긴 노력으로 1983년을 고비로 한강과 낙동강은 맑아지기 시작하고 있음을 볼 때 광주천만 계속 오염되고 있다는 발표는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광주시민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시장님께서 학계, 언론계, 의료계, 국제봉사클럽 등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추진하여 “광주천을 살리자”는 민간단체인 “광주천보호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탄생시켜 광주천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광주천 주변 주민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푸른 꿈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삼가 건의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편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고 여러 사람을 만나 광주천살리기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영산호보존회에서는 “광주에는 그대지도 사람이 없느냐”는 내용이 만화를 그려서 광주에 뿌리려는 계획까지 하고 있었다.

(3) 계몽을 위한 “영산호를 살리자!”는 문예작품 모집

주정공장 설치반대 싸움이 끝나자 유역 주민들 사이에서 영산호 오염문제에 대한 인식이 사그라질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영산호 보존회에서는 “영산호를 살리자!”는 내용의 문예작품 모집을 통하여 대대적인 계몽활동을 펴는 한편 이것을 수단으로 시내에 포스터를 부착함으로써 공해추방에 대한 열기가 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시내 요소요소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철거돼버려 포스터 부착은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포스터에는 “영산호를 살리자!”는 글씨를 4절지의 상단에 크게 써넣고 이것을 시내 도처에 붙였다.

한편 각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각 급 학교에 문예작품 현상모집을 한 결과 목포, 영암, 해남, 등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약 400점의 작품이 응모돼 왔다.

영산호보존회에서는 이를 엄격히 심사한 끝에 최고상에 목포이로초등학교 김명희 어린이 외 35명, 장려상에 유달초등학교 임수연 어린이 외 25명을 선정하여 그 밖의 입선작을 포함한 입상자들에게 보존회 창설 1주년 기념식장에서 학부모 및 선생님을 모신 가운데 성대한 시상식을 거행 하였다. 그리고 호응해 준 학교 측엔 앞으로 “영산호를 살리자”는 운동에 협조해 달라는 뜻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하늘과 땅 바다가 찬란한 자연이라면 그 혜택 속에서 온갖 것들이 오묘한 삶을 순리로 이룬다. 생태계와 인간 건강의 섭리를 돌아보고 나래 퍼 비상하는 영산호의 자태에 우리 후손들의 것인 금수강산을 성실히 보존코자 깊은 뜻 새겨 여기 여민다.

그런데 응모한 작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아직도 일반학생들이 자연보호 운동을 그저 쓰레기 줍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을 깨뜨리는 데는 공해에 관한 동화나 선생님들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 후 영산호보존회는 수시로 보존회 임원들과 중·고·대학 생물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학생들에게 공해문제를 인식시키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4) 몽탄강 물고기의 떼죽음

83년 11월 중순경에는 몽탄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것을 목격한 주민들은 물고기가 죽어간 장소는 몽탄강 하류로서 예전에는 고기가 싱싱했는데 그곳의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것으로 보아 무엇인가 독극물이 흘러서 고기가 죽었고 그 원인은 보다 상류에 있는 사창의 풍진화학에서 흘러보내는 전분찌꺼기가 아닌가 의심이 가서 몽탄리 이장 임채봉씨가 무안군 당국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군 당국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영산호보존회에서는 군 당국이 뻔히 안한 줄 알면서도 83년 12월 9일 무안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에 대한 조사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1월 중순경 영산호 상류인 몽탄강에 물고기의 떼죽음이 있어 이것이 사창에 있는 전분공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되어 유역민이 뜻을 모아 몽탄면 이산리 이장 임채봉씨가 대표로 군에 전화 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어떤 조사팀이 어떤 조사방법으로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무엇이 원인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사창의 전분공장 폐수처리 시설은 완벽한지 알고 싶습니다……

※ 여기에 대하여 무안군수로부터 12월 16일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몽탄 사창리 소재 풍진화학은 1972년 전분 반제품 생산공장으로 설립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구마 8,000톤을 수매, 매년 11월 중 25일 정도 작업하고 있는 업체로서 1982년까지 간이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 2)1983년 10월 13일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1차 배출 시설로 고구마박(찌꺼기) 처리시설 기계공사(2억 9천만)을 완비, 10월 24일~11월 14일까지 작업한 바 있으며,
- 3)영산호 상류인 몽탄강 물고기 떼죽음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전분공장에서 배출되는 찌꺼기는 처리시설 설치로 일체 배출되지 않고 고구마 세척수로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수 없음을 회시 합니다.

이상의 회시는 물고기가 왜 죽었는가에 대한 회답이 될 수 없었고 주민의 눈으로 확인하고 신고한 사람을 모르는 척 얼버무리려는 것 같아 이러한 것이 시정되지 않고는 영산호 보존에 만전을 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2억 9천만 원이나 투입해서 고구마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기계공사를 했다는 것도 인접 마을사람들의 얘기로는 근거가 없는 것 같아 1월 7일에 무안군 당국에 다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 1) 몽탄강 물고기 폐죽음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회시하였는바 유역 주민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되어 이산리 이장 임채봉씨가 군에 전화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함께 대책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라며,
- 2) 11월 14일 까지 2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고구마찌꺼기 처리시설을 완비했다고 회시하였는데 듣는 바에 의하면 11월 14일 전남도가 주최하는 11개 군 보전사회 관계관 회의석상에서 무안군 사회과장은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배출시설을 완벽하게 하라고 하면 풍진화학은 그만 두겠다고 하니 그렇게 되면 무안군의 영세 고구마생산농가의 생계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군의 입장이 매우 딱하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곧 영산호 보존회에 회시한 내용과 전연 다르니 다시 정확히 회시해 주시기 바라며,
- 3) 풍진화학 배출처리 시설에 대한 환경청의 준공검사 또는 시설점검절차가 있었는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재질의를 받은 무안군에서는 몹시 난처한 입장이 되어 관계담당자직원이 영산호 보존회에 찾아와서 충분한 협의 끝에 앞으로 풍진화학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 후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 몽탄강 물고기의 폐죽음 사실은 없었고 다만 어획하였을 시 고기의 유영력이 저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는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규명할 수가 없었으며,
- 2) 풍진화학의 고구마박 처리시설 설치 기계공사는 83년 조업전에 설피작업을 마치고 공장가동을 중단하고 있음.
- 3) 84년에는 조업 이전에 고구마 세척수에 대한 시설을 한 다음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을 통보합니다.

결코 만족스러운 내용이 아니었고 행정당국의 무사안일한 일처리 방식을 또 한 번 확인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었지만 관계당국에 충분히 관심을 촉구하였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에서 몽탄강 물고기 폐죽음에 대한 추궁은 그치기로 하였다.

(5)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 싸우지 않고 얻은 공해추방사례

그런데 84년 1월 10일에는 몽탄면 사창리 주민으로부터 “풍진화학측에서 인부 4명이 9일과 10일 양 일 간에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놓고 저수지물로 풍진화학에서 배출된 전분찌꺼기를 영산호에 흘려보내고 있다”는 전화연락이 왔다. 그래서 영산호보존회에서는 1월 10일 무안군수와 전남도 보사국장 및 목포시장 영산호 사업소장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어 고발하였다.

- 1) 지금은 저수지물을 확보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문을 개방해서 저수량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풍진화학측은 전분찌꺼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흘려보내서 결과적으로 영산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 3) 이와 같은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의 규제와 처리방법 및 신고처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무안군수로부터 1월 23일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 영산호 수질보존은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해나가고 있고 특히 영산강 상류 하천에 대해서는 “정화의 날”을 제정, 인근 주민들의 계몽 및 하천에 대해서는 “정화의 날”을 제정, 인근 주민들의 계몽 및 하천 청소 등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 2) 84년 1월 11일 본군 몽탄면 풍진화학·사창공장 앞 대로변의 하천 청소시 저수지 물을 약간 방류한 것은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고구마 세척수의 흙탕물이 고여 있어 주변 청소를 위해 방류했다는 것입니다.
- 3) 본 군에서는 영산호 및 유역하천 오염신고 9개소(영산호유역읍면사무소 및 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요령은 6하원칙에 따라 구두 및 전화로 신고하면 됩니다.

한편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영산호보존회에서는 풍진화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중한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었다.

하구언 유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마땅한 상수원이 없기 때문에 영산호에서 취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 있고, 따라서 특히 목포시민은 영산호의 수질오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요즘은 그곳 주민들의 두 차례에 걸친 신고에 의하여 귀 공장의 폐수 찌꺼기가 우리 보존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귀 공장에서 배출시설을 완벽하게 하여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영산호를 살리자!”는 운동에 동참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후 풍진화학측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84년 6월 하순경 매스컴을 통해 “배출시설을 철저히 하면 수지가 맞지 않으므로 공장을 폐쇄하겠으니 고구마 생산농가는 그렇게 알고 대량 생산을 하지 말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여러 가지 회시된 공문 내용을 보면 이미 막대한 배출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또 그것 때문에 그만 둔다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각 관청에서 보낸 공문의 내용을 과연 믿어야 할 것인지 의문스러웠다. 또 공해야 어떻게 되든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겠다는 기업의 자세는 아직도 공해추방이라는 길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고구마 생산농가나 유역 주민을 생각할 때 단지 폐수 배출시설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기업을 제 멋대로 그만두는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쉽다.

(6) 오염현장 목격시 고발요령 확인

영산호보존회는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의 고발 요령을 계몽함으로써 오염방지운동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여 환경청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 1) 84년 1월 9일과 10일 양 일에 걸쳐 몽탄면 사창리 소재 풍진화학에서 배출된 찌꺼기를 인부 4명을 동원하여 인근에 있는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 그 물과 전분 찌꺼기를 혼합하여 영산호로 흘려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84년 1월 10일 인근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았다.
- 2) 이렇게 영산호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급히 저지시키기 위해 신고하여야 할 곳은 어디며 어떠한 요령으로 신고하는.
- 3) 신고를 하여도 잘 저지가 안 될 때 2차로 신고할 곳은 어디인가.
- 4) 2차 신고를 했어도 잘 안 되었을 때 3차 신고처는 어디인지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의에 대해 환경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1) 수질을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야 할 곳은 오염물질을 관할하고 있는 무안군 사회과가 되겠으며,
- 2) 2차 신고기관은 그 군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전남도 환경 위생과이고,
- 3) 2차 신고에 의한 사무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당 환경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7) 빛 좋은 개살구 “영산호 수질보전대책” 확인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의 오염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만약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된다면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게 될 우려마저 있었다. 그래서 영산호보존회는 영산호의 총 관리담당 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다.

84년 1월 28일자 동아일보 톱기사에 환경청의 조사가 실렸는바, 4대강 중 한강과 낙동강은 1983년을 고비로 맑아지기 시작했다고 하고 영산강과 금강만이 더러워지고 있다는데 금강은 아직 그 중에 서도 맑은 편이기 때문에 오직 영산강만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1) 영산호 수질 오염 방지에 대하여 전라남도로서의 계획과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 2) 영산호보존회가 하고 있는 “영산호를 살리자!” 는 운동에 좋은 가르침과 참고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남도 위생과장 오성환씨의 이름으로 회신이 왔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도에서는 수질 보전 대책에 대하여 귀 보존회의 참여와 설립목적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별첨과 같이 수질보전에 따른 계획과 대책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회의 추진운동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의 회신 공문과 함께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영산호 수질보전 대책”이라는 자료를 보내왔는데 내용을 보니 계획이 아주 잘 되어 있었다.

오염원의 제거, 공해업소 정비, 위생 처리 시설 설치, 주민홍보 등의 기본방침 외에 세부 계획도 세워져 있었는데 단기 대책으로는 배출시설 및 하천 감시활동, 생활하수 간이 정화 시설, 범도민 캠페인, 홍보활동 등으로 되어 있었고 장기대책으로는 분뇨종말처리장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공단 대 공해 업소 단속 및 입지 제한, 오염심화지역 준설, 환경영향 평가 시설 등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보다는 실제상의 활동이 더욱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산호보존회는 다시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냈다.

……현재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84년 3월 31일까지 18개 업소에 대하여는 상시 감시체제 유지를 위한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정도 부착되어 있는지요.
- 2) 하천에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하천별 담당 시·군의 책임자를 지정 관리토록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3) 영산강 수질 보전 번도민 캠페인을 위하여 영산강 수역 시·군 추진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데 그 구성원이 돼 있는지요.
- 4) 107개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폐하수 결정처리를 위해 계도하고 있는지요.
- 5)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해 월1회 이상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지요.
- 6) 영화, 슬라이드 등 시·군 순회강연을 하고 있는지요.
- 7) 사업주 관리에 대한 정기교육(분기 1회)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회시가 없어 다시 질의한 바 며칠 후 전남도 공해계장이 목포에 내려와 “질의 내용이 광범위해서 회답이 어려우며 열심히 하고 있으니 관을 믿어달라”고 하여 상호간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8) 영산강 사업소와 영산호와의 관계

11월 하순경 영산호 지류에 대한 지도를 얻으려고 영산강 사업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제 주정공장은 물러갔지만 100만여에 가까운 광주시민의 생활하수, 분뇨, 공장폐수 등으로 인해 영산호상류인 광주천이 오염되어 큰일났다”고 보존회 회장이 말하니까 한상욱 소장은 손을 좌우로 설래설래 저으면서 “영산강 사업소와 영산호 수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하는 말을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영산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대화가 나오면, 보통 “글세 걱정입니다”할 터인데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데 힘주어 말하기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 주는 뜻에서 83년 11월 9일 다음과 같은 공문을 영산강 사업소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이대로 방치하면 광주시민의 생활하수, 공장폐수, 분뇨 등과 농약, 나주 옥탄올공장, 사창의 전분공장 등으로부터의 공장폐수로 영산호가 오염되어 목포시민의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쓸 수 없어 모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룩한 영산호 하구둑의 뜻이 없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나일강 하류에 독을 막은 ‘아스완 댐’도 얻은것도 많지만 잃은 것이 더 많아 오늘날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 있는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는 우리 영산호 문제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광주천 종말처리장, 나주 옥탄올공장, 사창의 전분공장등 영산호를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을 예상케 하는 것에 대한 귀 영산강 사업소로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회답해 주시면 영산호 보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문을 보낸 지 한달 가까이 되어도 아무런 회답이 없어 84년 1월 8일 재차 회시를 촉구하는 공문을 또 보냈다.

그 후 1월 12일자 영산강 사업소장으로부터 겨우 회답이 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산강지구 농업협동조합 개발사업으로 축조된 영산호의 원활한 수자원 이용을 위하여는 귀 회의 취지에 적극 찬동하나 그 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건설부, 환경청 및 전라남도 등의 유관 기관과 협의 처리 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려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당 사무소에서는 영산호 오염방지에 적극 지원하겠사오니 영산호 보전에 배전의 협조있기 바랍니다.

이 무렵 영산강 사업소 한소장은 본사로 발령이 났는데 떠나는 마당에서 구두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는 말을 뒤늦게 전해 듣고 이런 공무원에게는 각성을 불러일으켜야한다는 뜻에서 1월 18일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영산강 사업소와 영산호 오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영산호가 오염되면 식수는 말할 것도 없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곤란하게 되는데 영산강 상류인 광주천이 4대강 중에서도 가장 오염돼 있어 영산호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광주천 종말처리장 가동이 촉구되어야 하겠다고 영산호 보존회 회장이 말을 전하니까 한소장은 손을 저으면서 그것은 광주시가 할 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정말로 영산강 사업소와 영산호의 오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소장의 생각이 옳은지 그런지 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1월 31일 농업진흥공사 사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관련 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영산호에 유입되는 하천의 오염방지대책은 하천관리청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건설부, 환경청, 전라남도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 시행되어야 하므로 현지 소장의 의견은 시행부서에 대한 표현으로 사려되오며 당공사에서도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서

축조된 영산호의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현지 사업소에 위임하지 않고 본사에서 직접 정기적인 수질오염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결의 보고하므로써 수질 오염 방지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회시로서도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버릇을 고치는 데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고 일단락을 맺었다.

(9) 한국종합화학의 제품과 배출시설

일찍이 호남비료가 나주시가지 중심부에 있어 인근농토에 많은 비소오염을 가져다 주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했는데 그 후 한국종합화학으로 바뀌었으나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화학공장이니만큼 공해가 심할 것이며 이로 인해 영산호 수질오염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하는 얘기가 나돌기에 우리 보존회에서는 84년 1월 9일 다음과 같은 질의를 금성시장에게 보냈다.

금성시에 있는 한국종합화학에서 나오는 폐수가 영산호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영산호 보존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대다수가 믿고 있는데 아래의 질의에 회시하여 주시면 “영산호를 살리자!”는 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 ① 한국종합화학에서 나오는 제품의 상품명과 화학품명은 무엇인지요?
- ② 한국종합화학의 폐수처리 시설은 완전무결한가? 혹시 보완시설은 필요하지 않은지요?
수고스럽지만 회시하여 주시면 영산호 보존운동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1월 16일 금성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① 한국종합화학에서 나오는 제품명은 “옥탄올” “노말부탄올” “이소부탄올” “소석회” “가성소다” “식염” “아인산소다” “삼인산소다” “탄산가리” “붕사” “탄사노다” “셀포탄” “이판” 이다.
- ②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전남도 환경 1437~651(83. 7. 19)호의 검정결과 통보에 의하면 적합판정 되었기에 폐수시설에 이상이 없다 함.

이상과 같은 회시가 왔으나 화학계통의 전문가에게 문의해도 이러한 제품에 대하여는 알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결국 관의 검사도 믿을 수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공장폐수일부에 고기라도 길러서 국민학생이 보더라도 고기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는 식물지표와 같은 훌륭한 방법이 아쉽다.

(10) 럭키 나주 “옥탄올” 공장과 “하이타이퐁퐁”

84년 4월 10일 ‘럭키, 호남 본격적 진출’이라는 제하 경향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난 2월 인수한 “럭키나주옥탄올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공장을 증설한다고 했으며 5월 4일자 광주일보에는 ‘럭키금성, 나주옥탄올 공장 삼단계로 공장증설’이라는 보도가 났는데 공장내의 공한지, 사택 등 2만여평을 정비하여 ‘하이타이퐁퐁’ 세척공장을 건립, 88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전부터 화학공장이니만치 여러 가지 공해가 배출될 것이 예상됐으나 종전에 생산되던 옥탄올, 부탄올, 드라이아이스, 카본 등은 일반 시민이 이해할 수 없어 투쟁을 전개하더라도 시민에게 설득력이 없을것 같아서 주시하고 있던 차 ‘하이타이 퐁퐁’을 생산한다고 보도가 되었기에 이는 주부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독한 것이라는 것이기에 포문을 열게 된것이다.

그리하여 일차로 84년 5월 31일 환경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다.

지난 5월 4일 광주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금성시 송월동에 있는 한국종합화학을 럭키그룹이 인수하여 삼단계로 대규모 시설을 갖추어 드라이아이스, 옥탄올, 하이타이, 퐁퐁 등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뜻있는 많은 우리 목포시민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내용과 같은 시설을 갖출 경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우리 목포시민의 식수원인 영산호 상류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우리시민의 설득을 무마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 대규모 공장으로 확장하여도 기존 배출시설로 산업폐기물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둘째 : 대규모 공장 확장에 따르는 새로운 배출시설 설치계획은?

셋째 : 일반 주민은 수질오염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이나 판단 또는 감시가 어려우므로 지역주민들도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는 좋은방법(예 : 생물지표 등)을 환경청에서는 착상하고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환경청장으로부터 84년 6월 9일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 ① 배출시설을 변경(대규모 공장확장)하고자 하는 경우는 환경보전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하며 1일 폐수배출량 50m³이상인 경우에는 동 업소의 허가(변경허가 포함)와 관련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관하여 환경보전법 제 15조의 3 동 시행령 제 1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환경기술 감시단의 기술검토를 거쳐 적정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보전법 제 49조 3의 규정의 의거 적법하게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있음.

- ② 한국종합화학(금성시 소재)의 변경허가에 따른 관련자료는 현재(84. 6. 8) 당청에 접수된 바 없음.
- ③ 하천의 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영산강(금성)의 경우 정기적(월1회)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공단지역 및 오염물질 대량 배출업소(한국종합화학 포함)에 대한 감시는 환경청 중앙지도 점건반으로 하여금 직접 지도 감독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후 6월 27일 전남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를 하였다.

5월 4일자 광주일보에 금성시에 있는 “럭키 나주옥탄올공장” 이 앞으로 증설되어 공해가 심한 “하이타이 풍풍” 등 여러 가지를 대량 생산하게 된다는 기사가 나온 후 뜻있는 목포시민들은 차츰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설득하고자 하오니 다음 몇가지를 회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① 금성시 “하이타이 풍풍” 공장의 허가권자는 누구인지요?
- ② 화학공장 특히 “하이타이 풍풍” 은 공해산업이 아닌지요?
- ③ 88고속도로가 풀리면 영남에 있는 공해산업이 밀어 닥칠 것을 우려하는 시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요?
- ④ 공해배출 시설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누구나 감시할 수 있는 상시 감시장치의 계획은 있는 지요?

그러나 한달이 경과해도 회시가 없어 7월 27일 촉구하는 질의를 또 내었다. 이에 앞서 6월 28일에는 ‘금성시에 럭키그룹에서 주정보다 지독한 “하이타이 풍풍”공장을 세우려 한다. 우리의 먹는물을 오염하는 그 어떤 것도 미리 막자!’

이상과 같은 전단을 10,000매를 살포하였다.

그 후 8월 2일 전남공해계장이 본 보전회를 찾아와 앞으로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간 후 8월 6일 전남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시가 왔다.

럭키 나주옥탄올 하이타이공장 공해공장 설치 및 영남에 있는 공해산업이 밀어닥칠것을 우려하여 질의함에 있어서는 어느 업소로부터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아직 없으며 영산강 수질보전대책추진에 있어서는 귀하께서 평소 염려하는 바와 같이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당분간 공해계장과 약속한 바도 있어 그런데로 잠시 물러서서 관망하기로 하였다.

4. 영산호 문제의 현주소와 투쟁과정에서의 교훈

(1) 영산호 문제의 현주소

83년 이후의 줄기찬 투쟁에도 불구하고 영산호는 아직도 해결 되어야 할 수 많은 문제를 안은채 병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먼저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영산호의 물은 흐르는 물이 아닌 고여 있는 물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영산호의 바닥은 모래나 자갈이 아니라 거리가 뻘이다. 비가 아주 많이 내리면 수문을 통해 흘러보낼까 평상시는 수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영산호보존회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 당국에 영산강 상류에 위치한 장성호, 담양호, 나주호, 광주호 등에서 하천 일일유지수량을 지키기 위해 적정량을 물을 방류하고 있는지에 관해 질의도 해보았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답신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둑 밑에 있는 하천이 메말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도 규정하고 있는 일일하천유지수량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는 영산호의 자정능력 강화와 오염방지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다.

둘째, 영산호 유역에서 흘러들어오는 각종 폐수는 아직도 이렇게 할 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영산호에 유입되고 있다. 이 폐수는 크게 나누어 주민들이 쓰고 버리는 생활 폐수, 공업단지 등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그리고 농지에서 흘러드는 각종 화학비료와 농약 등 세 가지이다.

영산보존회에서는 생활폐수와 관련해서는 합성세제의 독성에 대한 홍보와 아울러 합성세제 적게쓰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이 직접 흘러드는 것에 대해서는 영산호 주변에 녹지대과 독을 설치함으로써 직접 유입을 막는 방식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활동이나 제안은 관의 무성의와 무책임한 태도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장폐수에 대해서는 물고기가 왕창 죽었다든지 하는 상황이 외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

셋째, 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시급하다. 89년에 기동예정인 광주천 종말처리장의 가동을 더욱 더 앞당기는 문제와 더불어 최소한 나주시 밑에 종말처리장을 가설하는 문제를 본회에서는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조사연구하겠다는 답답한 회신 이루어 아무런 조치도 없는 실정이다.

넷째, 광범위한 반공해단체의 결성이다. 현재는 피해의 직접 당사자이자 최대의 피해자인 목포시민을 중심으로 한 영산호보존회가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영산호의 문제는 결코 목포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주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도 더 늦기 전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해단체가 생겨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산호 보존회측에서는 건의문도 보내고 접촉도 갖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다섯째, 정부기관이 공해문제에 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동안 영산호 문제에 관련된 것만 보더라도 관은 끊임없이 문제를 회피 내지는 은폐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영산호수질보전대책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지만 실제 활동은 거의 없다. 환경청에서는 영산호 23개 지점에서 물을 채취하여 25개 항목에 걸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존회측에서는 과학적인 대책을 세울 터이니 검사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하나마나 이다.

특히 영산호에만 관계된 기관으로도 농업진흥공사 영산강 사업소, 영산강 조합, 영산강 관광개발사무소 등 세 개나 있다. 그러나 이 기관들도 땅만들어 땅 팔아 먹고 물 팔아먹고 위락시설 만드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지 이 모든 사항이 깨끗한 물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에도 수질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목포시에서도 영산호 물을 식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3백7억 상당의 시설을 계획하여 추진했으나 그 중에서 수질보전에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관의 무관심과 무성의와 무책임의 전형적인 표상이 아닐 수 없다.

여섯째, 영산호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선의 운용이 필요하다. 영산호보존회에서는 농업진흥공사가 전라남도에 감시선 운용을 건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 뚝뚝 떠다니는 쓰레기 수거, 신속한 적발 및 세밀한 수질검사 등 감시선의 용도는 많다. 수천억을 들여 완공한 영산호를 지키는 데 1천만원 정도의 감시선 운용을 주저하는 이 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2) 교훈

짧지 않은 기간 영산호 보존을 위한 싸움을 해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느끼는 바도 많았다. 여기에 그 중에서 주요한 몇 가지가 정리한다.

첫째는 조직의 문제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그 성격상 장기간 지속되고 또 광범위한 주민운동의 뒷받침없이 불가능한 반공해운동에서는 상설기구로서의 주민조직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설조직은 끊임없이 정비·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되는 이러한 조직은 철저히 상향식의 민주적방식과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영산호보존회의 경우는 회원모집과 아울러 회원수에 비례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를 구성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한가지 특이할만한 것으로는 개별적 회원등록방식은 사무도 복잡하고 또 방대한 숫자가 참여하면 관리뿐만 아니라 유사시 동원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단체등록방식을 병행했다. 영산호보존회에서는 현재 단체회원으로 의사회, 약사회 등의 의약단체와 국제봉사 클럽이었다.

둘째, 반공해운동의 경우에는 유사시 주민의 뜻을 모아 격렬히 항의하여 공해를 추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쉬임없이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산호 보존회에서는 주민들의 뇌리에서 공해를 추방해야 한다는 의식이 떠나가지 않도록 다양한 계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에 옮겼다. 주부교실·반상회 등을 통한 계몽, 반공해사진전 개최, 공해관련 연극 ‘나의 살던 고향은’ (연우무대 공연) 초청공연, 학술강연회, 계몽유인물 살포 등의 활동을 쉬지 않고 계속했다.

특히 반공해운동의 중요한 자원인 학생층을 겨냥하여 학교 선생님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담임선생님이 수업을 시작 할때 공해에 관한 짤막한 한 말씀을 던지는 것만큼 효과적일 것도 없을 것이다. 주로 공해문제와 관련한 생물, 화학 선생님들과만 이야기가 오갔으나 점차 확대되어갔다. 또한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공해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당선 작품을 모아 책으로 간행하기도 하였다.

셋째, 사건이 생겼을 때 질의, 건의, 항의하는 방식으로 관계기관을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것이 좋다. 공해 등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성의, 무책임, 책임회피 내지는 책임 전가 등으로 일관해온 기관을 상대로 함에 있어서는 정식 공문을 발송하여 확실한 근거를 남기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을 녹을 받고 공해 사범을 척결하고 감시해야할 그들의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건의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사건이 신문, 잡지 등에 보도되면 우선 관계당국에 그 사실여부, 조사방법, 처리방법 결과 등에 대하여 질의를 한다, 당국이 미적거리거나 만청을 부릴 때는 분명히 공해의 주범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경우가 많다. 이 때는 재차 독촉도 하고 회신 내용 가운데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추궁한다. 이렇게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건설적인 대안이 있으면 건의하기도 하고 부당 할때에는 항의 문서를 보내는 것도 효과적인 운동방법이다. 그간 영산호보존회는 오염시키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고발하는 요령에 대한 질의, 전남도의 거창한 계획이 어느 정도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럭키나주옥탄을공장에서 하이타이 풍풍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대수개발 기름탱크가 터져 영산호 상류가 오염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나주호에 중장비가 들어가 골재를 채취하면서 폐유로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항의 등을 함으로써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넷째, 싸움이 벌어지면 적극적인 방법을 모조리 동원해야 한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유인물 살포, 리본달기, 프랭카드걸기, 가두서명운동, 가두방송 등이 있고 그 다음 차원으로는 결의문 채택하여 요로에 보내기, 국외에 청원서 보내기, 요인면담 등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한판 승부인 궤기 대회 내지는 시위방식이 있다.

진로 주정 공장 추방싸움 당시에 이 이러한 방법이 모두 동원되었다. 관계기관에서는 협박조로 법 테두리 내에서 전개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지만 영산호보존회측에서는 법이 잘 못되었으면 법개정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으로 밀어부침으로써 승리를 얻어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기도 했다.

5. 국민 모두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언

❖ 수도공사 설립을 촉구한다

이 문제는 서한태위원장께서 고심 끝에 성안하여 국회에 청원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했던 사항으로서 여기에 그 안의 전문을 실는다.

물이 흔하다고 생각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물도 자원화하여 수자원(水資源)이라는 용어까지도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물의 관리가 절실히 되고 있는 것이다.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수도공사화를 촉구한다.



첫째, 물은 한정되어 있다. 지난 60년간 강우량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1,172mm의 비가 내리고, 그 중 약 22%정도가 이용되는 수량(水量)이라고 한다. 물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분류·분배 해야한다고 한다.

둘째, 물은 외국에서 사들여 오지 못한다. 물은 외국에서 사들인다면 채산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한다.

셋째,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쓰는 것도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한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은 한정되어 있고, 외국에서 잡다 먹을 수도 없고, 오염된 물을 정수해서 쓸 수도 없으니 물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넷째, 먹는 물만은 특히 맑아야 한다. 물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업용수는 중수(中水)로도 가능하다. 일본의 「물과 경제학」이라는 자료집에 의하면 공업용수는 70%가 냉각수이고 29%가 세척수이기 때문에 그다지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도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여섯째, 공업용수량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과거에 공업용수는 식수에 비하여 비교도 안될 만큼 소량이었으나 2, 3년 전부터는 공업용수가 식수량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2,000년대에 공업용수에 문제가 생길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업용수는 동일 종류의 생산품을 생산해내는데 외국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공장의 배출시설·규제가 총량규제가 아니고 농도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많은 물로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으려고 많은 물로 희석시키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이러한 점으로 본다면 노력여하에 따라 공업용수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일곱째 농업용수도 중수로 충분하리라 믿는다 영산호와 같이 광활한 호수물을 상수원(上水源)으로 한다고 해서 주변의 많은 시와 군을 상수보호지구로 묶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장성호나 나주호를 상수원으로 한다면 상수보호지구로 묶어보았자 별로 지장이 없지 않은가?

여덟째, 한정된 물을 규모있게 쓰기 위해서는 상수, 중수로 분류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아홉째, 물은 어느곳에서나 국민 누구라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빛이나 공기와 같이 생존에 불가피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열 번째, 생활필수품인 물값은 싸야 한다. 현재 목포의 물값은 서울에 비하여 6.4배나 되는데 물값이 이렇게 비쌀 수가 있단 말인가?

공공요금에 곱절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고, 일반 물가도 지방에 따라 곱절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생(生)의 필수품인 물값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더구나 앞으로 40~50%의 하수도 사용료가 가산된다면 목포시민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가장 불편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럴 수는 없다.

열한번째, 현대과학으로는 합성세제나 화학비료, 농약. 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 처리가 잘 안되는데 좋은 물을 나두고 이런 물을 식수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일찍이 우리나라 하천의 상류 좋은 곳을 막고 거기에 담긴 물을 쓰고 있는데 맑은 물로 농사짓고 보다 못한 물을 직접 마시게 한다면 이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해 가는것이 역사발전일 것이다.

열두번째, 수질 보전을 위해 하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류의 주민들에게 계속 오염시키지 말라고 싸움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상과 같은 내용의 현실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통합급수방법」인 수도공사를 만들어 수자원을 상수, 중수로 분류하여 맑은 물은 식수로 쓰고 중수는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쓰는 것이 위생적이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줄 믿는다.

가정에서 물이 귀할 때 깨끗한 물로 쌀을 씻고, 그 쌀 씻은 물로 걸레를 빨며, 걸레를 빨고 남은 물은 마당에 뿌리면 규모있게 살림 잘하는 훌륭한 주부라고 칭찬받는 것처럼 나라살림에서 정부도 수자원관리를 잘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찢겨진 삼학도에 날개를 |

1. 찢겨진 삼학도

많은 택시 기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한결같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유달산보다 삼학도를 더 많이 찾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의 삼학도는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지고 훼손되어 있어서 삼학도로 가자는 손님을 싣고 삼학도 입구에 내려 주자마자 뺑소니 치 듯이 달아난다는 것이다.

1950년대까지만 하여도 삼학도는 세 개의 섬이 물 위에 동실 떠있는 듯이 아름다웠으며 봄, 가을철에 씨름판과 그네대회 등이 열릴 때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서 열을 내기도 하였으며 여름에는 아쉬운 대로 해수욕장 구실도 하였고 부두에서 삼학도까지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어서 도선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은 옷을 벗어 머리에 이고 발해엄을 쳐서 건너기도 하였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 노래 때문에 유명해졌겠지만 어찌하였던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의 상징이며 낭만어린 삼학도가 훼손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연육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였다.

1962년에는 고위층의 압력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은 가나 어찌하였던 삼학도에 폭탄과 같은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꼴사납게 들어서 있는 기름 탱크는 강수성 시장 재임 때 2년만 임시 빌려 쓰는 조건으로 석유회사와 상부의 압력으로 세워 지게 되어 오늘날 까지 옮긴다, 옮긴다하면서도 지금도 버젓이 서있다. 압력을 받고 허락한 강수성 시장에게는 다소 연민의 동정은 가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은 져야 할 것이다.

1971년에는 군 출신인 김동석 시장이 창녀촌을 삼학도 중턱에 옮겼으며, 1983년 이병내 시장 재임 때에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절대로 삼학도에 조선소가 들어서서는 아니 된다고 남양조선소 설치를 적극 반대하여 허가하지 않았으나 범택균 시장이 조선소 설치를 허가하여 버렸다. 당시 나상수씨가 이병내 시장이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기에 본인은 그곳에 조선소를 세우지 말고 딴 곳에 세우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무슨 힘이 있는가, 시에서 나가라면 언제든지 나가겠네.” 라고 말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게만 살아온 목포 시민들은 아무 곳이나 공장만 들어서면 잘 살 것으로 믿었지만 삼학도에 모시다시피 하여 유치한 호남제분 공장이나 시내에 다른 장소도 많이 있었는데도 하필 삼학도에 들어선 관공서 향만청, 조달청 그리고 나아가서는 새까만 먼지가 휘날리는 석탄 하역장은 그야말로 삼학도를 진창으로 만들어버렸다.

한 치의 앞도 내다 볼 줄 모르는 무책임하고 이권에 눈이 먼 사람들에 의해서 이처럼 꼴불견이 된 것이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도리어 활개치고 영전만 잘하니 오늘에 와서도 다시금 삼학도의 훼손문제가 거론되는 것이다.

일설에 의하면 일제 말기에 조선의 문화 말살정책으로 1937년 삼학도를 측량한 다음 삼학도를 없애버릴 계획으로 부두계획을 세웠었는데 해방된 오늘날 일본 놈이 하는 일은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삼학도 부두가 세워졌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아무튼 역사의 심판 없이 지난 일을 덮어 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삼학도 훼손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2. 곡물 싸이로

큰 개발은 마땅히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84년 5월경 중 삼학도에 호남제분에서 곡물 싸이로를 세우려할 때 회사의 부지만으로는 세울 수 없자 상 공회의소와 개발위원회를 움직이고 심지어는 국제봉사클럽의 사무 여직원을 꼬여 단체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도둑놈 제사 모시듯”이 조용히 일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의 건의문 내용에는 “중삼학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녹지를 풀어 산업기지화 해야 한다”는 대목이 들어있었다.

이 건의문은 목포시를 통해 건설부까지 올라가는 것이었는데 목포시에 서류가 계류 중에 있을 때야 어렵풋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히 국제봉사클럽협의체를 소집하여 ‘삼학도를 살리자’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삼학도를 녹지 휴식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녹지를 풀어 산업기지화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내용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들어갔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의 90%가 삼학도를 녹지 휴식공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어느 주부가 보낸 설문지 뒷면에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니 소신껏 싸워주세요”라는 짤막한 글까지 있어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였었다.

삼학도의 곡물 싸이로 문제로 시민의 관심이 한참 고조될 무렵 상공회의소와 개발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전체 시민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개발위원과 상공인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려고 했다. 공청회 주최 측은 “서선생 혼자만 반대하지 모든 시민은 찬성 한다”는 말들을 퍼뜨리고 다녔었다. 그런데 공청회당일 삼학도에 곡물싸이로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할 사람을 찾았더니 찾기가 무척 힘들었다. 이대로 나 혼자 나가면 영락없이 서선생 혼자구나 할 것 같아 몹시 애가 탔다. 설문지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90%가 설치반대를 하면서도 공청회 토론장에 가서 반대의 뜻을 펴자니 함께 대변해 줄 사람이 나서지를 않고 이처럼 민중을 대변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고 ; 공청일자 : 84년 6월 13일. 공청회 발언자 : 서한태, 유영석, 배광언, 김옥현, 이장용, 문영식, 장양구, 이상윤, 한봉규, 최향춘, 김천옥 등 11명)

겨우 예총지부장 문영식씨와 약사회장 장양구씨와 나 이렇게 세 사람이 공청회 반대자로 나갔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우리 세 사람들이 발언하고 나니 반대측은 끝이 나버렸으나 찬성측은 7~8명 계속 발언자가 줄을 이어 마치 공청회의 분위기는 모두 다 찬성편인 것처럼 보였다. 돈 많은 부자들이 말도 잘 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촌놈 식으로 끝장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종전에 썼던 설문지를 참석자들에게 뿌려주면서 다시 발언을 얻어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설문지에 자기 이름을 명백히 기입하고 찬성, 반대를 분명히 하여 주십시오. 지난날 찬성해 놓고도 훗날 반대쪽으로 상황이 바뀌어지면 나는 안했다고 발뺌하는 사람이 많은데 적어도 우리 지역사회의 주역은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찬성, 반대자의 명단을 시내 곳곳에 벽보를 붙여 시민의 심판을 받고 먼 훗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십시오.”하고 열변을 토했더니 당시 사회를 맡고 있던 최향춘 영감께서 두 손을 옆으로 저으면서 “이 문제는 모든 것을 백지화 한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상으로 삼학도에 곡물 싸이로가 들어서는 것을 저지한 셈이다.

3. 시멘트 싸이로

86년 5월 중순이었다. 쌍용에서 삼학도 중심부에 시멘트 싸이로(4,000t) 2개와 시멘트 포대를 만드는 부대시설 설치계획을 착착 진척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시멘트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장으로부터 들었다. 소식을 전해 주신 분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성실성으로 보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소식이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영산호보존회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 소식내용을 알리고 삼학도에 시멘트 싸이로 설치계획이 있는지의 사실 여부를 목포시와 향만청에 질의하기로 결의 하였다.

즉시 영산호보존회의 명의 질의하였던 바, 5월 22일 향만청으로부터는 시멘트싸이로 계획이 있다고 화답이 왔고 시로부터는 아는 바 없다는 회답이 왔다. 목포시도 충분히 알고 있었겠지만 관공서는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는 으레 연막을 피우는 것이 상례인 것 같았다.

그 후 5월 28일에 향만청으로부터 사람을 통해 영산호보존회 측과 한 번 만났으면 한다고 해서 영산호보존회와 향만청 그리고 하역 협회가 간담회를 갖게 되었다. 영산호보존회 측에서는 당시 회장이던 유재열씨와 부회장 김창용씨 그리고 연구위원 자격으로 서한태 등 3명이 참석하고 하역협회 대표 임종환, 향만청장 외 향만청 직원 2명이 참석하였다.

그런데 향만청장의 브리핑에서 깜짝 놀란 것은 목포시장실에 비치된 삼학도 모형도는 푸른 공원이 근사하게 그려져 있었는데 이곳 향만청에 비치된 삼학도 모형도는 주변이 대부분 재색의 부두시설로 메워져 있고 녹색의 공원은 볼품없이 중심부에 초라하게 그려져 있었다. 이것을 보는 순간 불쾌한 분노가 치밀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 같은 생각만 들었다. 어떻게 하여 똑같은 장소인 삼학도가 시에서는 공원 위주로 그려져 있고 향만청은 부두시설 위주로 그려져 있는 식으로 이원화 될 수 있단 말인가?

향만청장의 설명으로는 시멘트 싸이로가 삼학도에 들어서면 목포항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공해도 없다는 것이었고 영산호보존회 측에서는 공해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목포에 떨어지는 이익은 적으면서도 삼학도 공원화 계획에 큰 차질을 줄 것이라고 맞섰다. 나는 이 때 마음속으로 '나쁜 놈들 기업은 별소리를 하여도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는 법이다. 삼학도야말로 접안 시설이 잘되어 있겠다. 철로가 있고 자동차 길이 있으니 대기업에게는 얼마나 탐스런 곳이나? 대기업의 허위의식을 꿰뚫어보아야 한다' 하고 다짐했다. 작별인사 때 향만청장은 잘 보아달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림도 없는 소리' 라고 다짐하면서 헤어졌다.

그런데 영산호보존회가 주정공장 추방운동 당시 향운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았었기 때문에 향운노조원이 우리 영산호보존회의 요직에 있는 상황에서 싸움을 풀어가는데 분위기가 좀 미묘했다. 삼학도에 싸이로가 생기면 노조원의 어깨로 짐을 푸지 않고 기계로 하역을 하게 되고 눈물 값으로 연간 6내지 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쌍용에서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향운노조에서는 은근히 싸이로가 생기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나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 되어서 반대하는 동의를 힘주어 하였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두리번거리며 향운노조의 눈치를 살피느라 재청이 없었기 때문에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열변을 토로한 후에 가까스로 일단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아 항만청과 목포시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이 무렵 시중 분위기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장들이 뒷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지 들쭉 모양으로 한결같이 찬성을 하고 있었고 민정당 또한 지구당위원장이 찬성하기 때문인지 간부들은 전적으로 찬성 편이었으며 매스컴 또한 평소 항만청장과의 교분 탓인지 찬성 편이었고 정보기관 또한 모두가 찬성 쪽이었다. 대단히 서운한 것은 명색이 기관장이라 하면 지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 소신을 밝혀야 될 터인데 무조건 뒷사람의 눈치를 따른 것이 불만이었다.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볼만한 싸움이었으나 이 무렵 목포의 분위기는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드센 향운노조를 꺾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나는 ‘이제까지 싸움에 저분 적이 없었는데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다. 유일한 나의 힘이 되는 영산호보존회마저 양분이 되어 있었고 지배적인 여론이 찬성하는 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는 싸움일지라도 먼 훗날 역사의 심판을 받자!’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계속하였다.

운동의 가장 초보적인 방법으로 최소한 5,000매 이상의 유인물을 살포해야 하는데 개인의 이름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힘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꼭 영산호보존회의 이름이 필요하였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 난감하였다. 그래서 어렵사리 반대하는 쪽이 잠잠할 때 날치기식으로 결의를 얻어 5,000매의 유인물을 만들어 주로 초, 중, 고, 대학 등의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의사회, 약사회, YMCA, YWCA 등에 살포하였다.

유인물은 차츰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여 교사들의 계모임 등에서부터 화제가 되기 시작하여 삼학도의 시멘트 싸이로 설치반대운동이 움트기 시작하였다.

6월 26일 오후 3시에는 목포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시멘트 싸이로 설치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제일 먼저 박육종 해운항만청장의 ‘시멘트 싸이로는 공해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설명이 장장 한 시간 정도에 걸쳐 계속 되었다.

첫 질문에 나선 본인은 첫째, 둘째를 들먹여 가면서 돈을 높여 생각나는 대로 외쳤다.

첫째, 삼학도는 목포의 상징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살려야 한다.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다도해 유람선의 부두가 되어야 한다.

둘째,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분들은 ‘경치가 밥먹여 주느냐?’ 하는데 왜 하필 삼학도에만 세우려 하느냐? 오늘날 도심지에 30%의 녹지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인데 런던이나 베를린은 멩청해서 공원을 만들고 도심지에 수목을 채웠겠느냐?

셋째, 어차피 훼손된 삼학도이기 때문에 공장지대나 했으면 하는데 일제시대 같으면 어차피 식민지이니 독립운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민중이 깨우치면 역사는 깨우친 방향으로 가는데 시민이 공원을 원한다면 우리 대에 아니 생기더라도 자식 대에는 생기고 만다.

넷째, 일찍이 2천여 년 전에 논어에서는 ‘눈앞의 사소한 이득 때문에 큰 뜻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항운노조의 경우 7천만원이 클튼지는 모르나 개인적으로는 연간 2, 3만 원 정도 분배되는데 훗날 자식들이 삼학도 훼손의 책임이 너희 아버지들 때문이라고 욕먹어서는 되겠는가?

다섯째,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 지난날 삼학도를 훼손한 사람들이 더 영전하고 활개치고 거드름만 피우는데 이들에게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없었기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별소리를 하여도 기업은 이윤추구에만 환장하고 있다. 접안시설이 잘 되어 있고 철도가 있고 자동차 길이 있어서 이익속이 많으니까 손 안대고 코풀려는 것이다.

일곱째, 보존과 개발이 맞서 싸우다가 숫자노름으로 과반수가 넘는 쪽으로 결정지어서는 안된다. 서투른 개발은 아니 하는 것만 못하고 후세 사람들의 훌륭한 머리로 결정짓도록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짓는 것이 오늘날의 세계적인 추세이다. 여덟째, 한번 싸이로가 들어서면 야금야금 공장지대로 바뀌어질 염려가 많고 공장에 대한 감시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다.

석유난로도 설명서를 보면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난다고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설명서대로이나 사용해 가면서 보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싸이로에서도 시멘트 가루가 휘날리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공해가 없다는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다, 만일 항만청장이 자신 있게 말 하시려면 훗날 공원지대에 시멘트 가루가 있으면 굵어모아서 마시겠다는 각오 없이 헛소리 말라!(이때 너무하다는 말들이 있었음)

아홉째, 항만청과 시청이 삼학도를 가지고 따로따로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현행 제도상 어찌할 수 없다고 하나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시민을 위한 다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지 않겠는가?

열 번째, 주변 환경이 좋아야 한다. 공원 옆에 꼴사납게 석탄 부두, 기름 탱크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2천 3백여 년 전의 ‘맹모삼천지교’도 모르는가? 런던의 중심지에 있는 ‘하이드’ 공원은 20만 평이나 되는데 고층빌딩이 시계를 가린다고 국회에서 말썽까지 있었다 등의 십여 가지를 쉬지도 않고 열변을 토하였다.

두 번째의 질의자로 나선 김암기 예총지부장은 나포리 등의 예를 들면서 다도해의 아름다운 천연자원을 관광지로 하기 위하여 삼학도는 당연히 공원으로 가꾸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세 번째의 질의자로 나선 차남수 선생님은 일본 북해도의 하꼬다테를 예로 들면서 삼학도는 꼭 공원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 한 분 박형상 수협조합장만이 공해가 없다고 하니 목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싸이로 설치를 찬성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주섭 시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민공청회를 열 것을 약속하고 시정자문회의를 끝마쳤다.

그러나 공청회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영영 열리지 못하고 말았다.

이 무렵 간간히 사람을 통하여 ‘삼학도 공원을 만드는데 금전적으로 협조하면 어떻겠는가? 하역하는 기계설비를 더 훌륭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샷손식, 콘베아식 등으로 시설을 보완하면 어떻겠는가? 싸이로는 어찌는 수 없이 삼학도에 두어도 시멘트 지대 만드는 시설은 공장지대로 분리하여 시설하면 어떻겠는가?’ 등의 교섭과 타협이 들어와 나는 한없이 기뻐다. ‘싸움이 있었기에 이러한 식의 교섭이라도 들어오는 소득이 있지 않겠는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더운 8월 달에 들어서는 예총모임에 초대를 받아 삼학도에 시멘트 싸이로가 들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이성을 잃을 정도의 흥분된 어조로 열변을 토하였다. 예총회관을 나오면서 체신머리없게 나잇살이나 먹은 주제에 흥분되어 이야기하고 나온 것이 한없이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후일 생각해보니 이것이 삼학도 시멘트싸이로 반대운동의 전환점이 될줄이야! 예총에서 나의 호소를 듣고 있던 공생원 윤기원장은 다음 날 찾아와서 좋은 구상도 알려주었으면 예총에서는 ‘이것은 우리 예총에서 할 일 이다’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예총을 중심으로 기독교인과 합하여 삼학도보전회를 탄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영산호보존회가 주로 의약인과 국제봉사클럽의 회원들의 주축으로 구성되어있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여 삼학도보전회를 탄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창립대회는 9월 9일 오후 3시 목포 YMCA에서 가졌다. 회장에는 차우균, 부회장에는 김암기, 김천영, 오용갑, 임태유, 윤기로 선임하고 상임간사에는 박종길, 감사에는 이재윤, 최일환을 선임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진을 10여명 정도로 구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계속 회원 확장에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 사실이 시중에 알려지자 아직 조직도 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긴장된 곳은 목포시와 향만청이었다. 향만청장은 “이제 삼학도 부두계획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커다란 상전이 생겨 났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 하고 목포시 또한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늘었다”고 솔직히 이야기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들 하였다.

삼학도보전회가 탄생되었지만 구체적인 과제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예산도 없어서 우선은 돈이 적게 드는 운동으로 계몽용 유인물을 살포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우선 시민들에게 계몽용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유인물에 담아 살포하였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삼학도를 살리자는 내용의 글과 첫째, 더 이상 삼학도 훼손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둘째, 삼학도 내의 기존 공원화의 장애 요인들은 점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관계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삼학도 공원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시민의 참여 없는 삼학도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다섯째, 확정된 삼학도 공원화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정식 포고문을 열게 되었다.

1차 유인물이 나간 다음 계속하여 2차 유인물 “삼학도를 아름답게”와 3차유인물 “찢겨진 삼학도에 날개를...”, 4차유인물 ‘삼학도보전회에서는 목포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은 공장지대로 유치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곳은 보전할 것을 주장 한다’는 내용 그리고 5차 유인물로 『삼학도 이대로 좋은가?』를 내가 직접 제작하여 내 손으로 살포하였다.

6월 달에 시정자문회의가 끝난 다음 안주섭 목포시장은 멀지 않아 시민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었으나 삼학도 보전회가 생긴 후로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10월달이 지나도록 뚜렷하게 공청회개최를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없어 지나갔다.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시청 간부들 중에서 공청회는 없을 것이라는 등 또 이 일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중의 말이 나왔다고도 하고 최향춘 영감은 다방가에서 ‘이론적으로 삼학도보전회를 이길 수 없으니 공청회를 열어보았자...’ 하고 답답한 표정을 짓더라는 이야기 등도 들었다.

이 무렵 10월 달에 들어서 매년 열리는 예총행사의 하나로 학생 토론대회가 있는데 10월 9일 오후 2시 예술인 사랑방에서 목포문협 주최로 ‘삼학도 이대로 좋은가?’ 라는 제목으로 찬성·반대를 갈라 고교생 토론의 광장을 개최한다 하여 삼학도보전회로서는 시민공청회를 열지 않아 버르던 참에 여기서 장을 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삼학도 시멘트 싸이로 설치반대 측 발언자 학생들이 나에게 왔기에 모든 자료와 유인물들을 주면 학생들의 질문에 소상히 설명하여 주었다. 또한 설치 찬성 측 학생들에게는 최향춘영감, 박형상 수협조합장, 향만청장 등의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찾아가서 만나보라고 일러주었다.

또한 삼학도 보전회의 이름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이 공청회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하도록 유도한 후 많은 기대를 걸고 당일 오후 2시 공설시장 2층 예술인 사랑방에 가보았더니 김이센 듯한 묘한 분위기였다. 내용인 즉 전남, 예총, 문협 간부들이 안전기획부의 압력을 받고 몹시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토론대회를 무산 시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연락이 잘못된 몇몇 학생들이 들락들락하다 못 열리고 말았는데 나는 핫김에 악을 한번 쳤다. 무엇이 문제가 되기에 안기부에서 이러한 행사도 못 치르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결과적으로 한 번 판을 벌려 볼 심정이었는데 싱겁게 끝난 셈이다.

그 후 11월에 들어서 쌍용시멘트 본사로부터 면담을 요청받고 시내 다방에서 단둘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 쪽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나의 이야기만 강하게 하였다. 내용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무엇이든 못하겠는가? 오늘날 대기업의 실력은 대단하더라. 지난 번 진로주정 사장만 하여도 전남지사를 우습게 알던데 진로보다 더 큰 쌍용은 어렵하겠는가? 그러나 만만하게 보지마라. 유달산 바위덩어리의 정기를 타고 짠물 먹고 자란 깡다구가 있다. 삼학도보전회다 무어다 하지만 별 것이 없고 앞으로 이대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종교인과 학생들을 동원하여서라도 기어코 이 문제는 끝장을 내고 말리라. 당장에는 우리가 질는지 모르나 길게 보면 그 쪽도 편할 날이 없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을 확신 한다” 고 말하고 헤어졌다.

이 면담은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12월초에 목포 MBC방송을 통하여 쌍용시멘트 싸이로는 삼학도에 세우지 않고 물 건너 영암군 삼호면으로 간다는 뉴스 보도가 나오자 우리 삼학도 보전회 회원들은 만세를 불렀다.

| 유달산을 아름답게 |

1. 유달산과 케이블카

유달산은 영산강, 삼학도와 더불어 목포의 상징이다. 목포 현지에 사는 현지인뿐만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있는 목포인들에게도 이 셋은 정신적인 안식처이자 지주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달산에 쏟은 목포인들의 정성 또한 지극했고 그 정성으로 황폐해가던 유달산도 녹음을 갖춘 산으로 가꾸어져 왔다. ‘한점의 수석’ 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유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달산보전회가 새삼스럽게 생겨나고 유달산을 보호해야 겠다는 목소리가 드높혀졌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유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부터였다.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 유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문제도 처음에는 아주 미묘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고 누구라도 이 문제로 좀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더라면 뒷날의 후회나 자탄에도 아랑곳없이 영리를 추구하는 한 기업인의 의도대로 추진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한 발 앞서 나가 유달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경우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를 꼼꼼이 따져 본 사람은 당시 영산호보존회 회장으로 힘겨운 진로주정공장 추방투쟁을 성공리에 마치고 환경보전운동에 전력하던 서한태 박사였다. 서박사께서는 이렇게 회고했다.

일자는 정확치 않으나 85년말 경으로 생각된다, 신안비치호텔을 설계한 삼일건축 서천식 사장이 나에게로 찾아와서 “아제, 호텔에서 유달산 마당바위 근처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하고 질문하기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한 바가 없기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자연보존에 관하여 관심이 있고 평소 내가 존경하는 분들을 만날 적마다 유달산 케이블카설치에 문의 하였다. 백기완 선생에게도 물었고,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최열 연구실장에게도 문의하였으며 서울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 서진옥 회장, 김지하 시인에게도 물었다. 그 분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안된다’ 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왜 설치를 반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후로 유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는 들먹거리지지 않은 채 잠잠하더니 1987년 3월이 되자 시중에 풍문이 돌기 시작했다. 당시는 아직 유달산 보존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박사는 일단 삼학도보전회의 명의로 설치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그리하여 87년4월3일에는 ‘한라산에 절대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기사를 오려서 삼학도보전회의 이름을 집어넣고 복사해서 돌렸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별도로 첨부한 바와 같은 설문지를 시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당시까지 혼자서 나름대로 정리한 설치반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2.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하는 왜 안되는가?

❖ 금번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절차상으로 틀려있다.

도시개발은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거나 공청회등을 통해서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결정을 짓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고, 또 개발과 보전의 의견이 맞았을 때에는 서투른 개발은 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하여 보전하는 쪽으로 결정짓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러한 점에서도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 미관상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산 능선에 아무리 좋게 단장하였다 하더라도 50여 평이 넘는 콘크리트 괴물이 설치된다면 산이 아름다울 수 없고 가는 선의 케이블이라 할지라도 빨래줄처럼 꼴 사나울 것이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하나의 큰 ‘수석산’에 과짜같은 것이 오르고 내리면 미관상으로도 좋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승강장이 개인소유이고 보면 부분적으로 흉칙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다. (시 소유 같으면 말할 수 있지만).

❖ 산이 훼손되는 것은 분명하다.

바위를 뚫어 기둥을 세우고 경사진 곳에 50여평의 건물이 버틸려면, 또 케이블카 선을 치게되면 많은 훼손이 뒤따른다는 것은 분명하며, 5분 간격으로 많은 인파를 한 곳에 우글거리게 하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설계상으로는 화장실이 없으나 케이블카를 타면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사람이 많아 화장실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나서는 필요에 따라 조금씩 넓혀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땅굴을 판다 하더라도 간섭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빌려주기가 불행이지 한번 남의 손에 넘어가면 많은 시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산이 훼손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 **유달산에 케이블카는 필요치 않다.**

십여 분이면 올라가서 바다와 유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산을 훼손시켜가며 케이블카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유달산보다 몇 배 더 크고 유명한 북한산, 지리산, 한라산 등에도 주민들이 반대하여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 꼭대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 설치를 아니 하였을까? 남산 케이블카를 들먹이나 요즘 같으면 깨우친 시민의 반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돈이 많이 떨어진다는데 과연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랑 말인가?

❖ **도덕적 · 철학적 개념으로도 안 될 일이다.**

땀 흘려 산에 오름으로써 정복의 희열을 느끼고 배우는 점이 많을 것이다. 편하게 오르는 것은 향락이요 향락은 국민의식구조에 많은 문제를 주게 된다. 맹목적인 개발이나 향락, 이윤보다는 쾌적한 환경 속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이 값진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 **결론적으로 케이블카 설치하는 후세대들의 판단에 맡겨라!**

20여 년 전에는 공해라는 낱말이 사전에도 없었다. 70년대부터 산업화에 눈이 멀어 앞날을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서둘러 결정된 모든 일들이 어리석었다는 후회를 되풀이 하지 말고 우리세대보다 더욱 깨우친 후세대의 판단에 맡기자!

3. 유달산 보전에 관한 투쟁일지

이후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문제에 관해서는 시내의 일부 유지들마저도 신한 출신인 신한 비치호텔 사장과의 친분 탓인지 찬성의 뜻을 다방가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유달산 보전회의 결성 이후 활기찬 투쟁으로 결국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상황은 다음의 일지로 대신한다.

- 투쟁 일지 -

❖ 87. 4. 12.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내용이 실린 동아일보 「횡설수설」을 복사하여 살포

❖ 6. 5.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영산호보존회, 삼학도보전회 공동명의로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 한다' 는 유인물 살포

❖ 7. 1.

유달산보전회 창립과 결의문 채택.

회장: 차남윤, 부회장: 박춘덕 · 강성복

연구위원: 차우균 · 서한태 · 유재열 · 김창용 · 이창식

❖ 7. 4.

삼학도보전회 명의로 전라남도 지사와 목포시장에게 케이블카 설치허가가 났다는 사실과 주민들의 여론 수렴 여부에 관한 질의서 발송

❖ 7. 13.

7월 4일자로 전라남도와 목포시에 질의한 데 대한 회답이 없어 재차 질의

❖ 7. 19.

광주일보에 유달산보전회 창립결의문을 2단 광고기사로 게재

❖ 7. 20.

아침 7시 유달산 충무공동상 앞에서 유달산보전회 월례회 개최. 이 월례회에서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목포시장에게 건의문을 올림.

• 건의문 내용

첫째, 유달산의 특징을 살리고 수종을 개발하는 등 인공적인 것보다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방향으로 해달라.

둘째, 목포문화방송국이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게 되면 목포시가 그 건물을 매입하여 노적봉을 복원하라.

셋째, 냄새도 나고 녹슨 동물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어떻게겠는가?

넷째, 3·1운동탑 아래 터의 베드민턴 코트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더 심을 곳인데 특수층을 위한 운동장이 웬말이나? 철거하라.

다섯째, 유달산 주변의 고층 건물 높이를 제한하여 유달산을 가리게 하여서는 안된다.

여섯째, 유달산의 수종에 대하여는 전문가인 목포대 조경학과 같은 곳에서 자문을 받아라.

일곱째,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

여덟째, 유달산의 중요한 개발문제는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라.

❖ 7. 24.

목포시로부터 케이블카 설치 건에 관하여 ‘삭도법상 면허는 이미 교부도 있었으나 설치허가 신청이 아직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애매모호한 내용의 회신이 옴. 여섯 가지 내용의 반대 의견을 실은 유인물 살포.

❖ 7. 24.

목포시로부터 ‘케이블카 건은 목포시 도시계획시설 조정계획에 포함 확정된 사업으로 확정 전에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목포시에서 공고한 바 있었고 또한 도에서도 케이블카 면허에 앞서 목포시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87년 4월 7일자로 면허한 바 있다’는 내용의 어처구니없는 회시가 옴.

❖ 7. 30.

케이블카에 대한 공고를 했다는 거짓 회신에 대해 목포시와 도에 재차 질의.

❖ 8. 1.

‘유달산을 아름답게!’ 라는 내용의 유인물 살포.

❖ 8. 20.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준비한 신안비치호텔 주변의 땅에 ‘신안 민속박물관을 설치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라는 내용의 유인물 살포.

- ❖ 8. 22.
7월 20일자 8개 항목의 건의에 대한 회신이 없어 2개 항을 추가하여 재차 질의.
- ❖ 9. 3.
서울신문에 ‘유달산에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 요구’ 라는 기사 실림.
- ❖ 9. 23.
한국일보에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찬·반론’ 이라는 기사 실림.
- ❖ 9. 24.
중앙일보에 ‘유달산 케이블카 말썽’ 이라는 기사 실림.
- ❖ 10. 4.
경향신문에 6단 기사로 ‘유달산 케이블카 허가 말썽’ 이라는 기사 실림.
- ❖ 10. 15.
동아일보에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 요구’ 라는 기사 실림.
- ❖ 11. 9.
‘유달산 케이블카 설치 백지화를 보고’ 라는 제목의 유인물 살포.

|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편

목포 녹색운동 단체협의회는 87년 11월 24일에 창립되었다 이미 반공해운동단체로 ‘영산 호보존회’, ‘삼학도보존회’ 등이 있었으나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각 단체들은 커다란 싸움이 한 번 지나고 나면 활동이 위축되거나 미온적으로 전락하는 등의 폐단이 있었고 활동 또한 영산호, 삼학도, 유달산 등에 국한되거나 상호 긴밀한 관련을 맺고 전반적인 반공해운동을 펼쳐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와 더불어 이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운동이 이 땅을 오염시키려는 수많은 공격요소들을 막아내는 것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까지 끌어올려져야 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첫째는 커다란 운동이 끝난 다음 조직 활동이 침체되는 것을 막고, 둘째로는 각 단체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통해 지역 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심을 가지며, 셋째로는 공해 없는 사회의 건설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다 크고, 보다 광범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를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원래 반공해운동이란 넓은 의미의 녹색운동이며, 우리 모든 이의 터전인 자연훼손을 막는 생명운동이다. 따라서 광범위한 주민운동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 운동은 반전·반핵을 통한 평화운동까지를 포괄하는 운동이다. 이 모든 사항은 앞으로 녹색운동단체협의회 운동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각 단체들의 윤번제로 월례회의를 주관하고 유인물 살포와 계몽운동 등에서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는 이 단체는 무공해식품 소개 및 장려, 식생활 개선에 대한 계몽,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보이지 않는 요소들의 적발 등 초보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 운동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연구 작업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연구회는 환경보전 단체와의 유기적인 관련 아래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이 목포녹색연구회와 목포녹색 운동단체협의회의 상세한 활동사항은 활동일지와 자료를 대신한다.

- 활동 일 지 -

❖ 87. 24.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창립

❖ 12. 5.

나주 왕곡면 행전리에 사는 김태근씨가 광록회와 계약재배한 ‘무공해 무우’ 소개 및 판매.

- ❖ 12.
‘최루탄은 이제 그만’이라는 유인물 배포.
- ❖ 88. 1.
기관지 ‘녹색 운동’ 창간
- ❖ 3. 9.
MBC. T.V의 공해 관련 드라마 ‘침묵의 도시’ 시청 권유 유인물 배포.
- ❖ 5. 20.
보사부장관, 노수산부장관,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식생활개선 및 식품공해에 관한 질의.
- ❖ 6. 1.
보건사회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 질의에 대한 회신이 옴.
- ❖ 6. 5.
제 16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답게 건강하게 삽시다.’라는 유인물 배포.
- ❖ 6.
‘목포의 상수도료를 서울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 ❖ 6. 10.
전라남도 지사에게 대불공단에 대한 석유화학, 펄프,
제지 등의 공해업체 입주에 관한 질의.
- ❖ 6. 14.
농수산부장관에게 5. 20일자 질의의 제 2항에 대한 재 질의와 제초제에 관한 질의.
- ❖ 6. 21.
환경청장에게 공해업체 공해순위에 대한 질의.
- ❖ 7. 7.
한산촌에서 생산한 ‘무농약 무’ 소개하는 유인물 배포.
‘목포녹색연구회’ 개소식.
- ❖ 8. 8.
‘목포녹색연구회’ 창립총회를 목포 YMCA 강당에서 가짐.
- ❖ 8. 13.
상수도 지방공사 설치의 모순에 관한 질의.



(1998년~2007년)



목포환경운동사

* 다음은 1988년 이후 부터 2007년 까지 활동을
분야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강 살리기	79
습지 · 해양보전	85
핵 · 골프장 · 난개발 · 숲	96
환경현안	103
환경 교육	117
회원 · 연대 사업	129
소모임 · 재정사업	137

| 강 살리기 |

❖ 강 살리기

영산강은 유역면적이 3,455km²로 광주와 전남 땅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주변의 인구는 18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 그야말로 영산강은 광주·전남의 생명줄이었으며, 미래발전의 원동력으로 시·도민의 큰 관심 대상이다.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목포 지역의 환경운동은 영산강과 물 문제 해결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영산호 보존회, 물문제해결을위한목포시민회의 등의 활동을 계승하여 97년 창립 이후 활동을 분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꾸준한 탐사와 현장 조사
2. 질의·성명·토론회 그리고 다양한 활동
3. 불법 모래채취 감시와 고발

1984년부터 93년까지 주로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전남일보에 나와 있는 환경에 관한 기사를 분석해 보았더니 대체로 강에 관한 기사가 32%, 핵에 관한 기사가 28%, 대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부족해서 대기와 유해물질까지 합한 기사가 14%, 마구잡이 개발에 관한 기사가 9%, 먹을 거리 9%, 쓰레기 5%, 바다 살리기 3% 등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환경 운동에서도 강 살리기가 가장 중요한 운동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우리 지역에서 영산강은 호남평야를 적시는 생명줄인데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동안 영산강은 한강이나 낙동강에 비해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훨씬 떨어진 채 소외돼 왔다.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영산강에도 적지 않은 투자가 있었는데, 종말 처리장 시설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수없이 많은 조사, 탐사, 세미나, 토론회 등에 소비됐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조사, 탐사, 토론회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토록 많이 실시했어도 영산강의 수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도 약간의 예산이 생기면 조사, 탐사, 세미나 등에 쓰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강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다고 한다.

운동이 있는 곳에 반드시 대책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합리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1급수에서만 살 수 있는 은어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현명한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오염원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점오염원은 공장, 폐수처리장, 발전소, 폐광 등과 같이 특정 위치에서 하수관이나 도랑을 통하여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배출되는 오염원을 말한다. 점오염은 감시만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장주가 감시를 의식하면서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투자만 하면 된다. 요즘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력하면 거의 해결이 되며 점오염원의 하수관에 실명제를 실시하고 끈질긴 감시로 막을 수 있다.

둘째, 둔치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점오염원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넓은 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장소를 말한다. 경작지, 산림벌채지역, 도시지역, 공장지대, 주차장, 도로 등의 지역을 지나온 빗물의 지표 유출수, 또는 땅으로 스며드는 물이 포함된 오염물질이 비점오염원에 의한 사례이다.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은 비가 올 때나 눈이 녹아 흐를 때 발생하게 된다.

비점오염원의 대책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립은 못했으나, 강변에 일정폭의 나무를 심거나 배수로를 만들어 잘 관리하고 인공습지 등을 만드는 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비점오염 가운데 둔치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영산강의 경우 둔치가 610만평으로 그 95%가 농경지이다. 농경지에는 화학비료와 독한 농약을 많이 뿌리는데 비만 오면 고스란히 강으로 들어가 오염을 일으킨다. 이것도 철저한 감시를 통해 경작만 못하게 하면 2~3년만 지나도 갈대가 우거져 어느 정도의 해결은 된다. 둔치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지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분류보다도 지류에서 오염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그 지역에 있는 지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지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기초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마을 앞 도랑이나 셋강 등을 기초자치단체가 철저히 관리하면 되는 일이다.

넷째, 쓰레기를 철저히 수거해야 한다.

육지에 있는 쓰레기의 80%가 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강변에 있는 쓰레기부터 철저히 수거해야 한다. 환경단체의 캠페인으로는 해결 할 수 없으며 충분한 예산을 세워 기초자치단체가 나서면 된다.

예를 들어 50리터 마대포대에 쓰레기를 담아오면 5천원을 준다든지 하면 수거해 가져올 사람이 많을 것이며, 따라서 1억원만 투자하면 2만개를 수거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산에서 가지치기 한 다음 나무들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강으로 흘러드는데, 이것 까지 자치단체가 철저히 수거하여 땀감으로 이용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다섯째, 수중에 있는 퇴적물, 특히 폐어망을 수거해야 한다.

강물속에 있는 퇴적물은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환경정화 선박이나 바지선, 장비 등을 갖추어 꾸준히 노력하면 해결이 된다.

여섯째, 하구둑을 부분적으로 틀 것인가, 말 것인가 연구해야 한다.

흐르는 물은 맑아도 고이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충분히 검토해서 자동 개폐식을 독을 트는 문제도 많은 연구를 해야한다.

이상 여섯가지 외에도 영산강 상류에 있는 장성호, 담양호, 나주호, 광주호 등의 하천 1일 유지수량을 지키는 일이나, 현재까지도 영산강 관리의 주체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 만 철저히 지킨다면 영산강은 반드시 살아날 것임을 확신한다.



강 살리기는 유역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만 가능한 것이다. 앞으로도 시간이 될 때 마다 강의 본류 뿐만 아니라 지방 2급 하천 등 지천과 마을 앞 도랑을 찾아야 하며, 그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만날 것이다.

1997년

- 9월 29일 목포교도소 주변 남창천 오염 현장답사 및 질의

• 1998년

- 7월 24일 영산강 환경탐사



• 1999년

- 6월 8일~7월 13일 무안군 영산강 골재채취 반대 연이어 시위 및 성명발표

• 2000년

- 3월 22일 영산강변 쓰레기 매립장 추진 관련 물의 날 기자회견 및 나주시 부시장 면담 (이태근씨와 면담 시장이 나오지 않고 부시장이 입장불변 표명을 해서 현장시위)
- 5월 26일 영산강 환경캠페인 초당대 환경기술연구소 공동주최-몽탄 영산강변일대
- 11월 5일 영산호, 금호호, 고천암호 현장방문 및 주민간담회

• 2001년

- 9월 20일 영산강, 주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성명서(광주, 전남지역환경단체)와 영산강환경관리청 국감현장 방문
- 10월 8일 영산강 철새탐조(이정식 자문위원외 1)
- 11월 12일 영산강 폐그물철거에 대한 간담회
- 11월 14일 영산강 폐그물 철거운동(어민, 지역주민, 환경연합 등 200여명)
- 12월 18일 영산강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광주환경연합 공동)

• 2002년

- 1월 10일 목포교도소 폐수 무단 방류 현장조사
- 1월 14일 영산강 특별법 촉구 집회(광주)
- 1월 25일 무안군 구정리 사용종료된 매립장 침출수 유출되어 영산강 본류에 흘러드는 것을 현장조사
- 2월 7일 영산강, 주암호 특별법 관련 간담회(광주)
- 6월 25일 영산강내 모래채취 고발장접수(광주지검)
- 9월 3일 영산강 골재채취 현장조사

- 9월 29일 EBS 방송 신안, 영산강내 폐그물 현황 취재
- 11월 8~10 밝음이 환경사진전 - “강은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 11월 18일 광주지점 목포지청 영산강 골재채취 관련 진정서 접수
- 12월 9일 해남군 영암호 골재채취 관련 목포KBS 라디오 인터뷰

• 2003년

- 2월 11일 영산강 골재채취 토론회 관련 의견수렴 좌담회(사무실)
- 22월 13일 영산강 골재채취 관련 토론회(영산강환경관리청)
- 6월 16일 영산강 탐사 및 촬영
- 8월 9일 영산강 탐사 및 조사(영상모임 밝음이)
- 9월 24일~ 3회에 걸친 영산강 섬진강 네트워크 준비 모임(목포, 순천 장흥 등)
- 10월~12월 영산강 탐사 및 6회 조사활동 영산호 청호리, 구정, 몽탄)
- 12월 18~19 무안군 영산강 모래채취업체 합동지도단속



• 2004년

- 1월 2일 영산강 모래채취 조사
- 2월 13일 영산강 촬영(일로 망월리 오전 7시)
- 2월 15일 영산강 조사활동 및 사진촬영(함평 동강대교-몽탄대교 오전 10시)
- 3월 28일 세계 물의날 기념 영산강 탐사(유달경기장 오전 9시)
- 7월 9일 섬진강 지키기 네트워크 워크숍 (전남 곡성군 청소년 야영장 오후 2시~10일)
- 8월 6일 영산강 모래채취 진정서 목포지검 접수
- 9월 19일 영산강 생태환경탐사(나불도 한남호 유람선 선착장 오전 9시)
- 10월 4일 영산강 모래채취 사진촬영
- 10월 17일 광주·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 탐사
- 11월 5일 영산강 보전활동 관련 대학과 환경단체 간담회(도의회 소회의실 오전 11시)
- 11월 7일 영산강 및 습지탐사(영산강 조정경기연습장~나주사포나루 오전 9시 30분)
- 11월 8일 영산강환경청 토론회(광주 오후 2시)
- 11월 14일 영산강 탐사(영산호 ~ 사포나루 오전 10시)
- 12월 1,3일 영산강 불법골재채취 조사-함평군 대행업체 불법채취와 성명서 발표
- 12월 10일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창립식 참여(나주)
- 12월 28~29 영암천 둔치 불법경작 KBC, MBC 합동조사

• 2005년

- 4월 13일 영산강 하구관련 SBS 물은 생명이다 팀 취재 보도
- 6월 2일 함평군의 함평항 개발, 영산강 준설 및 골재채취 관련 함평부군수 면담
(오후 4시 30분, 함평군청 부군수실)
- 6월 3일 영산강 둔치 내 불법경작 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회의
(오후 3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 9월 8일 전라남도 영산강 준설사업 계획 중단촉구 성명서 발표 및
KBS 라디오 인터뷰 등 언론사 취재
- 11월 17일 영산강(함평군) 상습 불법골재채취 관련 성명발표
- 12월 26일 광주·목포환경연합 공동주최 영산강 자생력확보 토론회
(15:00, 전남도청 영상회의실)

• 2006년

- 2월 8일 함평군 영산강 불법골재채취 검찰 조사(14:00, 목포지검)
- 3월 13일 함평군 영산강 불법 골재채취 현장 시위(13:00, 나주시 동강면 동강대교 부근)
-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관련 논평“영산강 살리기의 실효성 있는 접근을 촉구한다.
- 3월 28일 강살리기네트워크 2006년 3차 운영위원회 회의(14:00, 대전 KTX 회의실)
- 4월 21일 영산강 물환경개선 T/F팀 1차 회의(15:00, 영산강유역환경청)
- 4월 26일 영산강 불법경작 관련 공동보도문 발표(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 5월 25일 영산강 경작지 및 쓰레기 현장조사(13:00, 영암군)
- 6월 1일 영산강 쓰레기 실태 조사(16:00, 영암군 일대)
- 6월 25일 바다의 날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신개념의 영산호를 생각 한다”
(14:00~16:30, 해양유물전시관)
- 7월 3일 영산강 하구 지역포럼 1차 : 하구의 관리전략 및 비전 공유(14:00, 전남도청)
- 7월 24~28 제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담양, 광주, 나주, 무안·영암, 하구둑 일원)
- 8월 28일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평가 및 영산강 탐사 자료집 및 CD 제작(14:00, 푸른나주21협의회)
- 10월 11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칭) 구성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11:00, 나주시청)
- 10월 3회에 걸친 영산강 둔치 쓰레기 조사(11:00,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 도청 부근)
- 11월 10일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발족식
- 11월 13~14 영산강 삼각망 수거 활동
- 12월 13일 영산강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집담회(15:00, 광주환경운동연합 4층회의실)
- 12월 21일 영산강 하구보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논의(13: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습지 · 해양보전 |

❖ 습지 · 해양보전 활동

목포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환경운동 분야 중에서도 습지해양분야는 1997년 창립과 동시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채택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7년 바다의 날을 맞아 개최된 갯벌세미나 『전남지역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는 본격적인 습지해양 운동의 시작이었다. 영산호(1982년)에 이어 영암호(1993년)와 금호호(1996년)가 간척



된 직후 신안 지역 김양식장이 쇠퇴되고, 어종의 변화가 급감해 목포앞바다에 갈치가 잡히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했다. 목포지역 저지대 침수도 이때 다시 심각하게 부각될 정도로 해수면 상승이 두드러졌다. 세미나에서는 전남 갯벌의 가치가 새롭게 제기되었고, 갯벌의 경제성이 간척 후 육지가 되는 것에 비해 3.3배가 높다는 보고가 제기되어 전남 서남권 갯벌보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밖에도 세미나에서 조경만 교수(목포대)가 갯벌이 가진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후 함평만 ‘개발이나 보전이나’ 토론회(97.10.24)를 거쳐 1998년에는 본격적인 영산강 4단계 사업 백지화 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1998년 6월20일은 영산강 4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청회가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환경연합은 무안지역 주민들과 공동으로 ‘영산강 4단계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는 한편, 공청회에서 간척이 가져오는 경제성에 대해 발표하는 중앙대 교수와 찬성측 전문가들을 제지하면서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이후 김성훈 농림부장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해 결국 7월12일 ‘영산강 4단계 사업백지화’ 발표를 이끌어내게 된다. 환경연합은 “영산강 4단계 사업 백지화를 환영한다”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결단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모든 대단위 간척사업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1998년 습지보전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전남지역의 연안과 갯벌일대에서 총 5차례 20일간 ‘도요, 물떼새’ 조사를 진행하고, 서울대 고철환 교수의 특강을 마련하면서 체계적으로 습지생태계를 이해하는 인식증진 프로그램과 과학적인 습지보전운동을 전개하게 이른다.

1999년은 습지운동의 국제적인 연대가 강화된 해이다. 제7차 람사(Ramsar)회의가 코스타리카에서 열렸고, 한국NGO 대표단에 목포환경연합 김경환 사무국장이 참가, 지역내 람사협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습지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JAWAN)와 공동으로 서남권 갯벌을 직접 답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전남서남권 갯벌보전 한일공동 심포지움(서남방송공개홀)”을 진행했으며 이 같은 한일공동조사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2000년에는 갯벌생태계에 대해 본격적인 대중인식증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목포에서 유일하게 갯벌을 관찰할 수 있는 갯바위 일대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주말철새학교’를 개최해 중고등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도요새를 비롯한 물새를 관찰하고,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밖에도 갯벌환경캠프와 철새, 갯벌교육이 97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해양수산부가 신안군 갯벌조사에 목포환경연합을 지역참가단체로 지정해 전문가와 공동조사를 진행한 것도 큰 성과가 되었다. 2회에 걸친 갯벌생태지도 제작을 위한 신안군 갯벌조사는 이후 신안지역 갯벌보전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바다쓰레기 분야도 새롭게 이슈로 제기되어 2000년부터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영산강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바다쓰레기의 80% 이상이 육지에서 하천을 통해 유입되므로 영산강 폐기물 모니터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이 모든 자료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정책자료로 활용되었다. 이후에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도 진행했으며, 시민인식증진을 위해 목포역 광장에서 바다쓰레기를 전시해 바다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2001년 3월 신안군 비금도와 우이도 해안사구 조사를 통해 모래의 생태계 이동방식과 사구가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이자 양질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침 서해안 일대에서 발생하는 해안유실과 모래유실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바다모래 지키기 특별위원회’가 발족되고, 유근배 교수(서울대)를 초청해 해안사구의 중요성과 바다모래채취가 가져오는 피해, 그리고 모래유실의 매카니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다.

마침 신안군이 증도면에 ‘갯벌방문객센터’를 짓는다면서 우전해수욕장의 배후 사구지대에 대규모의 개발행위를 추진하고 있었다. 환경연합은 즉각 사구의 중요성과 개발로 인해 사구와 해안유실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해 결국 현재의 위치로 옮겨 해안사구를 보전할 수 있게 됐다.

목포상수원으로 계획되어 건설중인 탐진댐에 인공섬이 만들어지자 수자원공사와 장흥군이 이곳에 위락시설단지를 계획했고, 이는 서남권 9개 시군의 주민들을 자극했다. 환경연합은 2002.3.22 즉각 ‘탐진댐 인공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24일 탐진댐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장흥 유치주민들과 일부 갈등도 발생했지만 결국 인공섬 개발계획은 백지화됐다.

신안군과 바다모래 불법채취 현장을 단속하고 감시한 사례도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목포해경의 단속과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모래채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지만, 환경단체가 결합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강화하면서 몇건의 불법사례를 고발하고, 언론도 적극 협조함으로써 결국 2002.10.21 신안군이 바다모래채취 허가를 전면 불허하고 모든 허가도 종료 후 마감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른다. 바다모래지키기 대책위는 이를 환영하면서 신안군을 넘어 모래채취 금지가 전 해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갯벌이 가장 많은 전남 서남권 지역에서 지역간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영광, 함평, 무안, 신안, 해남, 진도의 습지보전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나누고, 보전전략을 수립하는 모임체인 “서남권 습지보전네트워크”를 꾸리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습지네트워크는 몇 차례의 모임을 통해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맡았을 뿐 곧 활동은 중지되었다. 한편 무안습지보호지역 주민들은 2001년 지정 이후 여전히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과 과도한 단속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때 환경연합을 비롯한 습지보전네트워크가 주민들과 잦은 모임을 통해 습지보전법과 보호지역 지정의 의미를 깨닫고, 규제가 아닌 발전의 개념을 이해해 지금은 적극적인 보전세력으로 역할하고 있다. 2002년 창립5주년을 맞아서는 습지보호지역주민이 참여해 김수일(한국교원대) 교수팀과 칠산도 노랑부리백로 가락지 부착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도 했다.

창립이후 습지 · 해양보전활동을 일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1997년

- 5. 28 제2회 바다의날 기념 갯벌세미나 『전남지역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을 광주 전남환경연합 등과 공동주최
- 5.31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 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성명 발표
- 7.29-30 어린이 여름 환경캠프 ‘갯벌탐사’ 에 목포, 신안 초등학생 80여명 참가 (신안군 압해면 일대)
- 10.24 함평만 ‘개발이나 보전이나’ 토론회 개최.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

• 1998년

- 3.17 환경연합 산하 해양오염감시센타 개소식
- 4.16 해남지역 철새탐조
- 4.17-20 닐 무어스와의 봄철 1차 도요, 물떼새 조사
- 5.2 ‘갯벌의 소중함과 철새이야기’ 슬라이드 상영
- 5.2-5 닐 무어스와의 봄철 2차 도요, 물떼새조사
- 5.18-20 닐 무어스와의 봄철 3차 도요, 물떼새 조사
- 6.11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수질조사
- 6.20 영산강 4단계 사업 백지화 요구 시위
- 7.11-12 탐진강 민물고기 생태기행
- 7.13 영산강 4단계 사업 백지화를 환영한다 - 성명서 발표
- 8.11-12 어린이 청소년 갯벌탐사(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 8.23 탐진강 민물고기 생태기행(목포공공도서관 어머니, 어린이)
- 8.28-9.1 닐 무어스와의 가을철 1차 도요, 물떼새 조사(함평, 무안, 신안, 해남)
- 9.12 갯벌탐사 - 신안군 압해면, 과학영재교실 60명 참석
- 9.24-27 닐 무어스와의 가을철 2차 도요, 물떼새 조사
- 12.16 전남갯벌의 중요성에 대한 고철환 서울대 교수 강연회

• 1999년

- 1. 6 닐 무어스 초청 갯벌슬라이드 강연회 개최
 (목포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식)
- 2.2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사 및 강연회(신안군청)
- 3.9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영산호 카누경기장)
- 3.15-20 전남서남권 갯벌 실태자료조사
- 5.5-25 제7차 람사회의 참가
 (김경완 사무국장, 코스타리카)
- 6.14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월출산 경포대 계곡 수질조사
- 7.28 갯벌과 철새이야기 강연(목포공공도서관)
- 7.29-30 제3회 어린이 환경캠프 ‘생명의 보고-갯벌탐사’ (신안군 압해도)
- 11.6 삼학도 정화활동
- 11.22-25 일본JAWAN과 공동갯벌조사
 전남서남권 갯벌보전 한일공동 심포지움(서남방송공개홀)



• 2000년

- 2.26 겨울철새를 찾아서 해남간척지 일대 생태기행
 4월중 청소년주말철새학교(목포상고,유달
 중,청호중,목포공고,목여중,문태중)
- 5.18 무안 유당농산 축산폐수 현장방문 조사
- 7.9 무안 압해도 갯벌철새조사
 (박종기,이정식 팀 공동)
- 7.23 민물고기를 찾아서 장흥 탐진강 생태기행
- 7.24-26 어린이 환경캠프(1차) “갯벌에는 무엇이 살까” (신안군 신의면)
- 8. 1 압해도 갯벌생태교육(나주성당 중고등부)
- 8. 5 압해도 갯벌생태교육(광주 두암동 성당 중고등부)
- 8월 월1회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일대 해양폐기물 모니터링(1-5차)
- 11.15 갯벌과 철새기행(목포YWCA청소년 환경교육,해남 산이면 일대)
- 11.17-22 제1차 갯벌생태지도 제작을 위한 신안군 갯벌조사
- 11.22 청소년 주말철새학교(2차)-마리아회고
- 12.2-6 제2차 갯벌생태지도 제작을 위한 신안군 갯벌조사



• 2001년

- 1.7 광주 대학생 탐사단 무안갯벌방문
- 2.2 세계습지의 날 행사 기념 생태기행 (해남 일대)
- 3.1-2 신안 비금, 도초, 우이도 해안사구 조사 (대전KBS,석동일)
- 3.15 바다모래지킴이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강연회, 기자간담회(오전11시 초원호텔)
- 3.22 세계물의 날을 맞아 환경연합 입장 발표
- 4.23-24 신안 우이도 해안사구 현장조사 (MBC 2580팀과 공동)
- 5.9 신안군 모래채취 관련 신안군수 면담
- 5.26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무안군 청호리 일대
- 5.31 해양폐기물 전시회(목포역 광장)
- 6.2 탐진강 민물고기 생태탐사(문태고25명)
- 6.5 세계환경의 날 '새만금 갯벌살리기 1천만인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 6.6 함평만 갯벌현장교육 지도
- 7. 6 NGO학교 새만금일대 방문-광주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 7.20 바다모래채취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간담회
- 7.29-8.1 제5회 어린이 여름갯벌캠프
- 8.27-30 일본습지전문가 · 전국습지연대회의의 공동 목포신안,무안,함평 갯벌조사 국제심포지움
- 9.15 2001 전국바다 대청소 및 해양폐기물 모니터링(무안 청호리)
- 11.21-30 일본큐슈습지방문(양호식 조사위원장, 김경완 사무국장)
- 12. 1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겨울철새 탐조(해남 고천암, 공룡화석지)



• 2002년

- 2. 3 세계습지의 날 기념 새만금 간척지 현장방문(55명참석)
- 3.17 무안습지보호지역 방문(들풀, 조경만 교수 초청)
- 3.22 물의 날 기념 탐진댐 인공섬 반대 성명발표(24일 탐진댐 기행)
- 4.23-27 바다모래 채취 현장 감시 및 조사
- 5. 6 목포KBS와 바다모래 채취의 문제점 인터뷰

- 5.12 목포MBC와 공동 목포지역 폐선현황과 처리대책에 관한 현장조사
- 5.13 신안군 바다모래 불법채취현장 감시활동 전개
- 5.18 바다모래 불법채취 현장 감시 참여
- 5.25 석동일 선생 바다의 날 기념 환경슬라이드 강연회(목포여고)
- 6.26 창립5주년 기념 노랑부리백로 가락지 부착사업 (무안습지보호지역과 영광 칠산도)
- 9.16 신계륜 국회의원 바다모래채취 국정감사 자료 송부
- 10.21 바다모래채취 중단 환영 인터뷰(바다모래지킴이 대책위원장)
- 10.22 외달도 자연생태마을 현장조사
- 12. 3 무인도서 관리방안에 대한 전략회의(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3년

- 1.17 무안군 해제 마실 모래채취 현장조사
- 2.5 습지의 날 기념 서남권습지보전 네트워크 좌담회
- 2.18 무안군 습지보호지역 주민간담회
- 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지역 습지에 관한 간담회
- 3.8 전남서남권 습지보전 네트워크 회의
- 3.22 물의 날 기념 삼향천 살리기 토론회 (푸른목포21 공동)
- 4.4 서남권습지보전네트워크 모임(해남군 마산면사무소 토론회장)
- 4.7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연안관리계획 2차회의
- 4.30-5.3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와 전남 서남권 습지조사 및 교류회
- 5.31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 중단선언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
- 6.4 바다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서남방송)
- 8.3 군산동 수원지 생태계 파괴 조사 및 성명서 발표(16일)
- 8.11-15 해양환경교육 참가
- 8.23 진도 백조도래지 소각, 매립장 조사
- 9.2 북항하수종말처리장 무단방류 조사
- 9.24 영산강 섬진강 네트워크 준비모임 시작



- 10.10 함평만 모래준설사업장 현지조사
- 10.11-12 다도해 섬탐방(비금)
- 11.9 다도해 섬 탐방(임자도)
- 12.11 강진만 습지조사 및 철새탐조
-대추귀고동 서식지 확인
- 12.12 바닷모래 불법채취 모래 시판업체
수사의뢰(해양경찰서)
- 12. 18 모래채취업체 합동 지도단속 참가(무안군)
및 성명서 발표(19일)



• 200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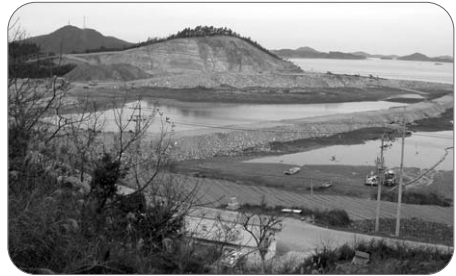
- 1. 9-10 습지연대회의와 영산강, 함평만 조사
- 1.28 삼향천 관련 KBS라디오 인터뷰
- 2.5 세계습지의 날 기념 좌담회(목포문화원)
- 2.11 무안 창포호 송어 떴죽음 시료채취
(목포mbc9시뉴스보도)
- 3.7 삼향천 일대 탐사
- 3.13 입암천, 삼향천 현장 답사 및 촬영
(수질심각, 철새맞음)
- 3.21 다도해 탐방분과 외달도 탐방
- 4. 28 국립공원 공원관리협의회 창립에 참여
- 5.4 무안갯벌 및 해안탐사 - 습지보전위원회 공동
- 5.5 압해도 갯벌 및 해안탐사 - 습지보전위원회 공동
- 5.23 무안반도 갯벌생태탐사
- 6.9 바다의 날 기념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토론회(서남방송)
- 7.11 다도해 섬 탐방(울도)
- 7.29-21 갯벌생태체험캠프 - 신안군 비금도)
- 8.7 외달도 현장조사(조사위원회)
- 8.8 환경사랑 들뜰 무안갯벌 생태체험
- 8.10/8.16 무안군 창포호 현장 조사 및 어촌계
주민면담
- 8.21 목포앞바다 바다쓰레기 조사(조사위원회)
- 8.24 탐진담 보전활동 대책회의(장흥환경연합)



- 9.4 무안 창포호 준설관련 현장 토론회 참가
- 9.7 압해도 도요물떼새 조사(환경연합 생태보전국 공동)
- 10.8/18 목포여중(항도여중)생과 고하도 갯벌체험 진행(350명/300명)
- 11.3 창포호 준설 반대 주민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 무안군수 면담
- 12.3 함평군 불법골재채취 관련 성명서 발표
- 12.15 창포호 무안골프장 저류지 방류조사
- 12.28-29 영암천 고수부지 불법경작 KBC, MBC합동조사

• 2005년

- 2.16 SBS 물은 생명이다 팀 무안골프장 취재협조
- 2.17/18 무안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및 성명서 발표
- 3.12 J 프로젝트 예정지역 현장답사
(해남군 산이면 일대)
- 3.18 함평만 모래채취 반대 성명서 발표
- 3.28 진도 바다모래 소송 관련 진도군 협의
(진도군청)
- 4.19 무안 전남 서부채소농협협동조합 현장조사(폐기물침출수의 해양유출건)
및 고발(20일)
- 5.20 삼향천 지류인 상리천 현장조사 후 성명서 발표
- 5.27 목포해경 관용부두서 삼학도까지 바다쓰레기 수거
- 6.2 함평군의 함평항 개발, 영산강 준설 및 골재채취관련 함평군수 면담
- 7.11 전남해남 조선소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매립 관련 연안관리심의위원회
5명에 의견전달 및 억수마을 방문
- 7.12 해남회원 억수조선소 추진관련 현지주민 및
환경연합 기자회견(13일.라디오인터뷰)
- 7.15 해남 진도간 불가사리 민관해양생태 공동조사
- 7.18 무인도서 종합적 관리 및 법률안 제정관련
환경단체 간담회
- 7.21 서남권 섬에 관한 토론회(서남방송)
- 8.8 어린이 갯벌캠프
- 8.10 섬 관광자원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임자청소년 수련관)



- 8.31 도요물떼새 조사(압해도)
- 9.1-2 목포 앞바다 불가사리 출연에 대한 CBS인터뷰 및 MBC, KBS, 연합뉴스 취재
- 9.21 목포해양수산청 준설토 투기장 관련 면담
- 10.27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견수렴 간담회(전남도청)
- 10.28 삼향천 수질 모니터링(삼향천 일대)
- 11.18 정종득 목포시장 목포환경연합과 삼향천 입암천 살리기 공동노력 모색을 위한 현장방문
- 11.26 광주전남 환경단체 영암호 금호호로 떠나는 철새기행전

• 2006년

- 1.21 바다살리기 대토론회(신안비치호텔)
- 1.20 증도갯벌센터 운영 검토 신안군청 박창훈 투자유치단장 면담
- 2. 8 함평군 영산강 불법골재채취 검찰 조사
- 2.22 영산강 유역권 역사문화지도 제작 세미나
- 3.17 목포해경, 해양쓰레기 제로화 운동(압해도)
- 3.24 향도여자중학교 물의 날 기념 환경강의 (박현 상임의장)
- 3.28 강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위원회의
- 4. 7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나불리 중형조선소 추진계획 전면 폐기 촉구 성명발표
- 4.18 삼향천 하천정비사업 목포시청 하수과 면담
- 4.19 공유수면매립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참가
- 5.4 영산강 섬진강 수질개선 TF팀 회의참가
- 5.28 들풀 소모임 우포습지 방문
- 6.20 흥도 탐방로 및 훼손지 전수조사(흥도1구,2구) 서남해안 환경연구소 설립을 위한 간담회
- 6.28 해양경찰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관련 방문
- 6.29 바다의 날 기념 토론회 “신개념의 영산호를 생각한다”
- 7.3 영산강 하구 지역포럼 1차: 하구의 관리전략 및 비전공유
- 7.8 강살리기 네트워크 조직위원회 목포방문 간담회
- 7.10 호남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체계의 공존을 위한 실천적 연구방안 서남해 갯벌 생태계와 인간의 공생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 준비회의(목포대)



- 7.20 신안 섬 갯벌 올림픽 관련
신안군 관광과장 면담
- 7.24-28 제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8.10 국제심포지엄 해안공동체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역할
(목포대향대 실습선 새누리호)
- 8.21 영산강 탐사 자료집 및 CD제작
- 8.30 환경운동연합 습지해양팀 도요물떼새 조사(압해도)
- 9.4 아무르 불가사리 관련 간담회
- 9.13 영암군 대불대학교 연락수로 앞 논 불법매립 현장조사
- 9.19 삼향천 입암천 공사 문제점에 대한 목포MBC 라디오 인터뷰
- 9.20 삼향천 현장 조사 및 방송 취재 도움
- 10.16 아무르 불가사리 국정감사 출석(해양수산부)
- 10.20 영산강 둔치 쓰레기 조사
- 10.27 영산강 하구 지역포럼 2차 속기록 : 하구보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논의
- 11-13-14 영산강 삼각망 수거 활동
- 11.20 도민철새기행(합해도) 11.24 섬문화 탐방(신안군 증도)
- 11.28 해남화원조선소 건립 공유수면 매립 반대 해양수산청 방문
- 12.12 해남화원조선소 관련 행정소송 법원심의
- 12.13 영산강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집담회(광주환경연합)



| 핵 · 골프장 · 난개발 · 숲 |

❖ 반핵운동

원자력 발전은 찬성론자들의 선전처럼 안전하거나 반영구적이지 않다. 원자력 발전이 시작된 이후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 기껏해야 냉각하여 임시 보관하고 있을 뿐 영구처분장 장소조차 확보하지 못한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전력생산과 핵무기제조용 플루토늄이 동시에 생산되어 평화적 이용은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에서 반핵운동은 1987년 영광주민의 어업보상투쟁에서 출발한다. 이 운동은 방사능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으로 진행되었다. 핵발전소 사고로는 고리원전 앞바다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드러나고, 중수유출 사고, 영광의 무늬아 출생, 다리가 없는 기형가축 출산, 주민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 증가 등등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다.

1989년 2월 영광핵발전소 추방운동연합이 창립된다. 그리고 1989년 11월 전남지역 핵발전소 30기 건설계획 철폐 공동투쟁위원회가 결성됨. (핵발전소 후보지 : 전남 신안, 해남, 장흥, 보성, 여천, 고흥) 신안군환경보존회에서는 압해도 핵발전소 건설 저지 및 1982년 지정된 송공리 일대의 후보지 해제를 목표로 반핵운동을 시작하였다. 압해도의 반핵운동은 12차례의 반대 궤기대회와 20여차례의 가두방송, 그리고 시군의회 주축으로 목포역에서 반대 궤기대회가 열렸다. 투쟁이 길어지면서 1990년 역전광장 궤기대회를 끝으로 반핵깃발달기(3천장)를 통해 반대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이 반핵깃발은 김대중 정부가 1998년 12월 핵발전소 후보지를 해제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집집마다 붉게 매달려 있었다.

1997년 신안군환경보존회가 목포환경운동연합으로 통합출범을 준비하면서 청년모임에서 신안군 압해면 송공리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 답사 및 반핵활동을 1997년 3월부터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하던 반핵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97년 4월 14일에는 대만 핵폐기물 북한반입 저지를 위한 목포지역 해상 캠페인에 참여하였다. 1997년 7월 18일에는 신안군 압해면 송공지역에 대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 해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98년 11월3일에는 해남 핵발전소 반대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반핵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명하였다.

지속적인 지역의 반핵운동은 정부로 하여금 전남지역 핵발전소 건설 후보 예정지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2002년에는 핵폐기장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워졌다. 2002년 4월 10일에는 진도핵폐기장 추진문제에 대해 진도주민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그 다음날 핵폐기물 처리장 관련 주민 간담회에 우리 연합에서 참석하여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핵폐기장 관련 전남지역 대책위 모임을 우리연합 사무실에서 광주전남지역 환경연합 지역조직과 진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다. 2002년 5월 10일에는 핵폐기장 반대호남지역대책위원회에서 천용택 민주당 전남도지구당 위원장 면담을 통해 전남지역에 핵폐기장 설치반대 의견을 전달하였다. 2002년 7월 5일에는 전남지역 핵발전소, 핵폐기장과 관련한 광주지역제단체 간담회가 광주에서 열려 각지역별 투쟁현황을 공유하고, 투쟁을 서로 도와 함께 하기로 하였다. 2002년 7월 30일에는 핵폐기장 관련 군수, 군의원 간담회를 통해 비핵화 선언을 문서화 하였다. 2002년 11월 17일에는 완도지역 핵폐기장반대 대책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2003년 3월 13일에는 핵폐기장유치반대 호남대책위원회 집회를 전북 고창에서 실시하여 우리 연합에서 지원을 다녀왔다. 그리고 3월 19일에는 광주에서 실시하는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11일에는 장흥핵폐기장반대 농성장 지원 방문을 하였다. 전국적으로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서명작업이 2003년 9월 6일 목포 지역에서도 시작되었다. 전북 도지사의 핵폐기장 유치 선언은, 새만금으로 갈라졌던 민심을 핵폐기장 반대 운동으로 다시 합쳐지게 했다. 2003년 9월 20일에 방문한 부안 농성장은 뜨거운 열기가 타오르고 있었다. 2003년 10월 부안은 핵폐기장 반대 농성 때문에 가을 수확기도 놓치고 있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 전국지역 조직들과 함께 농성장 방문과 농촌에서 일손돕기 활동을 하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 반핵운동은 이렇게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집중해서 함께 힘을 모아 투쟁하고 있다. 하지만 반핵운동은 지역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한수원에서는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그런 논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반대논거가 부족하다. 반핵운동은 핵발전소 인근에서 주민들의 암발생, 기형아 출산, 기형가축 출산 등에 대해 확실히 원전으로 인한 문제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끝났다. 앞으로 반핵운동은 일반 시민들과 원전주변 주민들에 대한 교육활동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할 연구소,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 영입이 불가능하다면 활동가들이 전문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서 대응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 골프장 반대운동

전국은 지금도 열심히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골프장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였다.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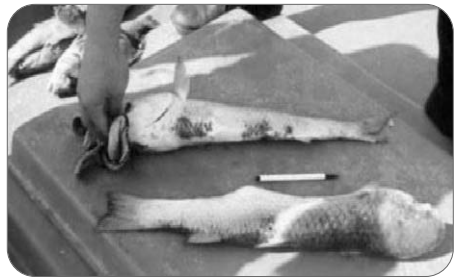
1. 골프장은 생태계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녹색사막이다. 골프장 잔디밭 아래에는 미생물, 지렁이, 설치류(두더지)가 살 수 없도록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의 농약이 매일 새벽에 뿌려진다. 베트남에서 사용된 고엽제의 주성분과 제초제의 주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다.
2. 잔디밭 표토 아래는 60cm 깊이로 물이 잘 빠지는 토양으로 채워져 있어 바로 빠진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농약에 오염된 물은 관로를 통해 다른 곳으로 빠지고 골프장내 연못에는 유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곳에선 잉어나 붕어가 노니는 것이다.
3. 골프장이 인구를 증가시키고, 주변지역이 발전되며, 인구가 증가된다고 한다. 그런데 골프장 주변지역 땅은 야간개장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어 헐값에 거래되고, 골프장 내에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주변의 음식점 매상에 도움되지 않는다. 인구 증가도 직원들이 인근의 도시에서 출퇴근하므로 없다.
4. 900억원(18홀)을 들여서 만든 골프장의 일자리 창출은 지역주민은 잡초뽑는 인부 5-6명이 전부이고, 정규직은 30명밖에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열악한 재정확충에 도움된다고 하지만 18홀 35만평의 골프장에서 1년에 내는 지방세 납부액은 고작 7억원이다. 진주환경연합 김석봉 사무국장은 35만평 농지에 배추를 심을 경우 1포기에 300원일 경우 1평 9포기×300원=2,700원×35만평=9억4천5백만원×2회경작=18억9천만원-경작비용30%=13억3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한다고 한다.
5. 골프장 물사용 부분을 보면 18홀 골프장이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는 1,000톤 가량으로 추산된다. 그래서 골프장에서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주변 농촌지역의 지하수, 지표수 고갈로 어려움이 따른다.
6. 골프장은 필연적으로 주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한다. 골프장 유치 찬성, 반대로 나누는 여론분열 문제로 인해 주민공동체가 해체된다.



7. 골프장 사업 반대 주민단체를 와해하기 위한 금품이 살포되며, 허가권자와 사업자간에 부적절한 돈거래(거의 20억원)가 발생한다.
8. 서해안에 집중되는 골프장으로 인해 해안생태계 마저 녹색사막이 되는 비극을 맞을 수도 있다. 그 모델인 청계만 바다는 김양식, 석화양식 등이 완전히 중단된 곳이다.

골프장은 생태계의 연결고리인 먹이사슬을 끊어버리는 녹색사막을 만드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그것이 해안에 설치될 경우 갯벌과 바다가 죽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연합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운영중인 무안골프장의 경우 간척 매립지에 만들어진 골프장으로서 담수호, 갯벌, 바다의 오염이 골프장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다. 지금도 주민들은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위원장 박순상, 사국장 강영규)를 꾸려 2002년부터 무안골프장, 무안군 등을 상대로 바다오염 원인규명과 피해보상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BS 방송국 물은 생명이다 팀에서 골프장 관련하여 취재 보도하였다. 그리고 광주,전남 골프장 대책위가 꾸려졌다. 그리고 전국 환경비상시국 관련하여 활동가들이 해남 산이에서 골프장반대 관련 행동을 해남산이초등학교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였다. 광주,전남 골프장반대대책위에서는 도지사 면담 및 도청앞 시위, 기자회견 각 지역 골프장 입구나 주민들 반대집회에 함께 하였다.

골프장 문제는 이제 갯벌과 바다오염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해안에 만들어진 골프장은 필연적으로 갯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청계만의 오염은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연합은 무안골프장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현재 54홀까지 늘려진 상태이다. 이 때문에 청계만의 오염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제 인천에서 해남까지 골프장 건설은 현재 상태로는 막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계속해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런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해주는 독지가가 정말 필요한 현실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몸으로 투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거의 대부분을 외부 연구소나 전문가에게 요청해야 하는 현실에서 앞으로 10년후의 지역 환경의 모습은 정말 암울하다. 지역의 환경이 오염되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몸도 아프게 된다. 이런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지역의 환경운동에 힘을 보태주는 회원이 되는 일이다.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

서남해안 레저관광도시 계획인 J프로젝트는 천만 평에 달하는 녹색사막으로 불리는 골프장, 지역 경제를 황폐화 시키는 도박장인 카지노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골프산업은 이웃 일본에서 장기 불황으로 거의 대부분이 파산했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은 14개중 11개가 만성적자에 파산 직전인 상태이다. 이런 난개발에 따른 지역, 환경, 생태계의 피해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며 경제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이곳에 적용될 기업도시 특별법은 대상기업이 협의에 의해 50%의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를 강제수용하여 지역주민을 내쫓고 지역경제를 살린다면서 콘크리트로 덮은 관광지가 된다면 생태관광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낮다.



정부가 특혜처럼 주는 이 사업은 노태우 정권이 공약한 ‘해남화원국민관광단지’ 사업처럼 시작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기극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남의 인구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50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정부와 전남도는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한 생태관광을 육성해야 한다.

정부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 골프장, 카지노 사업이 아닌 생태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경제부양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남도는 J프로젝트 계획에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주민참여형 프로젝트로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연합에서는 2005년 4월에 J프로젝트 광주전남 시민단체의 전남도청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목포환경연합 J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준비를 위한 첫 모임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전남도청에서 실시한 J프로젝트 전라남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서남해안개발사업 관련 문화관광부 면담을 통해 지역에서 우려하는 문제점과 반대이견 등을 종합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리고 목포지역 제단체 대표들에게 J프로젝트에 관한 정확한 현황을 전달하기 위해 오찬모임을 하였다. 5월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목포환경운동연합 특별위원회 모임과 광주,전남 시민단체 4차모임 하였다. 또 5월에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관련 전라남도 공청회에 참여하였다. 6월에 우리연합 서남권개발특별위원회 회의 및 조경만 교수 초청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는 서남해안 개발사업은 골프장대책위와 함께 진행되었다.

지금도 계속되는 J프로젝트는 주민들은 배제되고 관주도형으로 진행중이다. 누구를 위해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만금 사업이 진행형이듯, J프로젝트 사업도 진행형이다. 우리 연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항의와 투쟁을 해서라도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산림보전 운동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는 유달산 보전운동과 지역의 산림에 대한 보전 활동을 해왔다. 97년 9월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설치문제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10월에 유달산-고하도간 케이블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98년 99년 2001년에는 유달산과 삼학도에 나무이름 달아주기 운동을 통해 우리 시의 산에 자생하는 나무들에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2000년에는 환경캠프를 산림관련 하여 하고, 숲과 나무 생태기행을 완도로 다녀왔다.



2002년과 2003년에는 4월 5일 식목일에 유달산 야생화 심기를 하였다. 그리고 2003년 4월 20일에는 완도수목원에 생태기행을 다녀왔다. 8월에는 무안군에 있는 과거 목포시 상수원이었던 무안군 삼향면 군산동 수원지 토석채취장선정관련 생태계 파괴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주민들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함께 행동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군산동 산림을 훼손 예정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2월에는 입암산 정상 철구조물 철거요구 성명서를 발표하여 입암산 정상에 설치하려던 구조물을 철거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미 바위 이곳저곳에는 구멍이 뚫려있었다.

2005년 9월에는 유달산 일등바위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2일에 목포생명의 숲과 “유달산 일등바위 야간 경관조명을 철거하고 야간 조명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24일 서남방송사에서 유달산 야간 경관조명관련 대담에 참여하였다. 목포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대응을 하였지만 유달산 경관조명은 이등바위로 늘어났고, 고하도 용머리까지 확대되었다. 그사이 유달산에서는 매미가 때로 타죽는 현상까지 발생하였지만 목포시는 멈추지 않았다. 산림에 설치한 조명으로 인한 자연훼손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살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 산림훼손 특별위원회 활동〉

8월 24일 제7차 상임위에서 구정리 훼손문제 특위를 구성을 결의하였다. 8월 30일 구정리 산64번지 산림 훼손에 관한 질의서를 무안군에 발송 하였다. 9월 14일 무안군 1차 답변-무성의한 답변이어서 전화로 다시 요구하였다.

9월 19일 무안군 2차 답변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9월 23일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은 심각한 상태였다.

이어서 KBS 라디오에 인터뷰를 하고, 10월 18일에 기자회견 및 1, 2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10월 23일 무안 부군수가 우리연합에 사과 방문을 하였다. 그리고 10월 24일 무안군 사과 및 환경오염방지 약속에 관한 공문을 접수하였다. 10월 30일 이산리 골재채취 현장방문을 위한 채취선에 탑승하여 기술부장에게 오염사실을 확인하였다. 11월 10-28일 무안군수-환경연합 간담회 요청공문 발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환경현안 |

❖ 7.6km의 희망, 철도폐선부지

석현동에서 연동 철도 건널목까지 신도심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7.6km 구간의 ‘벨트형 푸른길’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철로와 침목, 쓰레기, 우범지역의 우려는 사라지고 곤충과 새, 풀과 나무가 있고, 쉼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폐선부지 공원화는 시민들은 매일 산책로와 쌈지공원, 시민기념정원 사이에서 휴식과 문화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푸른길’은 17개 학교 초·중·고 학생들과 목포시 인구의 37.2%가 이용하는 시민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공간이 될 것이다.

주민을 중심으로 시행정과 시민단체, 기업과 지역 내 대학 등 수많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여기에 ‘재미와 창조’를 붙여넣은 ‘푸른길’은 무척이나 가치가 있다.

이쯤 되면 비가 내려도 80만대 이상의 차를 집에 두고 ‘차 없는 날’을 즐기는 콜롬비아 보고타시의 시민도 부럽지 않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모습(2006.11.3)



목포시 폐선부지 7.6km 구간



광주 푸른길 조성 모습1



광주 푸른길 조성 모습2

〈목포시의 다른 상상〉

목포시는 2003년 시민설문조사 등 각종 회의를 거쳐『철도폐선부지 활용방안연구(2003.8)』 자료를 만들고, 도시관리계획에 폐선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할 것을 공식화 했다.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2005년 9월 목포시는 우라와는 다른 상상을 한다.『목포시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 옆으로 8m 도로를 만들고 가운데 12m 공원을 만든다 한다. 또 다른 곳은 15m 도로가 있고 27m 공원이 있다.

공원을 가장한 사실상의 도로다. 곳곳은 도로 때문에 절단되어 버렸고 양 옆의 도로는 자전거 도로도, 근린공원으로의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2005년 11월 29일 방송토론을 통해 도로계획이 지나치게 많이 반영되어 있으며, 불과 2년 전의 결정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에도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방식, 부지 매입 방안, 소요예산, 사업 시기는 제시되지 않은 채 그해 11월 상동~하당동 연결공사가 진행되면서 광장이 단절되고 녹지 축도 단절되었으며, 2007년에는 도로를 더 확장할 계획이다.

『그린레일(green rail) 네트워크』를 꿈꾸는 사람들

폐선부지를 푸른 길로 바꾸기 위한 운동이 국내외에서 시작되고 있다. 우리지역의 경우 광주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는 광주역~효천역 4만여평 7.9km 구간에 걸쳐 푸른 길을 조성하고 있다. 시민참여의 숲 등 현재 총 118억원을 들여 45%의 녹색의 길을 만들었다. 2008년 정도까지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 하는 한편, 도로로 끊어진 곳과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서 푸른 길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주시의 경우 ‘레일바이크’ 라는 명칭으로 영산포역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기존 철로가 폐선이 되는 천안~아산 구간 약 12km 구간에 대한 정책 워크샵이 열리고,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1993년 부곡-도농간 철도계획의 취소로 미 정비된 상태인 서울시 문정동의 경우 도심지 내 거점 녹지 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건전한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 또 수원시 권선구 수원-인천간 폐철도부지의 경우에도 주민들 위한 쉼터 공간으로 조성『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제는 각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린레일 네트워크’를 구축될 전망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RTC에서 조성한 워싱턴과 올드 도미니언 철도광역공원, Minuteman 자전거도로, Perkiomen 트레일 등이 있다.

〈부족한 녹지와 가로수〉

목포시 녹지현황은 전국 최하위이다. 가로수 또한 도심 간판 등을 이유로 베어지거나 작은 수목으로 바꾸고 있다. 폐선부지와 함께 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해당지역 녹지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목포시 자전거 도로 및 가로수 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목포경실련, 목포 KYC, 목포 YMCA 등과 개최했다. 생태관광 녹지세미나,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위원회 참가 등 목포시의 녹지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희망’을 이야기 할 때〉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살기 좋은 도시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우리는 ‘미래의 가치’, 즉 폐선부지, 가로수, 자전거도로 등을 목포의 희망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랬을 때 서울시보다 낮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는 목포시가 ‘희망’을 꿈꿀 수 있고, 그 효과는 우리의 상상 이상일 것이다.



❖ 환경기념일 맞아 해마다 다양한 행사 개최

국제적인 환경기념일을 지역에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은 창립이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환경기념일은 세계습지의 날(2월 2일), 물의 날(3월 22일), 지구의 날(4월 22일), 바다의 날(5월 31일), 환경의 날(6월 5일), 오존층 보호의 날(9월 16일),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10월 16일), 세계 생물종 다양성의 날(12월 29일) 등이 있다. 정부가 정한 ‘환경기념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념행사를 갖는 일은 환경운동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1998년 지구의 날 기념하여 자전거 대행진을 진행하고, 1999년에는 신안 군청에서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및 강연회를 열었다. 그 해 영산호 카누경기장에서는 세계 물의 날의 날 행사가 열렸으며, 지구의 날에는 많은 학생들과 함께 목포역을 출발하는 ‘삼학도 자전거 달리기 대행진’이 개최되었다. 환경의 날을 맞아 갯바위 삼학도 등지에 나무 이음 달아주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2000년에는 물의 날을 기념 영산강변 쓰레기 매립장을 반대하며 나주시 부시장을 면담하였고, ‘지구의 날 2000’ 자전거 대행진을 목포역-대반동-유달산 일대에서 진행하였다.

2001년 세계습지의 날을 기념해서 해남 우항리 공동 화석지 생태기행을 갖고 4월 5일 식목일에는 장흥 천관산 휴양림을 찾았다. 4월 22일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 대행진, 5월 5일 문화예술회관 일대에서 새만금 살리기 1000만명 서명운동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한다.

2002년 회원 시민가족 55명과 함께 새만금 간척지를 현장 방문하였다. 물의 날을 맞아 탐진댐 인공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목일을 기념해서 목포경실련과 목포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유달산 야생화 꽃 심기행사를 가졌다. 4월 20일 평화광장에서 지구의 날 자전거 대행진 및 회원확대운동을 진행하고, 바다의 날을 기념해서 석동일 선생 환경슬라이드 강연회가 목포 여고생을 상대로 열렸다.

이후 2003년 습지의 날 기념 서남권 습지보전네트워크 좌담회, 3월 22일 물의 날 기념 삼향천 살리기 토론회, 4월 5일 식목일 유달산 우리야생화 심기와 삼향천 생태기행, 4월 19일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 대행진 및 자전거 도로 실태 조사 등이 진행되었다.

2004년 2월 5일 세계습지의 날 좌담회(목포 문화원), 3월 28일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산강 탐사(유달경기장), 4월 1일 식목일 황칠나무 심기 행사(율도, 하의도),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 2004 목포 에코-페스티벌 행사(하당평화광장), 6월 9일 바다의 날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서남방송)를 열었다.

2005년에는 제 35회 지구의 날 기념 폐선부지 걷기 행사(목포대학교 목포 캠퍼스 정문)를 진행하였고,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하당 평화광장), 에너지의 날 및 전국 소등의 날 05년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목포역 광장) 등이 개최되었다.

2006년 세계 물의 날 기념 목포지역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영산강 살리기의 실효성 있는 접근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제 11회 환경의 날 행사(목포시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바다의 날,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신개념의 영산호를 생각 한다” (해양유물전시관)등이 진행되었다.



❖ 삼학도 옛 모습 찾기

간척과 매립, 공장 등으로 훼손된 삼학도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한 활동은 97년 창립이후에도 계속된다. 1997년 삼학도 살리기 인간띠잇기 행사, 1998년 삼학도 복원화(공원화) 범시민 추진위 회의 구성, 1999년 삼학도 정화 활동(대삼학도 일대), 2001년 삼학도 문화제전-생태기행, 2005년 목포해경 관용성 부두~삼학도 부두까지 바다쓰레기 수거, 2006년 삼학도의 문화적 발전방향과 가능성 모색 토론회 등 복원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에도 주요한 관심사이다.



1962년 연륙공사가 시작되면서 기름탱크, 석탄부두가 들어서고, 공장 관공서 까지 들어서 완전히 훼손되고 말았다.

이후 삼학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 삼학도를 더 이상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둘째, 이미 들어서 있는 공원의 장애 요인은 점차 떠나야 하며

셋째, 당국은 먼 훗날을 내다보며 공원화 계획 청사진을 만들고

넷째, 청사진을 만들 때는 많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며

다섯째, 공원화 계획이 세워지면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다.

현재 삼학도는 산 형태 복원공사가 완료되고 호안수로와 교량 등 1차 개발대상구간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앞으로 목포시는 당초 섬의 이미지 및 해양 자연환경 복원, 시민의 상징적 휴식 공간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관광자원시설 확충, 지역의 랜드마크적 공간과 시설도입, 자연이 주는 행복을 누리는 관광명소로 만들 예정이다. 진입광장에 음악분수광장을 만들고, 삼학조형물(당초 전망대), 케이블카, 학공원, 해양식물원(당초 어린이 동산), 김대중기념관(즈믄장터), 목포이야기 전시장, 바이킹번지점프(해수풀장), 야외음악당(당초 해변광장) 등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변경된 계획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개념’이 도입되고 ‘실현’되고 있기 보다는 정리되지 않는 ‘육구’들이 ‘혼용’되어 있다. 1243억원의 막대한 예산, 사업타당성 논란 등의 오랜 동안 토론과 논의를 거쳐 왔음에도 ‘삼학도의 역사성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계획’은 아직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요소, 생물적 요소 등을 인위적으로 추방하고 무계획적으로 이용하여 왔던 공간을 최대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현재 조성된 구간을 보면 ‘인공적 요소’에 ‘집중’하다 보니 수로와 보행로 안에 소 삼학도가 작은 면적으로 외롭게 갇혀 있는 형국이다. 물론 여기에 나무를 심기는 하겠지만 그 규모와 현재의 조건을 봤을 때 자연의 풍경을 보기에는 사실상 어렵다. 수로의 경우를 볼 때 상시개방형식이 아닌 수문을 개방해야 물이 흐를 수 있으며, 인공구조물로 벽으로 만들어져 자연적 조건 속에 수생태계는 생겨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인공의 미’가 ‘자연의 미’를 압도하는 인공시설물 보다 삼학도의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의 숲과 녹지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자연은 별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결집체임을 유의하여 서식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라면 타 지역의 경우처럼 다양한 체험하는 방향으로 식재하고, 빈 터가 있을 경우 나무를 많이 심어 숲이 우거진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계획에서 삼학도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삼학도 조성공사가 마무리 된 2009년, 유달산에 오른 호기심 많은 손님들께 삼학도에 대해 설명한다고 하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세 마리의 학이 내려앉았다는 전설과 육지화 되었다는 이야기, 음악분수광장과 학 공원 등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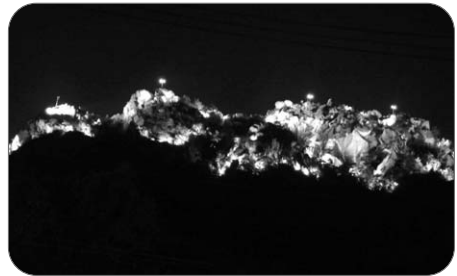
삼학도에 정리되지 않은 ‘육구’에 의해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전설’만이 아닌 삶과 터전으로서 함께해 온 요소를 찾고 이를 일관성 있는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본 개념의 정립은 벤치나 건물 하나를 짓는 것부터 삼학도 자체의 경관(이미지), 생동감 있는 문화, 토지의 이용, 생태 및 녹지공간 확보, 재생가능한 물·바람·에너지 이용, 주민들을 위한 아늑한 공간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초 공사 후 들어설 계획들을 보면 이것과는 거리가 멀거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삼학도 복원화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삼학도의 독특한 역사·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그 안에 ‘재미와 창조’를 불어넣어 새롭게 가꾸어 가야 한다.

그 외 케이블카 설치, 김대중 기념관 설치 등과 관련해서는 유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케이블카의 경우 여러 차례 시의회와 시민단체간의 논의가 있었으며,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훼손 등의 문제를 볼 때 논쟁이 끝난 사안이다. 또한 김대중 기념관의 경우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며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삼학도는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의 상징이요, 얼굴이요, 자랑이다. 삼학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살려 목포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빛을 이용할 줄 아는 도시

야간경관조명과 빛 공해 논란은 2005년 10월 목포시가 단 한차례의 시민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유달산 일등바위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여러 반대에도 목포시는 유달산 이등바위와 정자 등 곳곳에 조명을 설치하였다. 이어 원도심 주요상가 등에 루미나리에 거리를 설치하고, 해안선 전역에 걸친 조명사업 계획과 평화광장 앞 해양음악분수 설치 등으로 이어진다. 2005년부터 “유달산 일등바위 야간 경관조명을 철거하고 야간조명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생명의 숲 공동 성명 발표 후 유달산 야간경관조명 조사 보고서 제출, 목포 MBC 라디오 인터뷰, 목포시의회와 목포시의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 실시 설계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후 목포경실련·목포 문화연대와 기자회견, 목포시장 면담, 경관기본조례 제정 등 야간경관 조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점차 국가적 차원에서 빛 공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은 빛 공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다.

-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집(2002. 6)『식물의 광 방사에 의한 반응과 옥외환경조명의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윤철구 저자와의 두 차례 통화 의견요청
- 필룩스 조명박물관 노시청 관장 [경관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도시공학과)와의 전화통화 의견요청
- 경희대 채광조명연구시스템 김정태 교수와의 두 차례 전화통화 의견 요청
- 서울의 밤 재탄생 『조명, 통제 효율적 관리연구』필자 이명기씨의 [경관조명관련 의견서]
- 목포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워야 한다.
 - (1) 기본적으로 목포시가 경관조례를 제정한 만큼 1)『경관기본계획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야간경관조명사업의 경우 2)조명전문가·생태전문가·경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외국의 우수 추진사례를 잘 반영하도록 하며, 10년·20년을 내다 보는 3) 목포시 야간경관조명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2) 추세와 마찬가지로 빛 공해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빛 공해 방지법』과 같은 조례를 제정하여 야간 빛 공해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 (3) ‘빛의 도시’라는 개념은 빛 공해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목포시의 경우 처럼 조명을 설치하는 계획(유달산 일등바위·이등바위, 유선각 등 정자 조명, 고하도 경관조명, 루미나리에 거리 등)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독이 되는 빛, 약이 되는 빛에 대해 잘 알고 빛을 이용할 줄 아는 도시, 빛을 이용할 줄 아는 시민들이 되었을 때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빛의 도시로 각광 받을 것이다. (참조, 프랑스 리옹와 일본의 사례)
 - (4)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사업의 경우 2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가운데 조명 설치하는 계획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추진해야 한다.
 - 1) 자연대상물 엄격히 제한 등의 설치 기준을 두어야 함.
 - 2) 사례의 경우에도 외국 사례 즉 기 설치된 조명에 대한 사진이 아니라 어떻게 추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3) 사후 관리에 관한 자료를 마련해야 함
 - 4) 사업의 타당성 즉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함.
 - 5) 갯바위, 입암산, 달맞이 공원 등 자연을 대상으로 있는 사업은 유달산 매미 떼죽음 경우와 같은 우려가 되며, 제한된 범위로 국한하고 수목에 비추는 계획은 폐기되어야 함
 - 6) 인공구조물의 경우에도 고대·근대 역사문화 등에 대한 조명 등의 기준을 두고 진행해야 함, 예를 들어 식당 판매시설 등에 관한 조명을 검토 후 추진해야 함
 - 7) 사업 내용 중 목포시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거나 미 추진된 사업(목포타워 등)에 대한 조명 계획은 폐기되어야 함

야간경관조명에 대해 좀더 살펴보자.

다음은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요청에 의해 필룩스 조명박물관장 노시청 관장이 보내온 내용이다.

○ 야간 경관 조명이 발생하는 "빛공해"가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빛 공해의 발생은 대개 야간의 야외 조명에 의한 결과이다. 밤은 밤이되 별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 몇 개의 별이 겨우 보이는 너무 환한 밤하늘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면 사방을 다시 쳐다 볼 필요가 있다. 분명 주변 대형빌딩에서 눈부신 빛을 내뿜고 있을 것이고 근처의 산이나 공원에 휘황찬란한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주변의 너무 밝은 빛이 별을 보이지 않게 한다. 이것은 단지 별이 보이고 안보이고의 문제가 아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구상의 어떤 오지에서도 천체를 관측할 수 없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지구에 어떤 행성이 와서 부딪히는 지, 지구를 둘러싼 천체가 어떤 급작스런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구가 눈을 가리고 신호등도 없는 우주라는 큰 차도를 건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소 먼 미래를 염려할 것도 없이, 그러한 정도의 빛 공해에 노출되어 있다면 사람은 물론 그 주변 자연생태계가 이미 과도한 빛으로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계속 훼손 중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과도한 야간 조명의 더 심각한 문제점이다.



빛은 편리하고 아름다운 문명의 이기이지만 무분별한 남용은 사람과 생태계에 독이 되고 있다. 특히 한밤중의 눈부신 빛은 아주 위험한 빛이다. 실제로 한밤중 서울 부산등 대도시 곳곳의 밝기를 측정해보면 국제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대형건물들의 빛 공해가 눈부심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주거지역의 심각한 수면방해 요인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영종도 공항고속도로 주변에 농사를 짓고 있는 일부 농민들이 가로등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고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른 식물은 물론이고 농민의 생존과 연결된 농작물이 웃자라기만 하고 영글지 않아서 수확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빛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사례는 과거에도 심각하게 보고되어 왔었고, 해외에서는 빛 공해를 심각한 환경공해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통신탑이 밝히는 불빛으로 수백만 마리의 새들이 탑에 부딪쳐 죽었고, 회유성 어종인 연어와 청어가 북태평양의 인공 불빛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거나 빛 근처로 몰려들었다가 육식성 어종의 먹이가 된 예가 크게 회자되었다.

또한 해변의 밝은 조명 때문에 부화한 바다거북이가 방향 감각을 잃고 해변으로 몰려와 멸종되거나,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세운 조명탑이 야행성 휘귀종인 스타소니를 멸종위기로 몰아넣는 등의 사례는 이제 대표적인 야간 조명으로 인한 동식물 멸종 사례로 꼽힌다. 이것은 아주 작은 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야간 경관 조명이 화려한 근처 호수에서는 밝은 불빛 때문에 동물성 플랑크톤이 물 밑에서 올라오지 못해, 수면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필요이상으로 번식하면서 수질을 악화시킨다. 또 철새의 이동경로를 교란시켜 철새의 서식지를 소멸시키고, 빛으로 교신하여 종족 보존을 하는 반딧불이의 멸종을 불러오는 등 야간 조명, 경관 조명이 수없이 많은 사례에서 자연생태계를 교란 시키고 심하게는 멸종시키고 있다.

◦ 조명 규제의 법률 제정의 당위성

여타 환경공해와 같이 빛공해에도 국경이란 없다. 세계적으로 빛공해의 심각성이 밝혀지면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일본 큐슈 구마모토라는 곳은 '빛공해 방지 위원회'를 조직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이 한창이다. 가로등이 농작물에게 미치는 범위를 좁히면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양호한 생육상태를 보존해서 빛공해 모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1992년 부터 애리조나, 콜로라도, 텍사스등 6개 주와 수백 개 도시가 <빛공해 방지법>을 만들었다. 이 법의 주요 규제대상은 위를 향하는 조명이다. 대개 빛공해의 주범이 이러한 위를 향하는 조명인데, 건물이나 기념물을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명의 1/3이 위를 향하는 형태이다. 위로 향하는 빛은 대기중의 먼지와 반사해 동글고 어슴푸레한 빛공해를 일으킨다.

미국의 경우 조명이 하늘로 향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 하늘을 날면 야단스런 불빛이 안 보인다. 아래를 보를 보면 캄캄하거나 어스럼한 빛만 겨우 보일 뿐이다. 실제 야간 조명이 필요한 곳 외에는 불필요한 빛이 조금도 썰 수 없게 입법화하고 있다.

일본도 조명환경 권장치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국가적으로 빛공해 추방 운동을 벌이고 있다. 매년 10월 4일을 <빛공해 인식의 날>로 정하고 야간 조명을 규제해서 대도시 중에서는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별들이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한다. 칠레나 호주도 국가가 빛공해방지법을 제정했고, 체코에서도 야간 조명을 제한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이러한 과도한 야간 경관 조명의 방지 노력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감춰진 생태계 파괴의 칼날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이다.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효과가 높다.

빛공해 방지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 DARK SKY 협회는 매년 45억달러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고, 조명을 밀으면 빛공해의 50~90%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빛공해라고 하면 우리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이다. 일조권, 태양광 반사 등에 관련된 분쟁도 생겨나고 있지만 현재 야간 조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대도시 지역은 <빛공해>를 이제 자각해나가고 경관조명에 빛공해를 의식하고 있지만 지역의 경우, <빛공해> 자체를 모르는 예도 있고, 빛공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사람과 자연생태계에 위험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예가 있다. 외국의 경우 빛을 거부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빛을 연구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빛이 과다한 것이 생태계와 사람에게 좋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전기조명의 발명 이후로 인류의 수면 시간은 1시간 이상 줄어들었다. 빛으로 인한 수면 조절 실패가 사람에게 건강 파괴로 이어졌고 현대의 각종 성인병이나 스트레스에 과도한 빛과 조명이 큰 요인이 되고 있음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의사들은 새벽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야간 조명에 노출되니 선글라스를 끼고 퇴근하라고 하고 있다. 물론 집안에서도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는 등 모든 야간 조명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과 달리 어떠한 차단 방법도 없는 자연생태계는 어쩔단 말인가? 우리 주변의 자연은 무방비로 야간 조명의 온갖 피해를 입고 상처 받는 중이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도로, 공단, 산 등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때에도 생태계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조명전문가에 의뢰해서 인간은 물론 생태계에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빛공해방지법>과 같은 경관조명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환경을 위한 계획은 미래를 위한 바른 길이다.

경관조명의 조례제정에 의견 수렴과 연구가 뒤따르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경관조명의 규제와 법률은 더 아름다운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사람들도 더 건강해지고 심각한 자연 파괴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바른 길이다.

(자세한 자료 문의 :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

❖ 도심철새

철새탐사는 야생조류, 즉 새장 속의 새가 아닌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새를 보는 것을 통해 자연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철새탐사는 실내에서 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야외에 나가 직접 새를 보고 형태를 익히며 주위의 환경과 그에 따른 조류의 생태적 분포나 생활상을 배움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새를 포함한 자연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다. 창립이전 활동에 이어 창립 후 서남해안 섬과 도시의 철새를 관찰하는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998년

- 4. 16 해남지역 철새탐조
- 4.17-20 닐 무어와의 봄철 1차 조류조사
- 5. 2 「갯벌의 소중함과 철새이야기」 슬라이드 상영
- 5. 2-5 닐 무어와의 봄철 2차 철새 조사
- 5. 18-20 닐 무어와의 봄철 3차 조류 조사
- 8. 28-9. 1 가을철도요, 물떼새 탐사 9함평, 무안, 신안, 해남)
- 9. 24-27 닐 무어와의 가을 2차 조류조사

• 1999년

- 7. 28 갯벌과 철새 이야기(목포 공공도서관)

• 2000년

- 2. 26 겨울철새를 찾아서 - 해남간척지 일대
- 4-5월 청소년 주말 철새 학교 - 목포상고, 유달중, 청호중, 목포공업고, 목여중, 문태중
- 7. 9 갯벌철새 조사 - 무안, 압해도 일대(박종기, 이정식팀 공동)
- 7. 19 습지와 철새 체험교육 - 목포여중 함평 돌머리 갯벌 생태교육장
- 11. 21-22 청소년 주말 철새 학교(2차) - 마리아 회고

• 2001년

- 10. 8 영산강 철새탐조(이정식 자문위원 외 1)
- 12. 1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겨울철새탐조-해남 고천암, 공통화석지

• 2002년

- 12. 28 장애우와 함께하는 겨울철새기행-강진만, 해남고천암

• 2003년

- 12. 11 강진만 습지 조사-대추귀고동 서식지 확인/ 철새탐조(고니, 백로)

• 2004년

- 9. 7 생태 보전국 목포 압해도 도요새 조사 참여 (압해도 오전 10시)
- 11. 27 겨울철새탐조 (해남 고천암 - 광주국제연대 공동 오후 4시)
- 11. 28 겨울철새탐조 (해남 고천암 및 우항리, 강진만 오전 9시 30분)

• 2005년

- 4. 22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환경교육 (무안군 용월리 철새탐조 교육)
- 8. 31 도요물떼새 조사 (09:00~17:00 - 압해도)
- 11. 26 광주 · 전남 환경단체 영암호 금호호로 떠나는 철새기행전 (09:30 - 영암호 금호호 일대)

• 2006년

- 8. 30 환경운동연합 습지해양팀 「전국도요물떼새」조사 (08:00-18:00, 압해도)
- 11. 20 도민 철새 기행 (압해도)

목포 남항 앞바다에 국내에서 발견되는 도요새의 절반이 날아들고 있다. 놀랍고도 소중한 발견이 아닐 수 없다. 이 발견은 25년 동안 조류 이동경로를 연구해온 조류 연구그룹 <RSPB>의 관측과 기록 그리고 목포방문, 목포 자연사 박물관 김석이 박사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의한 ‘목포앞바다에 출현하는 조류목록’ (Checklist of Birds at Mokpo shore site)을 통해 밝혀진다.

관찰되는 조류들은 장시간에 걸쳐 시베리아에서 호주, 뉴질랜드 등을 거쳐 이곳으로 와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얻고 최종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국내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을 알 수 있으며, 보호·관찰·교육·국제협약 등이 포함된 <목포 앞바다 조류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종합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합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이동성 조류인 도요·물떼새와 같은 조류를 부양하는 생물 다양성을 지닌 훌륭한 서식지를 도시근교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살려야 한다. 또한 <종합보전계획>은 갯벌 및 도요새 보호 계획, 지속적인 모니터링(관찰) 및 정보 공개, 체험교육프로그램, 국제협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을 실천해야 한다.

첫째, 행정기관·관계기관·전문가·환경단체 등이 <협의기구>를 구성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해수가 흘러들어오는 갯벌, 담수지(연못과 매립지), 소나무가 있는 좁은 후배지(後背地)에 이르는 서식지를 일괄하여 1) 보호구역지정, 2) 조사와 토론(개방과 통제 구분·수질과 양 개선), 3) 복구 또는 디자인, 4) 현명한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삼향천 살리기 노력

2003년 삼향천 살리기 토론회, 2006년 삼향천 살리기 좌담회 개최 등 목포시 하천 살리기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하당 신도심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만들어 졌지만 삼향천의 궁극적 목표는 자연형 하천을 지향한다. 자연형 하천이란 이수, 치수, 환경 등 하천의 3개 기능 중에서 하천의 환경 기능(또는 자연 기능)을 강조하여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유지, 보전, 복원 또는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삼향천에 대해 사안에 따라 토론하는 방식이 아닌 상시적인 토론을 통해 개선해가는 통합적이고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체계(목포시, 전문가, 환경·문화단체, 지역주민 등)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하천을 중심으로 한 교육, 홍보,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종말처리시설과 일부구간에 걸친 사업이 아닌 삼향천 상류부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습지조성 및 저류조 조성, 수량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 환경 교육 |

❖ 환경교육

환경운동에는 다양한 분야(대기, 수질, 소음·진동, 식품, 에너지, 폐기물, 생태, 지구온난화, 반전·평화 등)가 있다. 환경운동은 환경이 인간의 무절제로 위협받고 파괴되는 현장을 직접 고발하거나 사회적 이슈로 만들어 해결책을 찾는 방식, 연구보고를 통해 환경정책에 변화를 주는 방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및 예산에 대한 감시활동, 환경적 중요사안에 대한 대규모 캠페인 등을 펼치는 개인이나 단체의 총체적 활동이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시민 일반의 인식 전환과 참여가 필요하다. 그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국가가 담당하는 정규교육 과정으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더하여 사회교육의 한 분야로 학교 밖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환경교육은 이런 바탕 위에 활동가, 임원들이 기획하고 시도하였으며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 넓이와 깊이가 더해 가고 있다.

환경교육은 크게 내부 교육과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내부교육으로는 활동가 교육, 임원 교육, 회원과 함께 하는 교육이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으로는 현장방문, 학교교육, 생태기행, 주말농장, 세미나 등이 있다.

1. 내부 교육

- (1) 활동가 교육 : 중앙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하는 신입활동가 연수, 회원관리 담당자 연수, 재정관리 담당자 연수 등이 있다.
- (2) 임원 교육 : 자체 워크숍, 외부강사 초청교육 등이 있다.
- (3) 회원과 함께 하는 교육 : 소식지 발간(월 1회), 지역별 회원과의 만남, 전국 회원대회 참가, 환경관련 기념일 행사 등이 있다.

2.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

- (1) 현장방문 : 오염, 파괴현장 방문
- (2) 학교교육 : 각급 학교에 제안하거나 학교 측의 요청에 응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 (3) 생태기행, 환경캠프 : 물고기,갯벌,숲생태체험, 철새탐조, 영산강 탐사 등
- (4) 주말농장 : 소모임(들풀, 녹색연구회)이 주관
- (5) 토론회 : 사안에 따라 기획하거나 참가
- (6) 강사 지원활동 : 활동가나 임원이 강사로 출장강의
- (7) 환경사진전시회, 한여름밤의환경영화제 개최 : 영상모임 '밝음'이 주관
- (8)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 철새전문가, 산양전문가 초청 슬라이드강연, 갯벌전문가 초청 갯벌의 가치와 보전방안에 관한 강연 등
- (9) 녹색장터 : 주부모임 '녹색리본' 주관

유네스코(UNESCO)의 환경교육의 정의를 보면 <참된 환경교육은 종합적이며 평생교육의 과정이다. 환경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오늘날 세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그러나 환경교육은 동시에 공동체적인 참여와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환경교육을 통해서 모든 개인마다 특정한 문제의 해결에 노력할 뿐 아니라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책임감과 지도력 그리고 의무감을 길러야 한다. 나아가 이런 환경교육의 본질적인 이념을 통해 교육제도의 혁신 또한 달성할 수 있다.(1979)>라고 되어 있다.

이런 인식을 밑바탕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목포환경운동연합의 환경교육은 창립 무렵(1997년)에는 조직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하느라 생태기행과 어린이 여름환경캠프(갯벌탐사)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 이듬해부터는 활동가들의 역량이 성장하고 안팎으로 요구가 커져 생태기행이나 탐사 등이 정례화 되고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99년부터는 교육관련 프로그램들이 분야도 다양해지고 그 깊이도 향상되고 있다. 특히 11월에 개최한 '환경지킴이교실'은 우리 자체의 준비성과 시민 참여에 있어서도 기념할 만한 사업이었다. 사진모임 '밝음'은 사진 이론과 실기를 익히는 강의를 자체 기획하고 진행하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2000년부터는 환경과 생태 문제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각급학교의 환경교육 요청이 증대하여 교육횟수를 늘렸으며 쓰레기 문제(음식물)와 대규모 개발사업(새만금)에 관한 이슈가 전면에서 부상하고 있다. 2001년에는 일찍이 토건국가의 폐해를 경험한 일본의 민간-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갯벌 생태에 대한 공동조사와 심포지엄, 교류사업을 시작하는 등 새삼 우리 지역의 자연생태가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높다는 깨우침을 얻은 한 해였다. 12월에 기획한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겨울철새 탐조'는 시민운동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이벤트였다.

2002년은 연초부터 새만금 간척을 반대하는 캠페인을 뜨겁게 전개했으며 신입회원 교육을 처음 시작하였고, 창립5주년을 맞아 기념토론회- '목포지역 환경운동의 역사와 과제'를 열어 지난 5년을 돌아보고 다가올 5년을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03년 6월 우리 지역의 심각한 문제인 바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10,11월에는 회원교육을 기획



하여 회원과 함께 하는, 회원에 의한 활동을 표방하고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을 전개하였다. 2004년에는 지역별 회원교육 및 모임을 잇달아 열어 회원교육과 회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2005년부터는 내부 환경.생태교육을 활성화 하였고, 하반기에 주부모임 녹색리본 주관으로 '녹색장터'를 열어 정례화 하는 열정을 기울였다. 11월에 환경교육(시민운동과 시민운동가의 리더십 모색과 실천방안)을 진행하여 지역시민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 2006년 1월 정기교육(전국 환경교육 현황 및 우리 지역 환경교육 개선방안)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그 방향을 설정하였다. 소모임 '들풀'은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모임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본보기를 보여 주었다.

다가올 10년도 목포환경운동연합은 환경교육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깊이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 1997년

- 7/27 민물생태기행 - 장흥 탐진강에서(청년모임)
- 7/29-30 어린이 여름 환경캠프 <갯벌 탐사> - 신안 압해도, 초등학교생 80여명 참가

• 1998년

- 3/29 생태기행 - 월출산의 기암괴석
- 5/2 슬라이드 상영
- 갯벌의 소중함과 철새 이야기
- 5/3 생태기행 - 내장산 수목
- 7/11-12 생태기행 - 탐진강 민물고기
- 7/18 전남자원봉사센터 환경보전반 지도, 운영
- 7/24 영산강 환경탐사 참가
- 7/24-25 제1회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
- 해양유물전시관 마당
- 8/11-12 어린이 · 청소년 갯벌탐사 -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 8/23 생태기행 - 탐진강의 민물고기(목포공공도서관 어머니모임, 어린이)
- 8/28-9/1 가을철 도요, 물떼새 탐조(함평, 무안, 신안, 해남)
- 9/5 유달산 나무이름 달아주기 - 청년모임
- 9/12 갯벌 탐사 - 신안군 압해면(과학영재교실 어린이 60명)
- 9/19 유달산 생태 기행 - 고교환경감시단
- 10/18 생태 기행 - 장성 남창계곡의 버섯
- 11/14 순천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가
- 12/16 고철환 교수(서울대) 초청강연회 및 목포환경연합 송년의 밤



• 1999년

- 3/22 신입회원 어울마당(사무실)
- 6/4 환경의날 기념 나무이름 달아주기 - 갯바위, 삼학도
- 7/29-30 제3회 어린이 환경캠프 '생명의 보고 갯벌 탐사' - 신안 압해
- 8/13-14 제2회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 - 산정농공단지 잔디밭(사진모임 밝음이)
- 9/3 나무이름 달아주기 - 유달산(청년모임)

- 10/18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 교수와의 대화
- 초원호텔
- 10/23 '99 우리와 함께하는 유달산 어린이 행사
- 청년모임
- 10/30-11/2 환경사진전 - 사진모임 밝음이
(문예회관 전시실)
- 11/8-13 제1회 환경지킴이 교실(가톨릭회관)
- 11/22-25 서남권 갯벌 보전 한·일 공동 심포지움
(서남방송 공개홀)



• 생태기행

- 1/23 우리 고장의 자연 환경
- 유달산에서(초등학생 대상)
- 3/28 봄나물과 식물 - 완도 수목원
- 4/25 우리 꽃 우리 풀 - 장흥 제암산
- 5/30 우리 민물고기 - 장흥 탐진강



• 교육 프로그램

- 1/6 갯벌 슬라이드 교육
- 철새 전문가 닐 무어스(목포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식에서)
- 1/11 우리 고장 환경 이야기 - 목포공공도서관
- 1/12 전남자원봉사센터 봉사학생 환경교육
- 2/4-25 사진이론 교육 - 사진모임 밝음이
- 4/10 환경 강좌 - 문태고등학교 환경반 22명
- 4/14 환경 수업 - 압해종합고등학교
- 5/13 환경 교육 - 목포상고 환경 자원봉사대
- 7/28 갯벌과 철새 이야기 - 목포공공도서관
- 9/27-28 목포기계공고 환경 수업
- 10/1 진도군내중학교 환경생태소풍 진행
- 10/19 목포상고 환경교육
- 11/6 목포여중 갯벌수업
- 12/16 목포상고 환경수업

• 2000년

• 행사

- 2/1 -사진이론 강좌 - 밝음이
- 6/12 서한태 박사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기념 강연회
- 6/15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의 다양한 적용사례 강연회
- 7/24-26 어린이 환경캠프(1차) - '갯벌에는 무엇이 살까' 신안 신의도
- 8/8-9 제3회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 - 밝음이
- 8/12-14 어린이 환경캠프(2차) - '나무야 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광주 임곡
- 9/4 설악산과 산양을 위한 슬라이드 강연회 - 박그림 설악녹색연합 대표
- 10/14-17 야생화 환경사진전 개최

• 교육

- 4-5월 청소년주말철새학교(1차) - 목포상고, 유달중,청호중,목포공고,모포여중,문태중
- 7/19 습지와 철새 체험교육 - 목포여중 (함평 돌머리 갯벌생태교육장)
- 7/28 목포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어린이 환경교육
- 8/1 갯벌생태교육 - 나주성당 중고등부 (압해도 가룡리)
- 8/5 갯벌생태교육 - 광주 두암동성당 중고등부 (압해도 가룡리)
- 11/15 목포YWCA 청소년환경교육 - 갯벌과 철새 기행 (해남 산이면 일대)
- 11/21-22 지역 환경이야기 강의 - 목포공고 청소년주말철새학교(2차) - 마리아회고



• 생태기행

- 2/26 겨울철새를 찾아서 - 해남 간척지 일대
- 3/26 봄나물 캐기 - 유달산 어민동산
- 5/28 숲과 나무 - 완도수목원
- 7/23 민물고기를 찾아서 - 장흥 탐진강

• 2001년

- 1/7 광주대 학생탐사단 지역 갯벌 방문 지원
- 2/2 '세계습지의날' 행사 - 해남우항리 공통화석지 생태기행 (학생 30명)
- 2/17 NGO학술토론회 - 목포대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주최 (목포대교수회관 14:00)
- 4/5 식목일 생태기행 - 장흥 천관산 휴양림을 찾아서...
- 4/21 제32회 지구의날 기념식 및 자전거대행진 - 목포역 광장 14:00
- 5/31 새만금 갯벌 지키기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 6/2 생태 기행 - 탐진강 민물고기 (문태고 25명-김경완 사무국장)
나무이름 달아주기 - 녹색연구회(양을산)
- 6/5 세계환경의날
새만금 갯벌 살리기 천만인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 문예회관 일대
- 6/6 함평만 갯벌 현장교육 지도(호남YWCA) - 김경완 사무국장
- 7/14 새만금 갯벌 살리기 천만인 서명운동
- 7/17 생태 기행 - '나비의 일생을 찾아서' (월출산 도감사 계곡 일대)
- 7/21 새만금 갯벌 살리기 천만인 서명운동
- 7/26 '우리 고장 환경 이야기' 환경교육 - 목포공공도서관
- 7/29-8/1 제5회 어린이 여름 갯벌 캠프
- 8/10 한여름 밤의 환경영화제 - '이웃집 토토로', '갯벌은 살아 있다', '위대한 강'
- 8/27-30 일본 습지전문가-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목포,신안,무안,함평 갯벌 공동조사 국제심포지엄
- 9/28 '쓰레기 없는 추석 만들기' 캠페인 전개 - 대한통운마트
- 10/8 영산강 철새 탐조 - 이정식 자문위원 외 1인
- 11/10-11 생태 기행 - 삼학도문화제전 현장
- 11/21-30 일본습지 교환방문 - 김경완 사무국장, 양효식 조사위원장
- 11/28 최열 사무총장 사무국 방문 및 특강 - 목포대평생교육원
- 12/1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겨울철새 탐조 - 해남 고천암, 공통화석지



• 2002년

- 2/3 세계습지의날 맞아 새만금 간척현장 방문 - 회원,시민가족 55명 참가
- 2/21 신입회원 만남의 날
- 3/8-9 상임위원 워크숍 - 월출산 도갑사
- 3/17 무안 습지보전지역 방문 - 조경만 교수, 환경사랑 들꽃 회원
- 3/24 장흥 탐진담 건설현장 기행
- 4/5 식목일 맞아 '유달산 야생화 심기' - 목포경실련 20여 가족, 환경련 20여 가족
- 4/20 지구의 날 맞아 자전거 대행진 및 회원확대 운동 - 평화광장
- 5/25 바다의날 맞아 환경슬라이드 강연회 - 석동일 선생(목포여고)
- 6/27 창립5주년 기념 토론회 - '목포지역 환경운동의 역사와 과제' (가톨릭회관)
- 7/25-27 제6회 어린이 여름 갯벌캠프 - 신안 압해도(40여명)
- 7/29 쓰시협 교육 - '왜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인가'
- 8/17 한여름 밤의 환경영화제 - '밝음이' (부대행사-책 전시, 치자 물들이기, 회원확대 운동, 생협 물품판매 등)
- 9/14 환경 교육 실시 - 목포여중
- 9/23 환경 강의 - 무안 군부대
- 9/28 습지체험 교육 - 영화중 80명
- 10/9 환경교육 실시 - 신안군 입자면
- 10/16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캠페인
- 10/20 생태 기행 - 내장산 숲
- 10/28-29 환경 교육 - 신안군 안좌면, 팔금면
- 11/8-9 환경사진 전시회 - '강은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사진모임 밝음이)
- 11/13 목포시민이 찾아 나선 쓰레기 추적 기행
- 12/28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겨울철새 기행 - 강진만, 해남 고천암 일대



• 2003년

- 1/7 겨울독서교실 환경교육 - 목포공공도서관
- 2/5 세계습지의날 기념 서남권 습지보전 네트워크 좌담회
- 2/18 무안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주민 간담회
- 3/3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지역 습지에 관한 간담회
- 3/11 환경 강의 - 푸른영암21협의회(사무국장)
- 3/22-23 상임위원 워크숍 - '2003 환경정책' (장흥 유치휴양림)

- 4/5 유달산 우리 야생화 심기와 삼향천 생태 기행
- 4/19 지구의날 기념 자전거대행진 및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 4/20 생태 기행 - 완도 수목원과 푸른 바다를 찾아서
- 5/1-3 일본 습지보전운동가 전남서남지역 습지조사 및 교류회
- 5/3 체험 환경교육 - 제일중학교
- 6/4 토론회 - 바다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서남방송 공개홀)
- 6/14 신입회원 환영 등반대회 - 무안 승달산(토요일 16:00)
- 7/19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홍보 및 서명작업
- 8/11-15 해양환경교육 참가-장흥
- 8/15 가족 갯벌체험 - 무안 흥통유원지
- 9/6 핵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서명작업
- 10/23 신입 회원 오리엔테이션 - 사무실 19:00
- 10/30 신입회원 및 회원교육 - 사무실 19:00
- 11/6 신입회원 및 회원교육 - 사무실 19:00
- 11/9 신입회원 교육 - 영산강 탐사(10:00)



• 2004년

- 2/5 세계습지의날 맞이 좌담회 - 목포문화원 17:00
- 2/27 임원단 워크숍 - 한국디아코니아자매회 한산촌 20:00
- 3/7 삼향천 탐사 - 삼향천 갑문 09:00
- 3/12 환경 강의 - 제일정보고(양효식 박사 13:30)
- 3/19 환경 강의 - 제일정보고
- 4/8 지역 환경교육 준비모임 - 목포아파트주민연합회 14:30
- 4/20 생태도시센터 세미나 참석 - 서울 정동 13:00-18:00
- 4/27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현장견학 - 목포시청 14:00 쓰시협,아파트협의회 38명
- 7/20 지역별 회원 교육 및 모임 - 원산동, 북항동 인근 회원
- 7/29-31 갯벌 생태체험 캠프 - 신안 비금(백사장, 갯벌, 염전, 문화유적 체험. 숙소-비금성당)
- 9/19 영산강 생태환경탐사 - 나불도 선착장 09:00
- 10/8 갯벌 체험교육 - 목포여중 350명(고하도)
- 10/15-6 원산동 트라축제 화학조미료 안먹기, 대안생리대 홍보 - 주부모임
- 10/18 갯벌 체험교육 - 향도여중 300명(강사 4인 지원)
- 11/4 하당지역 회원모임 및 교육 - 신대흥정식당(19:00)

- 11/27 겨울철새 탐조 - 광주 국제연대와 공동, 해남 고천암. 16:00
- 11/28 겨울철새 탐조 - 해남 고천암, 우항리, 강진만 09:30
- 12/23 목포시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 참여
- 영산호조정경기장 14:00



• 2005년

- 2/19(토) 상임위원 워크숍 - 청소년수련관
(목포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식)
- 3/25(금) 환경 교육 - 제일정보고(09:00)
- 4/22(금) 환경 교육 - 제일정보고(무안군 용월리 철새 탐조)
- 4/23(토) 제35회 지구의날 행사 -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정문(14:00 철도폐선터 가꾸기)
- 5/10(화) 환경 교육 -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한 해인여고 교육(14:00-17:00)
- 5/27(금) 환경 교육 - 제일정보고(10:00-16:00)
- 6/9(목) 환경교육네트워크 출범식 및 심포지엄 -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15:00)
- 6/24(금) 창립기념 김혜정 사무총장 초청 간담회 - 초원관광호텔(17:00)
- 7/7(목) 환경 교육 - 목포해양경찰서(13:00)
- 7/21(목) 서남권 섬에 관한 토론회 - 서남방송 공개홀(14:00)
- 8/8(월)-10(수)
2005 어린이 갯벌캠프
- 신안군 비금도(숙박:비금서부성당)
- 8/26(금) 어린이와 함께 하는 주말생태농장 체험
-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15:00)
- 9/3(토)-4(일)
상임위원 워크숍
- 주제 : 신도청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무안군 월두마을회관)
- 9/22(목) '녹색 장터' - 이로초등학교 방문(주부모임)
- 9/23(금) '녹색 장터' 관련 아파트단지 홍보 - 주부모임
환경 교육 - 제일정보고(나주 석관정 10:00-16:00)
- 9/24(토) '녹색 장터' - 하당 평화광장 야외공연장(15:00-18:00 주부모임)



- 10/7(금) 향도여중 해양교육연구학교 운영보고회 참석(13:00 향도여중)
- 10/8(토) 녹색 장터 - 하당 평화광장(15:00-17:00 주부모임)
- 10/12(수) -17(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단체협의회 교육
- 쓰레기 감량화 방안(원산동 아파트단지)
- 10/15(토) 녹색 장터 - 하당 평화광장(15:00-17:00 주부모임)
- 10/22(토) 녹색 장터 - 하당 평화광장(15:00-17:00 주부모임)
환경 교육 - 임자초등(10:00), 임자남초등(14:00)
- 11/4(금) 제1회 목포환경련 환경교육 - 주제 ; 시민운동과 시민운동가의 리더십 모색과 실천방안(19:00 사무실)
- 11/26(토) 광주·전남 환경단체 영암호·금호호로 떠나는 철새기행전
(9:30 영암호,금호호 일대)
- 12/15(목) 습지센터 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 강화갯벌센터(15:00)

• 2006년

- 1. 6 1/5(목) 건강, 먹을거리 교육 - '서한태 박사님의 밤상 이야기'
(10:00-11:30 롯데마트 문화교실, 주부모임 녹색리본)
- 1/19(목) 목포환경련 정기교육 - 전국 환경교육 현황 및 우리 지역 환경교육 개선방안
(18:30 사무실)
- 2/16(목) '예쁜 조끼를 만들어 보아요'
- (10:00 하당 롯데마트, 주부모임 녹색 리본)
- 3/20(월)-22(수)
세계물의날 관련 목포지역
초중고교 방문교육
- 3/24(금) 제4차 목포환경련 정기교육 - 사무실(19:00)
물의날 기념강연 - 향도여중(강사 박 현 의장)
- 4/29(토) 2006 제1회 어린이 녹색장터
- 하당 평화광장(15:00 녹색리본)
- 5/6(토) 제2회 어린이 녹색장터
- 하당 평화광장(15:00 녹색리본)
- 5/19(금) 회원모임 - 연산,원산지역(19:00 진생고기집)
- 5/20(토) 제3회 어린이 녹색장터 - 하당 평화광장(15:00 녹색리본)



- 5/25(목) 목포환경련 제5차 정기교육 - 사무실(19:00)
- 6/28(수)-29(목)
전국 회원관리자 워크숍 참가 - 대전 유성유스호스텔
- 7/18(화) 환경 교육 - 신안 자은중
- 7/24(월)-28(금)
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 담양,광주,나주,무안,영암,하구둑 일원
- 8/10(목)-11(금)
국제심포지엄 참가-해안공동체의 형성과 시민사회의 역할
(14:00 목포해양대 실습선)
- 9/ 2(토) 신입활동가 회계교육 - 이승우 재정감사
- 10/21(토) 어린이 녹색장터 - 연산동 초등학교와 아파트단지 일대(13:00)
- 10/28(토) 어린이 녹색장터 - 하당 부영초등학교 앞(15:00)
- 11/20(월) 도민 철새기행 - 신안군 압해도

| 회원 · 연대 사업 |

❖ 회원사업

목포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고 2개월 정도 지난 8월 19일 회원 월례회를 개최하여 회원 단합 및 유달산-고하도간 케이블카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회원이 서로 만나 친목을 다지는 행사는 해마다 이어져 1999년 3월 신입회원 어울마당, 6월 4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삼학도와 갯바위에서 나무이름 달아주기 행사, 11월 6일 삼학도 정화활동, 12월 30일 초원호텔에서 환경인의 밤, 2002년 4월 식목일 기념하여 경실련 회원들과 함께 유달산 야생화 심기, 6월 평화광장에서 창립 5주년 기념 회원 한마당 행사, 10월 3일 목포대 송림캠퍼스에서 회원 체육대회, 2003년 6월 신입회원 환경 승달산 등반대회, 8월 회원가족 갯벌체험행사(무안 홀통), 2004년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날 행사(평화광장 에코페스티벌 현장), 2006년 회원가족 유달산 등반대회 및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연합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직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들의 협조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01년 10월 25일 처음으로 목포환경운동연합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그리고 현 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이러한 만남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역별 직능별 회원 모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2003년 7월 20일 북항 원산동 회원 모임, 2004년 11월 4일 하당지역 회원모임, 2006년 5월 19일 연산.원산동 회원 모임 등을 별도 갖기도 하였다.

1998년 5월 2일 임원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철새 조사차 목포를 방문한 영국인 닐 무어로부터 「갯벌의 소중한 가치와 철새이야기」 슬라이드 상영이 있었고, 8월 18일 회원 및 임원 단합대회가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식당에서 있었다.

2002년에는 회원확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개인 및 단체 회원들이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 연대사업

〈지역과 전국 시민 환경사회 단체와의 폭넓은 연대〉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창립을 준비하던 때 이미 환경·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시도하였다. 1997년 4월 14일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저지 목포해상캠페인에 참가하면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시도하여 많은 사회단체들이 함께하여 행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었고, 이러한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당시 목포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북녘동포돕기목포시민운동본부에 참가하여 준비위원장(김창용)과 위원들이 성금 40만원을 모아 북녘동포돕기목포시민운동본부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대의 기풍은 창립후에도 그대로 이어져 7월 30일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목포YMCA, 목포YWCA,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목포포럼, 전교조 목포지회, 소비자자연맹목포지부와 함께 했다.

그리고 지역시민단체들의 상설적인 연대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999년 10월 7일 목포초원관광호텔에서 목포지역 8개 시민단체(미래를 여는 공동체, 목포YMCA, 목포YWCA, 목포시정지기단, 목포포럼,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목포지부)들이 연대하여 발족한 「목포시민단체연대」가 출범하였고, 상임대표(최태옥 공동의장), 사무1처장(김종현 집행위원장), 기획국장(조상현 사무국장)을 환경운동연합이 맡아 지역연대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동안 월출산 도갑사 민박집에서 열린 환경연합 상임위원 워크샵에서는 당시 상설적인 연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면서 상설연대체보다는 사안별연대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목포시민단체연대 탈퇴가 정식 가결됨으로써 현재까지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상설연대체에는 정식 가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소홀히 하거나 약화시킨 것은 결코 아니며 지역현안에 대한 사안별 연대활동은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으며 여전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과 전국의 환경단체와의 연대 또한 창립이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창립을 앞둔 5월 31일 바다의 날 기념하여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 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20일 충북 자원학습원에서 열린 환경운동연합 전국 활동가 수련회에 처음 참가한 이래 현재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참가하여 서로 다른 경험과 성과를 교류해오고 있으며,



1998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전국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교육에 참가한 이래 목포환경운동연합에 새 활동가가 들어올 경우 전국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경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무역량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운동연합 전국수련회와 전국활동가 워크샵등에도 많은 임원과 회원 가족들이 적극 참여하여 교류와 연대를 통한 환경운동 발전에 노력해왔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목포시민운동협의회의 창립과 활동〉

1998년 6월 25일,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목포시민운동협의회(목포쓰시협)의 창립은 목포지역 환경운동의 큰 성과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목포YWCA가 참가하여 만든 목포쓰시협은 가장 먼저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는데, 당시로는 획기적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라인아파트 주민자치(회장 윤양덕)와 손



잡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통을 나누어주고 음식물 처리업자가 별도로 처리하게하여 주민들로 큰 호응을 얻어 이를 발판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한편 〈녹색식당〉선정사업에 들어가 ‘시민들이 믿고 찾는 녹색식당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글귀가 새겨진 프랑카드를 시내에 걸고 시민의 추천을 받아 ‘유달콩물’ 등을 녹색식당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목포시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원칙을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처리공법(EMG공법) 시설 추진을 강행하자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결국 시가 강행방침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쓰시협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나서 1999년 3월 29일 대형할인마트 1회용품 줄이기 간담회를 열어 비닐봉투 등 쓰레기가 많은 발생하는 대형마트들의 협조와 동참을 요청하였고, 라인아파트를 시작으로 시내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함께 만드는 녹색아파트 시민환경강좌’ (강사 서한태 박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식을 환경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쓰시협은 2001년 9월 대형마트 앞에서 쓰레기없는 추석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데 하면, 목포시아파트연합회와 함께 목포시위생매립장→해남유동퇴비→유기농생산지로 이어지는 음식물찌꺼기 처리경로를 추적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등 쓰레기의 발생을 줄이고 올바르게 처리하며 나아가 시민과 업체의 의식을 바꾸어나가는데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다.

〈올바르고 환경친화적인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 녹색정치연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 속에서는 이번에는 바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1999년 ‘2000총선시민연대’ ‘광주전남 정치개혁 시도민 연대’가 발족되어 시민들의 호응 속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2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01년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녹색자치위원회를 꾸려 적극 대응하자는 결의가 있었고 목포에서 2002년 제6차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받아 상반기 녹색자치위원회 활동을 2002년 중점사업의 하나로 결의하였다. 2002년 2월 6일 광주에서 광주.전남 녹색자치위원회 준비모임을 가진데 이어 4월 7일 서울에서 열린 녹색자치위원회 전진대회에 참석해 전국적인 녹색자치와 정치변화의 열망을 확인하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특별위원장에 김무영 공동대표가 선임되고 5월 17일 목포KYC와 공동으로 녹색자치 지원. 지지후보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와 무안의 기초.광역의원 지지. 지원후보(기초:강성휘, 김학주, 김형진, 김대중, 김탁, 박성원, 배종범, 허정민, 광역:김치선)를 공식발표, 인준장을 전달하고 지지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대학과의 교류협력 - 초당대 환경기술연구소와의 교류와 활동〉

1999년 11월 10일 초당대 환경기술연구소와 교류협정 체결하고 2000년 5월 26일에는 무안군 몽탄면 영산강변에서 영산강 환경캠페인을 함께 전개하였다.

〈걷고 싶은 목포 만들기 - 보행권과 녹색교통문화 연대〉

1998년 정기총회에서는 연중 기획사업의 하나로 “자전거를 탑시다”를 제창하고 IMF경제위기를 맞아 환경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4월 19일 '98 지구의 날(4.22)을 맞아 목포YMCA, 전남청소년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시민자전거대행진을 개최하였고, 11월 9일에는 보행권 조례제정운동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녹색교통운동 박은호 정책실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포환경운동연합과 목포YMCA가 공동으로 목포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목포시민의 80.6%가 ‘길을 걸을 때 교통사고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는 등 목포시의 보행환경이 매우 좋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1999년 제3차 정기총회에서 환경보존활동으로 「녹색교통운동」, 2000년 1월 25일 열린 제4차 정기총회에서 「환경·주민친화형 목포만들기」가 제창되면서 녹색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연대활동도 더욱 활기를 띠어 1999년 11월 10일에는 보행환경개선과 보행권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목포YMCA, 목포지체장애인 애인회와 함께 진행됐고, 6월 20일부터 이틀동안 목포환경련, 목포경실련, 목포교통문화개혁시민협의회가 공동으로 교통문화지수 측정조사를 실시하였다.

1999년 4월 22일 '99지구의 날 기념 삼학도 살리기 자전거대행진이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사)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목포지부, 새정치국민회의 목포신안(갑)지구당 공동으로 진행돼 많은 시민 학생이 참가하였다. 2000년 지구의 날은 당시 유달산 해변도로 지키기 운동과 맞물리면서 4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많은 시민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목포역과 유달산 일대에서 진행됐는데,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MCA, 전라남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이 함께 지구의 날 2000목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진행하였고 유달산 해변도로 확장공사로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던 유달산을 지키기 위한 범시민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유달산 훼손을 막기위한 빛나는 투쟁과 연대, 승리 - 유달산지키기범시민대책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연대사업에서 무엇보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 활동일 것이다. 2000년 1월 29일 목포시는 목포의 자랑이자 한점 수석처럼 아름다운 유달산의 훼손이 불을 보듯 환한 해변도로 확장공사를 착공하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2월 초 목포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데 이어 2월 8일 열린 목포환경운동연합 상임위원회



에서 유달산 해변도로 대책 건을 안건 상정하고 최정삼 조사국장의 보고를 받은 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목포시에 요청한 정보공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3월 22일 유달산 해변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문희 해양오염감시교발센터 소장을 선임하였다. 4월 1일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한 유달산 해변도로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4일 주민, 환경단체, 시청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참여를 호소하여 5월 25일에는 12개 단체 (대반동주민대책위원회, 목포시정지기단, 목포YMCA, 목포YWCA, 목포환경운동연합, 민예총목포지부, 미래를여는공동체, 천주교정의구연목포연합, KYC목포지부, 한국환경보호협의회목포지부 등)가 참가한 대책위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유달산파괴하는 해변도로 확장공사 즉각 중단,

▲전문가 주민 시민단체 목포시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하였다. 5월 29일에는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 대책본부로 확대하고, 전교조의 참가로 대책본부 참가단체가 15개로 확대된 가운데 6월 5일 목포시장을 면담하여 시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와 토론회 전 까지 공사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고 대반동 노인정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대책본부 현판식 마저 목포시가 방해하자 목포역광장에서 제1차 꺾기대회를 개최하였다. 6월 12일 목포역 광장에 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1만명 시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 7일만에 서명자 수가 3천5백명을 넘어서는 등 시민의 호응이 매우 컸으며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6월 17일 제2차 꺾기대회인 2000환경미술제를 목포역광장에서 개최하였다.



6월 19일 목포시의회의장을 면담하여 목포시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청원하고 이어서 시청 앞에서 「근조 유달산」이라 쓰여진 검은 만장을 앞세우고 유달산 모형의 상여를 들고 시낭송, 퍼포먼스를 펼치는 제3차 꺾기대회를 단행하였다. 대책본부는 ▲유달산 해변도로 확장공사 즉각 중단, ▲유달산을 훼손하는 자는 끝까지 응징, ▲유달산을 보존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 ▲공사를 중지하고 토론회를 통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6월 22일 목포시의회 의원들과 대책본부 관계자 간담회가 있었고 6월 27일 제4차 꺾기대회가 유달산 지키기 차량투어로 진행됐다. 19개 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목포대 송림캠퍼스에서 후레쉬마트까지 진행된 차량투어는 「근조 유달산」만장을 단차량을 앞세우고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켜채 차량 수십대가 시위를 벌이는 장관을 연출하면서 반대열기를 북돋았다. 다음날인 6월 28일 목포시의회가 유달산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고, 7월 20일 목포부시장이 대책본부를 방문하고 7월 31일 목포시와 대책본부간 10개 항의 합의안이 공식 발표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진 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구간공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대책본부가 현장을 방문하는 등 2002년 상반기까지 유달산지키기대책본부 활동은 지속되었다. 지역 환경 시민운동사에 남을 큰 발자취를 남겼다.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목포역광장에서 열린 제1차 시민꺾기대회 때 뿌려진 홍보전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계 환경의날 기념 -
우리 목포의 자존심! 유달산, 우리가 지킵시다.

지난 2월 9일 목포시는 국도1호선 연결도로 확장공사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도로확장 공사에 들어갔다. 문제는 유달산 100만평중 45,000평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실이다.

유달산 파괴의 심각성을 인식한 목포환경운동연합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유달산해변도로 특위를 구성, 위원장에 해양감시센타 소장을 선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5개안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목포시의 반응은 매우 위협적이고 고압적이였다. 그래서 전교조를 포함한 15개 시민단체가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를 결성하였고, 지난 6월 5일 대책본부의 공동의장단 및 집행부 20여명이 시장과 면담하여 공사일시중지와 목포시, 시민단체, 주민, 전문가가 공개토론회 통하여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목포시는 정면거부하였고, 심지어 각 단체들이 제작한 ‘유달산을 지키자’는 내용의 프랭카드 날인을 거부하며, 대반동 주민대책위와 합의한 대반동 노인정에 상황실 설치를 반대하였을 뿐아니라, 대반동 노인회를 회유 협박하였고 심지어 노인정을 강제폐쇄 조치하여 현관식조차 갖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았다. 이에 대책본부는 목포역광장에 천막을 설치하여 대책본부를 만들어 유달산 지키기 및 주민감사 청구권 청구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계획하였고, 공개토론회 개최시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펼치기로 결의하였다. 또 종교계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함께 온 몸으로 유달산을 지킬 것을 다짐하였다. 모든 시민,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우리의 자존심, 유달산 우리가 지키자!
삼학도를 복원하며 유달산 훼손이 웬말인가?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대책본부
임시 사무실 243-3169

목포시민 여러분! 이렇게 실천합시다.

실천 하나, 목포시에 항의전화를 합시다. (시장실 272-3011)

실천 둘, 유달산 지키기에 함께 합시다.

실천 셋, 유달산을 자주 등반합시다.

실천 넷, 유달산 확장공사장을 방문합시다.

실천 다섯, 목포시에 항의 e-메일을 보냅니다.

실천 여섯, 목포역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유달산지키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안티에어컨’ 캠페인 - 목포에너지시민연대〉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 목포YWCA로 구성되었으며 2001년 시내 공공장소 실내온도 조사를 실시(8.2-3)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8.13) 8월 17일에는 ‘안티에어컨’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005년 8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목포역광장에서 에너지의 날 및 전국 소등의 날 05 여름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시 바른 예산수립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활동〉

2002년 9월 26일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등과 함께 목포시바른예산수립을위한시민네트워크를 발족하고 10월 7일에는 워크숍을 갖고 내부적인 토론을 벌인데 이어 10월 23일에는 목포시가 발표한 ‘민선3기 105대 시책’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민선 1,2기 시책들을 명칭만 바꾼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책은 예산확보 방안이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밝히고, 이같은 시책을 세우기 전에 공무원 뿐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12월 4일부터 6일까지 목포시의회 상임위 모니터를 실시하였으나 목포시의회예산결산위원회가 시민네트워크의 방청을 거부하자 12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세계와 하나되어 - 국제연대 활동〉

환경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1999년 5월 5일부터 25일까지 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랍사회의에 김경완 간사가 참가하였고, 그해 11월 25일 해남갯벌과철새보전을위한모임과 공동으로 일본의 습지단체(JAWAN)을 초청하여 ‘전남 서남권 갯벌보전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일간 습지 연대활동은 계속 이어져 2001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동안 한-일 공동으로 목포, 신안, 무안, 함평 갯벌조사 국제심포지움이 열렸고,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김경완 사무국장 과 양효식 조사위원장이 일본습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2007년에는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한-일 국제심포지움에 유영업 사무국장이 참가하였다.

| 소모임 · 재정사업 |

❖ 소모임

〈녹색연구회〉

1988년 서한태 박사님이 창립한 목포녹색연구회의 청년모임으로 출발해 1992년 푸른세상을 위한 시민의 모임으로 독립해 〈푸른세상〉신문 발간, 영산강 답사, 쓰레기매립장 조사 활동 등을 벌였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 시절부터 청년모임으로 활동하다 2001년부터 녹색연구회로 이름을 바꿨다. 1997년 3월 16일 신안 압해면 송공리 핵발전소 건설예정 후보지를 답사하고 선착장에 핵발전소 반대 프랑카드를 거는 반핵활동을 전개했다. 1997년 7월 장흥 탐진강 민물생태기행, 98년과 99년 “유달산 나무이름 달아주기”, 「99 우리와 함께 하는 유달산」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를 개최하였다.



목포시가 유달산과 고하도간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997년 11월 14일 초원관광호텔에서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토론회 개최하였다. 이날 한라산 케이블카 저지운동의 경험이 있는 제주범도민회 문용포 사무처장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박현 청년모임 대표는 ‘삭도의 구조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3년과 2004년 신입회원 및 회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2004년 4월 무안군 삼향면 임성리에 주말농장을 개장했다. 2005년에는 서찬호 회원의 도움으로 주말농장 장소를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로 옮겨 현재 까지 이어오고 있다.

〈영상모임 - 밝음이〉

1997년 8월 15일 사진작가 박종길 님의 지도를 받아 향토문화관과 월출산 일대로 야외촬영을 나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정보신문에 광고를 내고 희망자를 모집하여 98년 2월부터 4주동안 사진강습 시작하였다.



7월 24,25일 이틀간 해양유물전시관 앞 마당에서 제1회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를 개최하여 첫째날 「나무를 심은 사람」 「버닝시즌」, 둘째날 「마이크로 코스모스」 「아름다운 비행」을 상영하였고, 1999년 8월 13,14일 산정농공단지 잔디밭에서 제2회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를 개최하여 첫째날 「갯벌은 살아있다」 「프리윌리2」, 둘째날 「어름치와 껍지」 「라파누이」를 상영했다. 2000년 8월 8,9일 제3회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를 부흥동민 어울마당과 함께 진행하여 「헤이세이 너구리 전쟁 폼포크」 「저어새」 「필리컨브리프」 「해남의 겨울철새」를, 2001년 8월 10일 제4회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를 개최하여 「이웃집 토토로」 「갯벌은 살아있다」 「위대한 강」 등 세편을 상영했다. 2002년 6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평화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 창립 5주년 기념 회원한마당 행사 가운데 하나로 환경영화제를 열어 〈위대한 비상〉을 상영하였다. 이날 기념행사의 부대행사로 책 전시, 치자물들이기, 회원 확대운동, 생협 물품판매 등을 함께 진행해 시민들의 반응을 얻었다.

회원발표전을 겸한 환경사진전도 개최하여 1999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제1회 환경사진전을 개최하여 11명의 회원이 사진을 출품하고 작품을 담은 팜플렛을 발간하여 사진모임으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2000년에는 사진 주제를 야생화로 잡고 여러차례의 출사모임을 거듭한 끝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야생화 환경사진전을 개최했다. 2002년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은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를 주제로 한 영산강 환경사진전을 개최했다. 소모임 자체의 힘으로 개최한 환경영화제와 환경사진전은 소모임의 역량을 극대화시킨 모범사례로 꼽힌다.

2003년부터 2004년엔 지역 환경을 주제로 잡아 유달산, 영산강, 양을산, 상리천, 입암산 등으로 출사를 나가 찍은 작품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형편이 어려운 나이드신 노인들의 영정사진 촬영작업을 2001년 상동복지관에서, 2005년에는 초당대 사진영상학과 학생들과 함께 무안병원에서 무료검진을 겸하여 진행했다.

〈환경사랑-들풀〉

2001년 회원 친목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입회원 간담회와 회원간담회,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캠페인을 주관하였다. 새만금 매립 반대 서명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2002년에는 자체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하였다.

2002년 3월에 목포대 조경만 교수와 함께 무안 습지 보호지역을 방문하며 주로 생태탐사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영광 염산 두우리 가족 갯벌탐사, 장흥 유치휴양림 생태탐사, 무안군 환경 습지보호지 탐사, 2006년 정책위원회와 함께 새만금 생태탐사(1박2일), 흑산도 장도 습지 조사, 증도 탐사, 2007년에는 월출산 생태조사, 신안 우이도 조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흑산 장도습지와 월출산 생태, 우이도 생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순한 탐사활동을 뛰어넘어 한층 발전된 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부모임-녹색리본〉

2002년 주부모임 준비단계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5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4년 10월 15,16일 원산뜨락축제에 참가해 화학조미료 안먹기와 대안생리대 홍보, 2005년 롯데마트 문화교실에서 “어린이 칼라믹스 배움 행사”, 2006년 “서한테 박사님의 밥상 이야기” “예쁜 조끼를 만들어 보아요” 등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사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9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하당 평화광장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제1회 녹색장터”를 연 이후 2006년 4월29일부터는 “어린이 녹색장터”로 이름을 바꾸어 격주 토요일마다 평화광장에서 열고 있으며, 부영초등학교와 행사 현장에서 “찾아가는 어린이 녹색장터”도 개최하여 어린이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호회 : 축구모임 - 푸름이 / 다도해 섬탐방 모임〉

축구모임 푸름이는 1998년 9월 1일 창단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목포공고, 서부초등학교 목포대 용해캠퍼스 등지에서 모임을 갖고 많은 다른 팀들과 시합을 합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다도해 섬탐방모임은 2003년 회원의 참여 기회 확대와 다도해를 제대로 알아보자는 취지로 창립했다. 2003년과 2004년에 비금, 임자, 압해, 울도, 외달도 등 목포와 신안 섬들을 탐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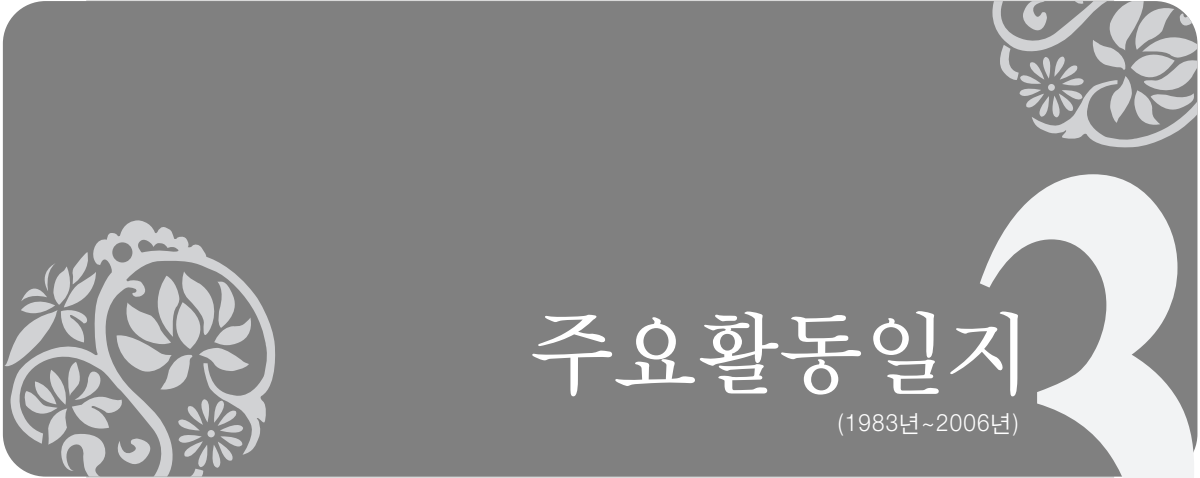
❖ 재정사업

왕성한 활동과 원활한 재정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며, 특히 목포환경운동연합처럼 행정기관이나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독립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회원과 시민의 힘으로 독립적인 재정을 마련하고자 2000년 4월 18일(화) 낮 12시부터 시내 카이저호프에서 환경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호프, 2001년 6월 22일에는 유달산 등구에 있는 에끌에서 창립5주년 기념 환경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을 열었다. 2001년 하루차집에서는 새만금 매립반대 서명운동이 함께 진행되기도 했다.

창립 7주년을 맞이해서는 하루차집과 호프와 같은 ‘소규모’ 재정사업이 보다 대규모로 하기 위한 묘안으로 극단 갯돌 초청 「빨소리」공연을 기획하고 2003년 9월부터 목포환경련 창립7주년 기념 및 기금마련 행사 추진위 모임을 구성해 여러차례 모임을 가졌다.



2003년 11월 15일 오후 4시 목포KBS스포츠홀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 7주년 기념 2003 목포환경문화 큰잔치》를 열었다. 극단 갯돌 초청공연과 더불어 목포생협이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 시식, 푸른신안21협의회가 마련한 환경사진 전시를 함께 진행했다. 객석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을 찾아주었고, 긴 기간 동안 고생하며 준비한 만큼 성과 또한 커서 재정마련에 큰 도움이 있었다. 2005년 12월 13일 하당에 있는 MAFIA에서 「2005 목포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과 환경련 회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찾아주었다.



주요활동일지

(1983년~2006년)



| 주요활동일지 |

목포환경운동일지

1983년도

- 6. 23 영산호보존회
- 9. 22 영산호유역환경보전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 12. 9 무안군에 몽탄강 물고기 떼죽음에 대한 질의

목포환경운동일지

1984년도

- 1. 8 농업진흥공사 영산강사업소에게 영산강수질보전에대한 질의
- 1. 9 금성시장에게 한국종합화학에서 나오는 제품의 상품명과 화학품명에 대한 질의
- 1. 16 환경청장에게 영산호를 오염하는 현장을 목격시 고발처 및 고발요령에 대한 질의
- 1. 18 무안소제 풍진화학사장에게 영산호수질보존협조에 대한 협조의뢰
- 1. 30 전남도 농정국장에게 1일하천유지수량에 대한 질의
- 2. 8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자료협조요청
- 2. 17 전라남도지사에게 광주천보전회 탄생에 관한 질의
- 5. 31 환경청장에게 한국종합화학화학장시설에 따른 공해에 대한 질의
- 6. 19 전라남도 환경위생과장에게 영산강수질보전대책에 대한 질의
- 6. 27 전라남도지사에게 렉키나주 옥탄올공장에 대한 질의
- 7. 19 공해풀이마당굿 “나의살던고향은” 연우무대가 시민회관에서 공연

목포환경운동일지

1985년도

- 1. 4 환경청장에게 수자원보전에 대한 질의
- 5. 15 전라남도 환경위생과장에게 대수개발기름탱크가 터져 영산강상류오염에 대한 질의
- 5. 20 전라남도 위생과장에게 나주호 폐유오염에대한 질의
- 11. 12 영산호보존회 월례회의에서 수도공사와의 대한 문제제기
- 12. 16 농업진흥공사 사장에게 영산호감시선운영에 대한 질의

목포환경운동일지

1986년도

- 3. 12 건설부장관에게 금성시 종말처리장에 관한 질의
- 5. 19 목포시장에게 삼학도환경보전에 관한 질의
- 6. 10 해남대흥사에서 예장목사들에게 환경연수교육
- 9. 9 삼학도보전회 창립

목포환경운동일지

1987년도

- 7. 12 유달산보전회 창립
- 8. 18 청호생수회창립
- 9. 5 목포시 영산호개통상수도준공식
- 9. 26 서울구세군중앙회관에서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서진옥)1주년기념식 참가
- 11. 11 수산청장에게 함평군골재채취허가에 대한 질의
- 12. 24 목포녹색운동단체협의회 창립

목포환경운동일지

1988년도

- 5. 6 광주시장에게 영산강상류 어류폐사에 관한 질의
- 5. 26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식생활개선에대한 질의
- 6. 10 전라남도지사에게 대불공단에 공해업체 입주에 대한 질의
- 6. 21 환경청장에게 공해업체 공해순위에 대한 질의
- 7. 12 목포시장에게 생수에 대한 질의
- 8. 8 목포녹색연구회 창립
- 8. 13 내무부장관에게 상수도지방공사 설치의 모순에 관한 질의
- 8. 13 건설부장관에게 상수도지방공사 설치의 모순에 관한 질의
- 9. 29 YMCA에서 맑고 깨끗한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주제로 제1회 시민토론의 광장
- 10. 27 YMCA에서 바람직한 식생활은 무엇인가 주제로 제2회 시민토론의 광장
- 11. 29 YMCA에서 영광핵발전소에 대하여 주제로 제3회 시민토론의 광장
- 12. 내땀을 지키고자 책 발행
- 12. 27 YMCA에서 목포환경보전운동의 방향에 대한 제4회 시민토론의 광장

목포환경운동일지

1989년도

- 1. 24 한반도를 비핵화지대화 하자 내용의 제5회 시민토론의 광장
- 2. 28 카톨릭회관에서 똥물이 웬말이나 주제로 제6회 시민토론의 광장
- 3. 12 역전광장에서 영산강분뇨사건 범시민규탄대회
- 3. 30 YMCA에서 환경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주제로 제7회 시민토론의 광장
- 4. 1 광주YMCA에서 반공해운동의 국내현황을 주제로 강연
- 4. 18 목포대 학생회관에서 반핵·평화·생명운동에 관한 주제로 강연
- 4. 26 공설시장에서 반핵운동에 대하여 주제로 제8회 시민토론의 광장
- 6. 5 라이온스회관에서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
- 6. 27 라이온스회관에서 식생활과 성인병주제로 제10회 시민토론의 광장
- 7. 4 전남지사에게 주암호관광지화에 대한 질의
- 7. 6 해운항만청장에게 삼학도 항만종합청사건립에 관한 질의
- 8. 8 YMCA에서 물문제대책에 관한 토론회
- 9. 9 시민회관에서 우리의 먹을 물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공청회
- 9. 26 전남도청국회감사장에서 도내 핵발전소부지에 대해 참고인으로 슝
- 10. 26 상공회의소에서 목포시 수도문제와 개선계획 시민토론회 토론자로 참가
- 11. 9 보건부장관에게 수입식품규제에 관한 질의
- 11. 25 서울여전도회관에서 임의협이 주최하는 2주년 기념식전에서 영산호싸움에 대한 강연
- 12. 1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핵발전소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강연
- 12. 8 광주 카톨릭센터에서 수돗물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강연

목포환경운동일지

1990년도

- 1. 7 환경부장관에게 쓰레기처리의 제도적개선에 관한 질의
- 1. 25 보사부장관에게 생수 및 쓰레기처리의 제도적개선에 관한 질의
- 2. 14 목포대 도립캠퍼스에서 핵과 환경주제로 강의
- 2. 16 라이온스회관에서 쓰레기처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제17회 시민토론의 광장
- 3. 8 라이온스회관에서 김기운사장에게 송덕패 전달
- 3. 30 무안군수에게 농촌마을의 바람직한 모습에 관한 질의
- 4. 17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해피해의 현황과 대책 주제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가
- 4. 20 전라남도지사에게 개발과 보전에 관한 질의
- 6. 5 시청회의실에서 제18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

- 6. 11 전라남도지사에게 골프장건설에 관한 질의
- 6. 29 라이온스회관에서 수도공사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제21회 시민토론의 광장
- 8. 11 여수 YMCA주체 남해사촌해수욕장에서 쾌적한 자연환경 청년이 만든다 주제로 강의
- 8. 17 목포문화원에서 생수의 내수판매를 금해야 하나 주제로 제22회 시민토론의 광장
- 8. 29 시청회의실에서 삼학도공원실태조사 발표회에 참가
- 9. 25 환경배움마당에서 공해추방운동 목포지역사례 주제로 강의
- 11. 2 해남농협에서 환경과 건강 주제로 강의
- 11. 6 대한의협회관에서 열리는 공해대책위원회 회의 참가

목포환경운동일지

1991년도

- 2. 1 광주시장에게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한 질의
- 3. 29 목포문화원에서 수질관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제23회 시민토론의 광장
- 4. 1 광주시장에게 영산강수질보전대책에 관한 질의
- 4. 2 목포문화원에서 영산강 수질보전대책은 주제로 제24회 시민토론의 광장
- 4. 24 환경처 광주지청장에게 전남서부권 수자원의 식수원 적합순위에 관한 질의
- 4. 29 환경처 장관에게 환경보전운동의 활성화에 대한 질의
- 5. 1 내무부장관에게 물관리의 근원적 대책에 관한 질의
- 6. 5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다 쓴 건전지를 모으자 내용의 홍보활동
- 6. 21 목포시장에게 연산동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에 관한 질의
- 6. 29 목포문화원에서 수입식품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제25회 시민토론의 광장
- 9. 9 전라남도가 주최하는 담양 성암자연학습장에서 환경오염과 자원절약주제로 강의

목포환경운동일지

1992년도

- 1. 7 목포문화원에서 올해의 호남인상 수상 축하연
- 1. 14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환경부, 보사부장관에게 식생활정책에 관한 질의
- 1. 24 인천 계산중앙감리교회에서 계양산 살리기 주제로 강연
- 1. 27 목포문화원에서 바람직한 잔치상차림의 관한 주제로 제26회 시민토론의 광장
- 4. 21 YMCA에서 시가 주최하는 생활속의 공해방지 주제로 강의
- 4. 28 남도환경보전연구소(박영종)가 주최하는 대불공단 환경보전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 6. 5 YMCA에서 제20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행사
- 6. 21 국무총리에게 식기검사에 관한 질의
- 9. 9 목포생활문화연구소 설립
- 9. 21 카톨릭회관에서 공해의 실상과 실천과제 주제로 강의
- 10. 24 서울송실대에서 기독교청년의료인회 주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주제로 강의

목포환경운동일지

1993년도

- 4. 23 강진농협에서 환경과 건강 주제로 강의
- 5. 14 광주은행에서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주제로 강의
- 6. 3 무안군수에게 승달산보전에 관한 질의
- 7. 6 광주YMCA에서 원자력과 지역사회발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 8. 10 담양 자연학술원에서 환경과 건강 주제로 강의
- 8. 12 담양 자연학술원에서 환경과 건강 주제로 강의
- 8. 17 담양 자연학술원에서 환경과 건강 주제로 강의
- 10. 22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SSD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주제의 심포지움 토론자로 참가
- 10. 28 목포문화원에서 쓰레기 합리적처리는 무엇인가 주제 제2회시민토론의 광장
- 11. 11 양호교사 보수과정교육에서 환경오염과 그 대책주제강의

목포환경운동일지

1994년도

- 2. 18 전북 나바위천주교회에서 환경은 곧 우리의 생명 주제 강의(민족의학)
- 3. 12 물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궐기대회
- 4. 7 담양교원연수원에서 환경보전주제강의
- 4. 22 전남공대에서 대한영양사 주최 식생활개선 주제강의
- 8. 16 민족의학 장두석선생이 주최하는 교육과정에서 환경은 곧 우리의 생명 주제강의
- 11. 14 환경과 건강 주제강의

목포환경운동일지

1995년도

- 4. 22 대불공단 그린공원에서 지구의 날 행사
- 4. 23 전남교육연수원에서 환경보전 주제강의
- 4. 28 지역환경관리체계 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 5. 9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음식업자 교육에서 음식쓰레기와 환경오염 주제강의
- 5. 18 자연환경운동과 시민의 역할 주제 강의
- 6. 19 초원호텔에서 목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회 개최
- 7. 29 충북신협에서 환경과 건강 주제 강의

목포환경운동일지

1996년도

- 5. 15 공공도서관에서 환경과 건강 주제강의
- 7. 7 사단법인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설립
- 10. 8 광주삼성생명호남총국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6기 120명에게 [무등산종합보전계획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강의
- 10. 11 구례군 섬진강호텔에서 섬진강권 물 연구소 창립준비모임 회원대상으로 [섬진강보전을 위한 나의 견해]로 기조강연
- 10. 14 목포카톨릭회관에서 [핵발전소건설과 에너지정책의 현주소] 주제로 토론자로 참석
- 10. 16 양동제일교회에서 성도 약40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1 목포시청에서 목포녹색연구회 주최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14 푸른전남21협의회 이사장으로 취임 (2001년1월29일까지)
- 11. 19 YMCA강당에서 좋은아버지모임 회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환경] 주제로 강연
- 11. 28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및 환경의사회 발대식에 토론자로 참석
- 11. 30 목포남경문화회관에서 제5회 영호남 문학인 대회에 목포환경이야기 강연
- 12. 5 목포시청회의실에서 목포대학교 연안환경연구소 주최 푸른목포만들기 토론자로 참석
- 12. 7 목포역광장에서 압해송공 원전건설반대 시군결의대회에서 연설
- 12. 23 영암군청회의실에서 영암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환경과 건강 강의
- 12월 환경과 건강 제1호 발행

- 1.20 서한태 김창용 김선주 신대운 이재인 김대중, 김종현, 박종길, 조상현 등 9명이 새해맞이 환경운동간담회에서 녹색연구회 김선주 회장의 발의로 녹색연구회 영산호 보존회 등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목포환경운동연합을 새롭게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음
- 2.3 서한태 김창용 김선주 신대운 이재인 김종현 최정삼 김일섭 박해균 이상훈 조상현 등이 목포환경운동연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에 이재인 김종현 이상훈 조상현을 선임하고 준비실무 일체를 위임함
- 3.6 초원관광호텔 소연회장에서 준비위원회 1차 모임을 갖고 정관(안) 사업계획서(안)등에 관해 토의하고 일부 문안을 수정함
- 3.16 청년모임 신안 압해면 송공리 핵발전소 건설예정 후보지 답사 및 반핵활동
- 3.27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로부터 목포환경운동연합추진위 승인을 받음
- 4.14 대만해폐기물 북한반입저지 목포해상캠페인 참가
- 5.10 북한 동포 돕기 성금 40만원을 북녘 동포 돕기 목포시민운동본부에 전달
- 5.18 5.18 정신계승 자전거 달리기대회 주최
- 5.28 제2회 바다의 날 기념 갯벌세미나 “전남지역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을 광주, 전남환경운동연합 등과 공동주최
- 5.31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 습지보전연대회의,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여수 여천 환경운동연합, 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공동성명발표
- 5.31 환경운동연합 상임집행위 회의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 6월중 창립대회를 정식인증받음.
- 6.19 목포환경운동연합 고문, 지도위원, 공동의장, 운영위원 간담회
- 6.24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대회
- 7.17 대양동 위생 광역매립장주변 주민농성과 관련 현장방문, 주민대표 면담
- 7.18 신안 압해 송공지역에 대한 핵발전소 건설 후보지 해제 촉구 성명 발표
- 7.25 목포MBC와 함께 “어린이 영산강 탐사”
- 7.27 청년모임, 민물생태기행 (장흥 탐진강 일대)
- 7.29~30 어린이 여름 환경캠프 “갯벌탐사”에 목포, 신안 초등학교 80여명 참가 (신안군 압해면 일대)
- 7.30 시내버스 요금인상 반대 성명 (목포YMCA, 목포YWCA, 목민협, 목포포럼, 전교조 목포 지회, 소비자연맹 목포지구오 공동)
- 8.12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안전성 질의(해양수산부장관, 해군참모총장)
- 8.15 사진모임, 야외촬영실습 (향토문화관, 월출산 일대)
- 8.19 회원 월례회 및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반대 결의문 채택

- 8.20~23 환경운동연합 전국 활동가 수련회 참가(충북 자연학습원)
- 8.26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영산강수문개방으로 목포항에 쓰레기가 대거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남지사에게 영산강 쓰레기 수거를 위한 시,군 관계기관, 환경단체간 회의 개최 협조 요청 공문발송.
- 8.26 목포시장에게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설치 관련 토론회 개최 요청 질의
- 9.19 주민의 제보를 받고 백련동 쓰레기 매립장 현장 방문
- 9.25 음식물쓰레기 의무감량화 대상 업소와의 간담회, 급식대상 학교, 호텔 관계자 목포시 관계공무원 등 약 20명 참석
- 9.25 도의회 소속위원들과 원전간담회(압해면사무소)
- 9.28 목포교도소 주변 남창천 오염 현장 답사
- 9.29 목포교도소내 환경관리 현황 및 남창천 오염에 관한 질의
- 10.24 함평만 “개발이나 보전이나” 토론회 개최.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과 공동
- 11.14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토론회 개최(청년모임 주최)
- 11.15 삼학도 살리기 인간띠잇기 행사 (약 500명 참가)

※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일지

- 2.21 목포과학대학강당에서 총학생회주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3.14 전남도청상황실에서 전남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참가)
- 3.14 대한의협회의실에서 환경공해대책위원회 주최 (위원으로 참가)
- 4.22 시청회의실에서 푸른목포21협의회 창립총회
- 4.25 진도군청회의실에서 주부21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대한 강의
- 5.28 전남의대강당에서 전남의대생들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6.18 양동제일교회에서 성도300명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6.22 목대송림문화회관에서 동목포청년회의소 주관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6.24 초원관광호텔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개최
- 7.4 초원관광호텔에서 푸른전남21주최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7.29 남경문화회관에서 푸른목포21주최로 [고하도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자로 참석
- 7월 환경과 건강 제2호 발행
- 8.13 대한의협회의실에서 환경공해대책위원회 참가
- 9.9 광주 삼성생명 호남총국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8기 약120명에게 [환경과건강]강의
- 10. 17 신협 광주연합회 강당에서 여성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주부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강연

- 11. 6 김제에서 [서해안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로 참석
- 11. 14 초원관광호텔에서 목포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유달산 고하도 케이블카 설치반대]행사에 참가
- 11. 14 목포시청회의실에서 푸른전남21주체로 인사말
- 11. 17 전남교원연수원에서 광주여성단체협의회주체로
[환경보전과 식생활개선]에 대해 강의
- 11. 18 순천팔마체육관에서 푸른전남21주체로 인사말
- 11. 21 나주시청회의실에서 푸른전남21주체로 인사말
- 11. 26 영암월출산관광호텔에서 여성지도자150명에게 [환경과건강]에 대한 강의
- 11 월 환경과 건강 제3호 발행
- 5. 2~5 닐 무어와의 봄철 2차 조류 조사
- 5. 18~20 닐 무어와의 봄철 3차 조류 조사

- 1.22 목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 2. 5 환경사진모임 「밖음이」사진강습 시작(4주)
- 3. 7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 및 겨울 수련회 참가 -서울
- 3. 13~14 부산 환경련 신입 활동가와의 만남
- 3. 17 환경련 산하 해양오염감시 센터 개소식
- 3. 29 생태기행 - 월출산 기암괴석
- 4. 1~7 전국환경련 신입 활동가 교육 참석
- 4. 2 전국환경련 5주년 행사 참가
- 4. 16 해남지역 철새 탐조
- 4. 17~20 닐 무어와의 봄철 1차 조류 조사
- 4. 19 지구의날 자전거 대행진
- 5. 2 「갯벌의 소중한과 철새이야기」슬라이드 상영
- 5. 3 생태기행 - 내장산 수목
- 6. 4 김탁 집행위원장 목포시의회의원 당선

- 6. 11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 수질 조사
- 6. 20 영산강 4단계 사업 백지화 요구 시위
- 6. 25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목포시민운동협의회 창립
- 6. 25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1주년 행사
- 7. 11~12 생태기행 - 탐진강 민물고기
- 7. 13 영산강 4단계 사업 백지화를 환영한다 - 성명서 발표
- 7. 13 전남자원봉사센터 환경보전반 지도, 운영
- 7. 24 영산강 환경 탐사 참가
- 7. 24~25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해양유물전시관 마당)
- 8. 1 제2회 국토종단 자전거대회 참가
- 8. 5 민관합동 수질검사 참가(목포시 상수도사업소)
- 8. 7 삼학도 복원화(공원화) 범시민추진위 회의 구성
- 8. 11~12 어린이, 청소년 갯벌탐사 -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 8. 18 회원 및 임원 단합대회(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 8. 23 생태기행 - 탐진강 민물고기(공공도서관 어머니, 어린이)
- 8. 28~9.1 가을철 도요 · 물떼새 탐사(함평, 무안, 신안, 해남)
- 9. 1. 축구단 “푸름이” 창단
- 9. 5. 유달산 나무 이름 달아주기 - 청년모임 주관
- 9. 8. 공공도서관에 캔 압축기 기증
- 9. 12 갯벌탐사 - 신안군, 압해면, 과학영재교실 60명
- 9. 19 유달산 생태기행 - 고교환경 감시단
- 9. 24~26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 참가
- 9. 24~27 날 무어와의 가을 2차 조류조사
- 10. 1 유달산 - 고하도간 케이블카 반대 성명서 발표
- 10. 9~10 환경운동연합 전국수련회 참가
- 10. 14 전남도 민간 환경 단체 대표자 간담회 참가
- 10. 18 생태기행 - 버섯 (장성 남창계곡)
- 10. 24 보행권 조례제정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의식 설문조사 실시
- 10. 25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체육 대회 참가
- 11. 3 해남핵발전소 반대 결의대회 참가
- 11. 7 목포시내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 11. 9 보행권 조례제정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1. 11 환경친화적인 서남권 개발 토론회 “서남권 관광 개발의 방향과 과제” 개최
- 11. 14 순천만 생태계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석
- 11. 19 서한태박사 교보환경문화대상 수상 축하연
- 12. 2~3 전국시민단체대회 참가(서울)
- 12. 10 전라남도 민간환경단체 대표자 간담회 참가
- 12. 16 고철환교수 강연회 및 목포환경운동연합 송년의밤 개최
- 12. 22~23 민간환경단체 및 관계공무원 환경시설 시찰 참가

※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일지

- 1. 17 영광군청회의실에서 제1회 푸른전남21 환경토론회 개최 [음식찌꺼기]에 대해 강연
- 2. 13 나주동신대학에서 제2회 푸른전남21환경토론회 개최[씻강살리기]에 대해 강연
- 3. 5 광양군청회의실에서 공무원12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해 강연
- 3. 24 삼성생명 호남총국 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 9기 [무등산이 살아야 영산강이 산다]라는 주제로 강의
- 4. 14 [환경과 건강 그리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의
- 4. 17 도청상황실에서 전남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총회 참가
- 4. 18 목포시 사회복지관에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8 목포제일여고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8 목포문화원에서 [남은 음식물 자원화] 주민토의 개최
- 5. 14 농협 진도군 지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환경문제]에 대한 강의
- 5. 28 대한의협 회의실에서 환경공해 대책회의 참가
- 5. 29 완도군청 회의실에서 푸른완도21주제로 [바다살리기]주제 강연
- 6. 2 해남여성회관에서 지역개발지도자를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6. 26 초원관광호텔에서 [지역의제21 어떻게 꾸릴것인가?] 주제로 강연
- 6월 환경과건강 제4호발행
- 7. 9 전남대강당에서 [영산강 섬진강유역의 역사와 환경교육] 토론자로 참석
- 8.13~14 전남교육청에서 교육공무원들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해 강의
- 9. 25 해남유스호스텔에서 지역의제 21의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 9. 29 MBC공개홀에서 케이블카 공청회 토론자로 참가
- 9월 환경과건강 제5호발행
- 10. 23 영암군립도서관에서 [지역의제21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11. 4 교육문화회관에서 영호남 지방의제21 공동평가회 좌장
- 11. 12 교보환경문화대상수상
- 11. 16 위로목회세미나에서 [자연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20 목포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숲과 목초액의 농협]의 관한 심포지움에 축사
- 12. 10 전남도청상황실에서 민간환경단체대표와 관계공무원 간담회 참가
- 12. 18 초원관광호텔에서 음식물 찌꺼기 처리방안 토론회 개최
- 12. 28 나주시청회의실에서 푸른나주 공청회 개최

목포환경운동일지

1999년도

- 1.6 널무어스의 갯벌 슬라이드 교육
- 1.11 우리고장 환경이야기
- 1.12 자원봉사센터 봉사학생 환경교육
- 1.23 유달산 생태계, 우리고장의 자연환경
- 1.26 LG빌딩교육실 99정기총회
- 1.27 신안군 갯벌 기초 조사참가
- 2.2 세계습지의 날 기념행상 및 강연
- 2.4 사진모임, 사진이론교육
- 2.6 한국종합화학 레드머드처리현장조사
- 3.9 세계물의날 행사
- 3.15 전남 서남권 갯벌 실태 자료조사
- 3.22 신입회원어울마당
- 3.28 봄나물과식물 (완도수목원기획)
- 4.10 문태고등학교 환경반 22명 환경강좌
- 4.14 압해종합고등학교 환경수업진행
- 4.22 지구의날 기념 삼학도 살리기자전거 대행진
- 4.25 우리꽃 우리풀 장흥제암산 생태기행
- 5.5~25 랍사회의 참가
- 5.13 목포상고환경자원봉사대 교육
- 5.30 우리민물고기 (탐진강기행)

- 6.4 환경의날 기념 나무이름달아주기
- 6.8 무안군영산강 골재채취 설명회 현장 프랑시위
- 6.15 창립2주년기념토론회
- 6.22 목포시 교통 문화지수 설문조사
- 7.13 영산강 골재 채취 반대시위
- 7.28 갯벌과 철새 이야기 목포공공도서관 교육
- 8.13~14 제2회 한여름밤의 환경영화제
- 9.3 나무 이름달아주기
- 9.18 보행권확보와 교통문화개선시민캠페인
- 9.27 목포기계공고 환경수업
- 10.1 진도군내중학교 환경생태소풍진행
- 10.16 보행환경조사 시내 차없는거리
- 10.18 녹색평론 발행인 김종철교수와 대화
- 10.19 목포상고 환경 교육
- 10.23 99우리와 함께 하는 유달산 어린이행사
- 10.30 환경사진전
- 11.6 목포여자중학교 갯벌수업, 삼학도정화 활동
- 11.8 1회 환경지킴이 교실
- 11.10 초당대 환경기술 연구소와 교류협정체결
- 11.22 서남권 갯벌보전 한-일 공동심포지움
- 11.22 일본 JAWAN 과 함께 서남권갯벌 한-일 공동조사
- 12.16 목포상고 환경수업
- 12.30 99 환경인의 밤

※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일지

- 1. 6 해남 실내체육관에서 해남군민들에게 [핵 저지운동의 의의]에 대한 강연
- 1. 7 목포문화원에서 초등학교 40명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 29 화순 군청회의실에서 [지역의제21 실천운동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주제로 환경토론회 개최
- 2. 2 신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환경단체 약250명 참가한 가운데 제4회 세계습지의날 기념행사에 참석
- 2. 19 목포문화원에서 [일회용품]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토론회개최
- 2. 23 무안 제2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올바른 환경의식과 농업]에 대한 강의
- 2. 25 해제 중앙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올바른 환경의식과 농업]에 대한 강의

- 3. 5 강진읍 사무소회의실에서 [지역의제21 실천운동 무엇으로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개최
- 3. 18 삼성생명 호남총국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11기 120명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3. 19 강진 군청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탐진댐대책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석상에서 특별강연
- 3. 20 대전시 평송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환경과 경제살리는] 토론회의 발표자로 참가
- 3. 22 여주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아름다운 여수 21,250명에게 기조연설
- 3. 26 도청회의실에서 푸른전남21협의회 제4차 정기총회 주관
- 3. 27 한국MS연구소 개소식에서 격려사
- 4. 22 함평 군민복지회관에서 약400명의 군민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교육
- 4. 28 담양 군민회관에서 제14회 푸른전남21환경 토론회 개최
- 4. 29 화순 온천에서 열린 민간환경단체대표와의 간담회 참석
- 5. 2 목포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100여명에게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
- 5. 6 함평 신협강당에서 제15회 푸른전남21환경 토론회 개최
- 5. 7 강진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탐진강살리기 강진군민결의대회에서 강연
- 5. 18 목포 공고에서 학생들에게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강의
- 5. 28 초원관광호텔에서 푸른전남21주관으로 제4회 바다의 날기념 환경토론회 개최
- 6. 8 초원관광호텔에서 푸른전남21주관으로 [바다살리기 네트워크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제17회 환경토론회 개최
- 6. 22 완도군여성회관에서 완도군민 및 주부교실회원대상으로 [제2건국 산·강·바다살리기]에 대한 강의
- 6. 24 보성군 북례 북부농협 회의실에서 푸른전남21주관으로 [주암호살리기 네트워크 어떻게 꾸릴 것인가?]에 제18회 환경토론회 개최
- 6. 29 신안군청회의실에서 푸른신안21협의회 창립총회 석상에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7. 7 군청회의실에서 주부 250명을 대상으로 [21세기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의
- 7. 10 목포기능대학에서 직장인 10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7. 24 대반동 해수욕장에서 약3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7. 28 목포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4H클럽 학생회원 120명대상으로 [환경가꾸기]에 대한 강의
- 7. 28 목포기능대학에서 교육생 10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7. 29 상동복지회관에서 초·중·고 학생3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8. 6 장흥군민회관에서 [탐진댐 수질에 아스팔트는 문제 없는가?] 주제로 제20회 푸른전남21 환경토론회 개최
- 9. 17 목포문화원에서 [지방의제21 실천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주제로 제21회 푸른전남21 환경토론회 개최

- 9. 28 삼성생명 호남총국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12기를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 7 동관리 사무소 회의실에서 동민 100명대상으로 [물은 자원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
- 10. 7 광주은행 본점 대회의실에서/주부 150명대상으로 [일회용품 없는 광주만들기]에 대한 강의
- 10. 15 여수시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시민단체, 공무원 150명 대상으로 아름다운 여수21이 주관하는 발표에 석상에서 기조연설
- 10. 28 신안 문화원에서 주부 5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3 해남 군여성회관에서 주부 70명대상으로 [갯벌과 습지 살리기]에 대한 강의
- 11. 8 목포 카톨릭회관에서 목포지역 신자 및 시민대상으로 [쾌적한 환경 건강한 삶]에 대해 강의
- 11. 22 나주대학교에서 푸른전남21 주선으로 영산강보전협의회 창립
- 11. 26 고흥종합문화회관에서 군민 20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2. 2 광양시청상황실에서 푸른광양21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의 환경교육]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 12. 4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300명대상으로 푸른전남21의 시범사례발표
- 12. 9 목포대학교수회관에서 연안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국제해양생태도시 조성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 12. 13 신안군청회의실에서 군민 7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2. 22 화순 온천에서 환경단체 60명을 대상으로 민간환경단체 대표자와의 워크숍에 참가
- 12월 환경과 건강 제7호 발간

• 행사

- 1. 18 제4차 정기총회
- 2 월 환경사진모임 밝음이 회원 사진 강좌
- 2. 10 음식물 찌꺼기 처리 선진지 견학 - 강동구,성남시,남양주군
- 3. 22 물의날 기자회견 및 나주시 부시장 면담 나주시청, 매립예정지
- 4. 18 환경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호프, 카이저호프
- 4. 22 “지구의날 2000”자전거대행진 (목포역-대반동-유달산일대)

- 5. 26 영산강 환경캠페인 초당대 환경기술 연구소 공동주최- 몽탄 영산강변 일대
 - 6. 9 슬러지 소각장 설치 예정에 따른 주민 좌담회
 - 6. 12 서한태박사 동백장 수상 축하 강연회
 - 6. 15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의 다양한 적용사례 강연회
 - 7. 24~26 어린이 환경 캠프(1차)- ‘갯벌에는 무엇이 살까’ 신안 신의도
 - 8. 8~9 제3회 한여름밤의 환경 영화제
 - 8. 21 “광주·전남시도민은 핵폐기물 처리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 광주카톨릭회관
 - 8. 12~14 어린이 환경캠프(2차)- ‘나무야,나무야 누워서 자거라’ 광주 임곡
 - 9. 4 설악산과 산양을 위한 슬라이드 강연회 - 박그림 설악녹색연합대표
 - 9. 20 목포지역 교통문화지수 발표
 - 10. 31 시내버스요금 인하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
 - 10.14~17 야생화 환경 사진전 개최
 - 11. 5 영산호,금호호,고천암호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
 - 11. 14 2000교통문화지수 결과에 대한 간담회- 목포시,경찰서 등 시민단체 참가
- 교 육
- 4~5월 청소년주말 철새학교 - 목포상고,유달중,청호중,목포공업고,목여중,문태중
 - 7. 19 습지와 철새 체험교육- 목포여중 함평돌머리 갯벌생태교육장
 - 7. 28 목포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어린이 환경교육
 - 8. 1 갯벌생태교육- 나주성당 중고등부 압해도 가룡리
 - 8. 5 갯벌생태교육- 광주 두암동 성당 중고등부, 압해도 가룡리
 - 11. 15 목포YWCA청소년 환경교육- 갯벌과 철새기행 해남 산이면 일대
 - 11.21~22 지역환경이야기 강의 목포기계공고
청소년주말철새학교(2차)- 마리아회고
- 생태교육
- 2. 26 겨울철새를 찾아서- 해남간척지 일대
 - 3. 26 봄나물캐기,유달산 어민동산
 - 5. 28 숲과 나무, 완도 수목원
 - 7. 23 민물고기를 찾아서 장흥 탐진강

• 조사활동

- 5. 4 민관합동 수질조사
- 5. 18 유당농산 축산 폐수 현장방문 조사, 무안군
- 5. 29 한국일보팀과 공동으로 영산강, 해남일대 간척지 동행 취재
- 6.20~21 교통문화지수 측정 조사-환경연합,경실련,교통문화개혁
- 7. 4 한국해양연구소-갯벌조사 워크숍 참가
- 7. 9 갯벌철새조사- 무안,압해도 일대(박종기,이정식팀 공동)
- 8. 28 산림청과 공동으로 신안군 임도 조사
- 8. 30 임자도 현지조사, KBS환경스페셜
- 8월 1회 해양폐기물 모니터링(1차-5차)무안군 일로 청호리 일대
- 11.17~22 제1차 갯벌생태지도 제작을 위한 갯벌 조사
- 12. 2~6 제2차 갯벌생태지도 제작을 위한 갯벌 조사

• 구정리 산림훼손 특위

- 8. 24 제7차 상임위에서 특위구성 결의
- 8. 30 구정리 산64번지 산림훼손에 관한 질의서 발송
- 9. 14 무안군 1차 답변-무성의한 답변이어서 전화로 다시 요구
- 9. 19 무안군 2차답변-절차상 문제없다는 답변
- 9. 23 무안 구정리 현장 방문
- 10. 17 난개발에 관한 KBS라디오 인터뷰
- 10. 18 기자회견 1,2차 성명서 발표
- 10. 23 무안부군수 환경연합 사과 방문
- 10. 24 무안군 사과 및 환경오염 방지약속에 관한 공문 접수
- 10. 30 이산리 골재채취 현장방문 채취선 탐승,기술부장에게 오염사실 확인
- 11.10~28 무안군수-환경연합 간담회 요청공문 발송 및 간담회

• 유달산지킴이 범시민대책본부

- 2. 29 일주도로 착공식
- 2. 22 유달산 해변도로 특별위원회 구성
- 3. 25 목포시에 5가지 요구사항
- 4. 1 유달산 해변도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6개단체
- 5. 4 주민,환경단체,시청간담회 개최
- 5. 25 대책위 성명서 발표

- 5. 29 유달산지키키 범시민 대책본부로 확대(14개단체)
- 6. 3 대책본부 현수막 검인 불가 통보 - 항의전화
- 6. 5 목포시장 면담, 목포역광장 제1차 꺾기대회
- 6. 12 목포역 대책본부 상황실 설치 - 서명운동 시작
- 6. 13 서울 KBS유달산 촬영
- 6. 17 제2차 꺾기대회- 2000환경미술제 개최
- 6. 19 목포시의회 의장 면담 - 목포시의회 의원과 간담회 청원
- 6. 19 제3차 꺾기대회 - 시청앞 상여놀이 및 퍼포먼스
- 6. 19 오후 6시55분 KBS시청자칼럼(유달산도로확장공사 문제점 방영)
- 6. 22 목포시의회 의원- 대책본부 간담회
- 6. 27 제4차 유달산지키키 차량투어 - 19개단체(목포대송림캠퍼스~후레쉬마트)
- 6. 28 목포시의회 현장방문 및 권고안 제출
- 7. 14 목포경찰서 진정서 제출
- 7. 20 부시장 대책본부 방문
- 7. 7~31 유달산 1-5차 협의회 합의안 공식 발표

• 연대활동

- 목포시민단체연대
- 보행권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녹색교통운동)
- 유달산지키키범시민대책본부(18개시민단체 참여)
- 환경연합 전국 회원대회(7.1-2, 새만금 원광수련원)
- 목포 도예 엑스포 참관단 활동(9.28-29)
- 에너지절약전남연대 창립(10.10)

※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일지

- 1. 6 푸른전남21주관으로 지방의제21중점사업에 대한 환경토론회 개최
- 3. 8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지방의제21활성화를 위한 국제지자체 심포지엄에 참가
- 3. 11 장성한국MS연구소에서 열린 제1회 MS회원대회 및 환경농업 심포지엄에 참가
- 3. 15 도문화환경국장실에서 푸른전남21협의회의 제14차 이사회 참석
- 3. 17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열린 목포항 해양환경보존을 위한 지역협의회에 참가
- 3. 22 광양근로자복지회관에서 푸른광양21주관으로 열린 [물과 건강]에 대한 강의
- 3. 29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푸른전남21협의회 정기총회에 참가

- 4. 21 남경문화회관에서 지구의 날 기념 시민환경토론회 개최
- 4. 22 지방의제21특수사례발표회에서 지방의제21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발표
- 5. 3 해양수산기술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어업인77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수산업]에 대한 강의
- 5. 25 해남유스호스텔에서 푸른전남21주관 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6. 5 서한태 이사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 6. 12 카톨릭회관에서 시민 200명 참가한 가운데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기념 강연회
- 6. 14 신안비치호텔에서 자연보호 중앙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21세기 자연보호 운동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 6. 16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제21 전국 협의회 창립총회에 참가
- 6. 22 도청회의실에서 물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
- 6. 24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국제와이즈맨 협회 행사에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연
- 6. 29 강진마량귀빈회집에서 푸른전남21협의회 해양환경분과 월례회에 참가
- 6월 환경과 건강 제8호 발간
- 7. 21 초원관광호텔에서 푸른전남21이 주관하는 수질분과위원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 7. 24 안산경실련에 주관하는 환경교육 지도자 연수에서 지역의제21의 실천과제에 대한 특강
- 8. 3 장흥군 천지파크모텔에서 푸른전남21협의회 폐기물분과위원회 간담회 참가
- 8. 24 월출관광농원에서 5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농촌지도자협회주관)
- 9. 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대통령자문위원 위촉(2002년9월19일까지)
- 9. 2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가
- 10. 5 남제주군청에서 남제주군민을 대상으로 [자연보호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의
- 10. 20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수자원분과위원회에 참가
- 10. 2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생태보건분과위원회에 참가
- 11. 17 국립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린 바다가꾸기실천운동 전남서남권시민연합 창립행사에 참가
- 11. 23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 전라남도 지방의제21평가와 계획 워크숍에 참가
- 11. 28 신안문화원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2. 26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에 참가
- 12. 27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수자원분과위원회에 참가
- 12월말 환경과 건강 제9호 발간

- 1.07 광주대학생 탐사단 지역 갯벌방문
- 1.16 5차 정기총회
- 2.02 '세계습지의 날' 행사-생태기행 : 해남우항리 공룡화석지(학생30여명)
- 2.12 유달산 대책본부 회의
- 2.17 NGO학술 토론회-목포대사회과학연구소(오후2시 목포대 교수회관 2층)
- 2.23 환경연합 전국대의원대회(서울)
- 2.24~26 겨울 활동가 수련회
- 3.1~2 신안 비금, 도초, 우이도 모래언덕 조사(석동일, 대전KBS팀 공동)
- 3.3-4 전국습지연대회의참가(서산, 천수만, 안면도 사구방문)
- 3.15 바다모래지킴이 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강연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초원관광호텔 2층 크리스탈 룸)
- 3.16 해남화원 골프장 관련 현장조사 활동
- 3.18 목포투데이-유달산 일주도로에 관한 입장 기고
- 3.22 '세계 물의 날' 을 맞아 환경 입장 발표
- 3.27~28 자동차, 경유차량 매연단속-이재인, 신청은
- 3.26~4.2 전국 신입활동가수련회-서성철
- 4.05 생태기행-4월일 식목일기념 '장흥 천관산 휴향림을 찾아서...'
- 4.21 제32회 지구의 날 기념식 및 자전거 대행진-(2시, 목포역 광장)
- 4.23~24 신안 우이도 모래사구 현장조사(MBC 2580팀과 공동)
- 4.29 NO골프데이
- 5.02 조사위원회-유달산 달성사 현장답사
- 5.09 신안군수 면담-신안군 모채채취관련
- 5.11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 대책본부-공생원 공사구간 사업설명회, 현장방문
- 5.12~13 광주전남 활동가 수련회-여수환경연합
- 5.19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 대책본부-공생원 구간 현장방문
- 5.23 유달산 지키기 범시민 대책본부 긴급 회의소집
- 5.26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청호리일대
- 5.26 해양폐기물 정화활동-목포 여객선 터미널일대
- 5.31 해양폐기물 전시회
- 5.31 새만금갯벌 천만인 서명운동전개

- 6.02 생태기행-탐진강 민물고기 탐사(문태고25명)-김경완사무국장
- 6.02 나무이름 달아주기-녹생연구회(양을산)
- 6.05 세계 환경의 날
새만금 갯벌살리기 1000만인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문화예술회관일대
- 6.06 함평만 갯벌현장교육 지도(호남YWCA):김경완 사무국장
- 6.14 광주역 농성참가(새만금 갯벌살리기)
- 6.17 사막화 방지의 날
- 6.22 환경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차집
- 6.24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4주년
- 7.06 광주·전남 시민단체연대회의 : NGO학교 (새만금)
- 7.07~08 환경운동연합 전국회원대회-해창갯벌 (새만금간척지구 일대)
- 7.10 광주·전남 새만금대책위원회- 새만금 백지화를 위한 집회(광주역 농성장)
- 7.11 음식물 20% 감량 교육 및 모니터링 시작(2개월)
- 7.14 새만금 갯벌살리기 천만인 서명운동
- 7.17 생태기행-영암 월출사 도갑사 계곡 일대:“나비의 일생을 찾아서”
- 7.20 바다모래채취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간담회 : 목포해양수산청 회의실
- 7.21 새만금 갯벌살리기 서명운동
- 7.25 시·도 통합 철회를 위한 도민협의회 모임-목포시의회
- 7.26 목포공공도서관 ‘우리고장 환경이야기’ 환경교육
- 7.29~8.1 제5회 어린이 여름갯벌캠프
- 8.02-03 시내공공장소 실내온도조사- 목포에너지시민연대
- 8.06 KBS 라디오 인터뷰:물부족, 댐이 대안은 아니다
쓰시협 음식물자원화 11개 아파트 모니터링
- 8.09 조, 중, 동 절독운동 광주전남 투어단 목포방문 및 간담회
- 8.10 통일연대 기자회견- ‘조선일보 구독 거부에 돌입하며’
쓰시협과 11개 아파트 대표 간담회
한 여름밤의 환경영화제- ‘이웃집 토토로, 갯벌은 살아있다, 위대한 강’
- 8.13 실내온도 조사결과 발표 - 목포에너지시민연대
- 8.15 장흥 두봉산업 감염성폐기물 무단처리현장- 장흥환경연합과 공동현지조사
- 8.17 에너지절약- 안티 에어컨 캠페인
- 8.27~30 일본습지전문가 - 전국습지연대회의 공동 목포, 신안, 무안, 함평 갯벌조사
국제심포지움

- 9.02 5 대강 프로젝트 관련 전국활동가 워크숍(군산)
- 9.04 목포지역 환경단체 간담회(시청)
- 9.05~06 환경예산감시 워크숍(대전)
- 9.15 2001전국 바다 대청소 및 해양폐기물 모니터(청호리 일대)
- 9.15~16 전국 임원수련회(지리산 실상사)
- 9.20 영산강, 주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성명서 발표(광주. 전남지역환경단체)와 영산강환경관리청 국감현장 방문
- 9.26 쓰시협 음식물위원회 회의(서울)
- 9.28 쓰레기없는 추석만들기 캠페인 전개(대한통운마트)
- 10.01~03 즐거운 한가위, 쓰레기없는 한가위
- 10.08 영산강 철새탐조(이정식 자문위원 외1)
- 10.12~13 2001전국활동가대회와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남해)
- 10.15~17 환경예산감시 워크숍(제주)
- 10.20~21 목포시민단체연대 워크숍(나주노안수련원)
- 10.25 지도위원, 자문위원단 간담회(한국회관)
- 10.27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청호리 일대
- 11.10~11 삼학도 문화제전-생태기행
- 11.11 습지연대회의
- 11.12 영산강 일대 폐그물 철거에 대한 간담회

※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일지

- 1. 16 서울코엑스에서 환경부후원으로 열린 2001새출발 환경련모임에 참가
- 1. 18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새만금 사업관련 합동회의 국토보전분과와 수자원 분과에 참가
- 1. 29 도청회의실에서 푸른전남21협의회 제6차 정기총회개최
- 1. 31 초원관광호텔에서 제1회 환경과건강강좌 석상에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2. 2 롯데호텔에서 재경 목중 · 고동창회 자랑스런 목중 · 고인 수상
- 2. 2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물관리체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 3. 9 푸른전남21협의회 사무국에서 제16차 이사회 참석
- 3. 1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분과위원회와 국토보전분과위원회 합동회의참가
- 3. 20 북구일곡도서관에서 시민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환경위기 어디까지 왔나?]에 대한 강의

- 3. 21 청와대에서 약200명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정부 3주년을 기념하는 대통령자문 위원 초청 만찬에 참가
- 3. 29 삼성생명 호남총국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13기 130명대상으로 [무등산이 살아야 영산강이 산다“] 주제로 강의
- 3. 29 광주YMCA에서 광주전남녹색연합이 주체하는 [수돗물불소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토론회 참석
- 3. 30 목포상공회의소에서 바·실·련이 주체하는 바다오염을 심화시키는 유처리제 사용을 중지하라는 결의대회에 참가
- 4. 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본 회의에 참가
- 4. 20 암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7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4. 20 상공회의소 3층에서 시민20명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강의
- 4. 22 노인회관에서 100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4. 24 연동음식점에서 영양사 15명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강의
- 4. 27 목포기능대학에서 자활근로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사람]에 대한 강의
- 4. 28 제일중학교에서 학생35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1 보현정사에서 신도 1200명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5. 3 신의면 사무소에서 주민100여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 강의
- 5. 7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에 참가
- 5. 8 압해도에서 주부대학8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강의
- 5. 11 자은도 면사무소에서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14 프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새만금사업 평가회의에 참가
- 5. 16 육군목포대대정신교육관에서 장병6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17 하의면에서 주민6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21 비금면에서 주민8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23 신안비치호텔에서 바·실·련 이사회 참가
- 5. 25 목포상공회의소에서 대학생 70명에게 21세기 [환경정책]에 대한 강의
- 5. 28 환경운동연합 농성장에서 새만금 평가 문서변조 등 새만금사업강행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가
- 5. 30 육군96년대본부 연대본부 교회 장병100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6. 1 도초면에서 주민7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6. 2 광주 우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 약20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6. 5 광양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시민 70명 대상으로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강의

- 6. 8 연산초등학교에서 학부모 100명대상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6. 8 해양유물전시관에서 바다문화학교 120명에게 [명산보존과 인간의 삶]에 대한 강의
- 6. 12 광주전남녹색연합 강당에서 열린 수돗물 불소화 반대 광주·전남시도민 연대 결성 석상에서 연설
- 6. 12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새만금평가에 대한 간담회에 참가
- 6. 14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수돗물 불소화 반대 2001전국대회에서 인사말
- 7. 5 월출산 관광호텔에서 열리는 푸른전남21협의회 토론회 참가
- 7. 13 순천여고 강당에서 400명학생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8. 9 전남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초중등교원 40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7. 26 상동종합사회복지관 학생 2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8. 2 상동종합복지관에서 주민 2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8. 12 지산부대강당에서 예비군 3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8. 23 완도청소년 훈련원에서 군민45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8. 30 영광전력문화원에서 영광새마을 환경감시원 100여명대상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8. 31 죽전마을 정자에서 주민120명 참가 감돈저수지 정화사업 설명회에서 주제발표
- 9. 5 전주시 코아호텔에서 열린 제3회 지방의제21 전국대회에 참가
- 9. 6 영진택시 회의실에서 사랑심은 환경봉사 대원들에게 환경일반에 대한 강의
- 9. 13 교보생명에서 교보환경문화상 환경운동분야 심사에 참가
- 9. 19 부대정신교육관에서 목포대대장정120명에게 [물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강의
- 9. 20 노송정마을에서 주민 35명을 대상으로 [건강비결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9. 21 영광푸른어린이집에서 주부40명대상으로 [환경호르몬과 식생활]에 대한 강의
- 9월 환경과 건강 10호 발행
- 10. 5 육군기계화학 학교에서 300명 장정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 9 삼성생명 호남총괄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14기 120명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 19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에서 개최된 제1회 식생활 좌담회에서 [식생활개선 운동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10. 23 목포해역방어사령부에서 군장병10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 25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에서 열린 제2회 식생활좌담회에서 [식생활개선 운동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11. 1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에서 열린제3회 식생활 좌담회에서 [식생활개선 운동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11. 2 부대정신교육관에서 육군무안대대 군인12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13 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회원 약4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23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환경과 건강 강좌실시
- 11. 26 장산면에서 주민6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27 전남제일고등학교에서 학생5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 강의
- 11. 28 팔금복지회관에서 주민 65명을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28 안좌면사무소에서 주민 8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30 장흥대덕종합고에서 학생10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2. 6 목포상공회의소에서 시민80명을 대상으로 제4회 [환경과 건강]강좌실시
- 12. 7 흑산면사무소에서 주민5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2. 11 임자면에서 주민7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12. 13 상동사회복지회관에서 주부3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12. 19 육군완도대대 군인12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2. 20 월출산온천관광호텔에서 해양수산부 직원 약70명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1.10 목포교도소 폐수 무단방류현장조사
- 1.11 제6차 정기총회 (상공회의소)
- 1.14 영산강 특별법관련 집회
- 1.16 상임위원회의
- 1.18 녹색자치 위원회 워크숍
- 1.21 환경예산감시 워크숍
- 1.25 무안군 구정리 매립장 침출수 유출현장조사
- 2. 3 새만금간척지 현장방문
- 2. 6 광주전남녹색자치 위원회준비모임
- 2. 7 영산강 주암호 특별법관련 간담회
- 2. 8 환경연합 고문 -상임위원 간담회
- 2.15 부시방한 반대 목포지역 통일 연대 대표자회의 및 기자회견
- 2.16 부시방한 반대집회

- 2.21 신입회원 만남의 날
- 2.22 광주전남녹색자치위원회 워크숍
- 2.23 전국대의원 총회 및 활동가 수련회
- 2.25 대의원 대회 및 활동가 수련회
- 3. 7 정책위원회의
- 3. 8 상임위원회 워크숍
- 3. 9 전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워크숍
- 3.11 유달산 대책위모임
- 3.13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 운동협의회 회의
- 3.16 조사위원회의 및 현장방문
- 3.17 무안습지보전지역 방문
- 3.22 상임위원회의, 탐진담 인공섬 반대 성명서 발표
- 3.24 장흥탐진담 건설현장기행
- 3.26 지도자문위원간담회, 환경 예산감시워크숍
- 3.29 사랑심은 교통봉사대 좌담회
- 4. 1 목포지역 통일연대 기자회견참석
- 4. 2 상임·지도·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 4. 3 긴급상임위원 회의 - 녹색 자치후보관련
- 4. 5 “식목일기념” : 유달산야생화 꽃 심기
- 4. 7 녹자위 전진대회 참석 ‘서울’
- 4.10 진도해폐기장 주천문제에 대한 진도 주민 여론 조사
- 4.11 해폐기물 처리장 관련 주민 간담회참석
- 4.12 녹자위 관련 긴급간담회 쓰시협 사업 모니터
- 4.13 보행권네트워크 워크숍, 습지연대회의
- 4.17 해폐기장 관련 전남지역 대책위 모임
- 4.18 환경담당검사 미팅 및 조사위원회의
- 4.19 유달산 대책위 모임
- 4.20 지구의 날 자전거 대행진 및 회원확대운동
- 4.22 지구의날 기념식 목포시와 공동주관-정화활동진행, 녹자위간담회
- 4.23 바다모래 채취현장 감시 및 조사, 쓰시협 회의
- 4.27 임성초등학교 앞 하천 정비
- 4.28 소모임 환경사랑 들풀-주말 농장 개장식

- 5. 6 목포KBS와 바다모래채취의 문제점과 대책 인터뷰
환경사진 모임 밝음이 공동의장단과 간담회
- 5. 8 환경부장관목포방문- 목포환경운동연합 고문과 관계자 간담회
해폐기장반대 호남지역대책위원회의-천용택 민주당 전남도지구당 위원장면담
- 5.12 목포MBC와 공동 목포지역 폐선현황과 처리대책에 관한 현장방문과 취재협조
- 5.13 목포KBS와 지구온난화 에 관한 인터뷰
신안군 바다모래 불법채취현장 감시활동 전개
동양환경 사업장 민원발생 -소각문제: 현장조사
- 5.14 목포시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기술심의 위원회참가
목포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참관
- 5.15 상임위원회-사무실
- 5.16 사무국중간감사 -회계 사업 부문
- 5.17 환경연합/목포KYC공동-녹색자치 지원 지지후보 기자회견
목포행사위원회-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 5.18 5.18민중항쟁기념행사
바다모래 불법채취 현장 감시 참여 -정일현 공동의장
- 5.20 녹색자치특별위원회 및 구선
- 5.21 녹색자치위원회 파견-서성철 간사
- 5.23 쓰시협-음식업 중앙회와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
- 5.25 석동일 선생 바다의 날 기념- 환경슬라이드 강연회(목포여고생)
- 6.13 지방선거녹자위
- 6.14 주부모임(준)-5주년행사준비
- 6.17 조사위원회의
- 6.18 상인위원회의
- 6.19 주부모임(준)-5주년행사준비
- 6.20 환경홍보관 설치협의를 위한 회의
- 6.23 회원한마당 -창립5주년(하당평화광장)
- 6.25 영산강내 모래채취 고발장 접수(광주지검)
- 6.26 창립5주년기념 (무안습지보호지역 및 영광친산도 노랑 부리백로가락지부착사업)
- 6.27 창립5주년 기념 토론회 -목포지역 환경운동의 역사와 과제
- 7. 2 신안 모래 채취 인터뷰
- 7. 3 음식물 심의위원회의 쓰시협 회의

- 7. 4 환경부프로젝트 중간점검 - 환경부직원사무실 방문
창립5주년 기념 기자회견
대형마트 일회용봉투실태조사(4개)
- 7. 5 전남지역 핵발전소, 핵폐기장과 관련한 광주지역 제단체 간담회
생협에관한 교육
- 7. 6 전남지역 연대 간담회 -장흥 환경연합
- 7. 8 갯벌캠프 소개 인터뷰- 목포KBS
- 7.11 환경홍보관 개관식 참여 - 공동의장 사무국장
목포시민단체연대 개소식참여
- 7.13 전국 회원대회 참석 - 충북 음성
- 7.20 어린이 여름갯벌캠프 현장답사 - 압해도
- 7.22 전라남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성명서 발표
- 7.23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상임, 고문, 지도 자문위원 상반기 간담회
- 7.25 제6회 어린이 여름 갯벌 캠프 - 압해도
- 7.29 쓰시협교육- 왜 음식물 찌꺼기 자원화인가?
- 7.30 핵폐기장 관련 군수, 군의원 간담회 - 비핵화 선언을 문서화
- 8. 3 조사위원활동-동양환경 : 소각장. 화약저장고 시설, 목포시 화장장 현장조사
- 8.13 리우+10 준비회의
- 8.14 사무국장단회의
- 8.17 환경영화제 상영 및 부대 행사
(책전시, 치자물들이기, 회원확대운동, 생협물품 판매 등)
- 9. 2 대형마트 일회용봉투 사용 실태 모니터링
- 9. 3 영산강 골재채취 현장조사
- 9. 4 교통문화지수 조사
- 9. 5 목포시장 환경단체 초청 간담회
연안관리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참석
대형마트 일회용 봉투사용 실태 모니터링
- 9.12 신안 자은도 모래 채취로 인한 해안유실 실태 조사
“목포 무안 광역소각 시설 추진”에 대한 제안서 제출
- 9.13 대형마트일회용봉투사용실태 결과 발표
- 9.14 환경교육 실시 -목여중
- 9.16 신계륜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 송부(바다모래채취관련)

- 9.17 목포시 환경현안에 관한 간담회참석
목포시 바른 예산수립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회의
- 9.23 무안 군부대 환경 강의, 상임위원회 조찬 간담회
- 9.25 에너지 조례제정 토론회 및 실무자 협의회 참석 (부산)
- 9.26 목포시 바른 예산수립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 9.27 목포상공회의소 바다골재 채취 불허 철회건의에 대한 성명서발표
- 9.28 습지체험교육 - 영화중학교 80명 대상
- 9.29 EBS방송 신안 ,영산강내 폐그물 현황 취재
- 10.3 회원 체육 대회개최
- 10.5 광주 전남 활동가 수련회
- 10.7 목포시 바른 예산수립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워크숍
- 10.8 32차 상임위원회의
- 10.9 환경 교육 실시 -신안군 임자면 일대
- 10.10 서울쓰시협 워크샵 참석
- 10.15 환경예습 감시 워크숍
- 10.16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캠페인
- 10.20 내장산 숲 생태기행
- 10.21 바다모래채취중단인터뷰 바다모래지키기 대책위원회
- 10.22 전남도 에너지 조례제정을 위한 토론회-대성신희
자연생태마을 현장조사 (외달도)
- 10.23 목포시 바른 예산수립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기자회견
- 10.24 목포지방해양수산청방문
목포해양경찰서 방문-불법사례 실태 적극협조 요구
- 10.25 사무총장선출관련 토론회참석
조사위원회의
- 10.28 서남해역해양환경영향조사 관계자회의
- 10.29 환경교육(신안군 안좌 팔금)
- 11.5 목포시민네트워크 회의
- 11.8~10 밝음이 환경 사진전 -“강은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 11.8~9 소음도 설문조사
- 11.9 회원확대운동 마감
- 11.9~10 환경운동연합 전국 임원 수련회
- 11.13 목포시민이 찾아 나선 쓰레기 추적 기행

- 11.14 녹색교통설문조사
- 11.16~17 전남활동가 수련회
- 11.18 광주지검 목포지청 영산강 골재 관련 진정서접수
- 12.3 시민 예산 네트워크 기자회견
무인도서관리방안에 대한전략회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공동
- 12.4~6 예산 감시네트워크 목포시의회 상임위 모니터 실시
- 12.9 해남군 영암호 골재채취관련 목포KBS라디오 인터뷰
- 12.12 시민예산 네트워크 기자회견-예결위 방청거부
- 12.17 완도해폐기장 반대 대책위 구성에 지원 참여
- 12.19 상임위원회의 -총회안건 최종상정
- 12.27 환경 10대뉴스 관련 목포KBS 라디오 인터뷰
- 12.28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겨울 철새기행 -강진만 해남고천암
- 12.30 목포쓰시협 송년회

※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일지

- 1. 29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사무실에서 제7차 사단법인 환경과 건강 연구소 정기총회 개최
- 2. 28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에서 아파트자치연합회와 간담회에서
[식생활개선방향]에 대한 강의
- 3. 5 행복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3. 8 해남화원농업강당에서 주민 60세 이상 8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 강의
- 3. 12 행복노인복지회관에서 주민 대상으로 [화학조미료와 가공식품]에 대한 강의
- 3. 19 행복노인복지회관에서 주민 대상으로 [대기와 물]에 대한 강의
- 3. 19 광양환경운동연합 강의실에서 광양시민대상 [식생활개선과 환경 건강]에 대한 강의
- 3. 20 여수시청광장에서 열리는 2010세계박람회유치 지지를 위한 전남 경남지역의
제21 및 시민환경단체에서 인사말
- 3. 22 삼성생명호남총국 무등산사랑환경대학 100여명대상으로
[좋은환경과 건강한 삶]에 대한 강의
- 3. 23 광주서구문화회관에서 광주를 녹색도시로 조진상교수의 출판기념회 참석
- 3. 26 행복노인복지회관에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 방안]에 관한 강의
- 3. 28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100명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3. 28 동원예식장에서 두레아카데미 창립총회 인사말
- 4. 2 정신교육관에서 육군나주대대 장병80명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4. 5 영산강환경관리청회의실에서 관계기관70명대상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토론회 좌담
- 4. 9 수원건강센터사무실에서 백정희여사와의 대담
- 4. 24 육군강진부대강당에서 병사 약80명 대상 [환경과 건강]에 관한 강의
- 4. 24 도청회의실에서 열리는 2002년 국비지원대상회의에 참가
- 5. 1 장흥라이온스클럽회관에서 여성 20명 대상으로 [식생활개선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5. 14 장흥군민회관에서 열린 500명 주민대상으로 송재구 저자와의 대화에 참가
- 5. 16 정신교육관에서 육군 8332부대 장정 300명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17 해남북평농협에서 주민 8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 18 김명자장관을 모시고 고천암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에 참석
- 5. 19 보현정사강당에서 신도 약1000명을 대상으로 [인간생명과 환경호르몬]에 대한 강의
- 5. 24 전주코아호텔에 의제21회원150명이 모인 시.군별 지방의제21특성화 워크샵에서 인사말
- 5. 30 목포해양대학에서 학생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열린 제7회 바다의 날 심포지엄 토론자로 참가
- 5월 환경과 건강 제 11호 발행
- 7.18 광양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전략에 대한 정책포럼에 참가
- 7.22 전남도청에서 도의장 및 도지사 면담
- 7.23 해송일식 식당에서 열린 음식문화개선에 따른 좌담회 참가
- 7.23 대성신협3층 50명대상 폐선부지활용방안에 따른 토론자 참가
- 8. 8 구례화염사에서 82명의 회원이 모여 전남 생활계획협의회 창립총회 개최
- 8.26 하당YWCA강당에서 주부20명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9.12 광주살레시오 초등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30명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9.12 삼성생명 호남총국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16기 12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9.17 목포시청상황실 시민 40명 대상으로 [쓰레기문제 개선점은 없는가?] 토론회 개최
- 9.25 초원호텔에서 시민100명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운동]에 대해서 강의
- 9.26 서남방송에서 시민100명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가
- 10. 7 지도초등학교에서 학생 17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 7 지도 지명중학교에서 학생 13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 8 진도읍사무소에서 진도건강사랑회원 80명을 대상으로 [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0.10 해남유스호스텔에서 전남생활개혁협의회 회원 70명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강의
- 10.14 자은초등학교에서 학생 100명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14 자은중학교에서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15 금호리조트에서 광주전남 환경교육 홍보강사 4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5분 스피치
- 10.22 초당대학교 발전자문위원회에 참가
- 10.22 초원관광호텔에서 목중고동창회 간부를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5분 스피치
- 10.22 솔식당에서 종친회 회원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해 강의
- 10.22 초원관광호텔에서 청호라이온스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1. 7 압해 동초등학교에서 학생7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7 압해 중앙초등학교에서 학생19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 7 압해종합고등학교에서 학생20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12 동원예식장에서 두레아카데미회원 2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1.13 송정리 공군부대 강당에서 공군장병3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강의
- 11.21 시청회의실에서 약20명과 푸른목포21총회준비모임
- 11.22 카톨릭회관에서 시민80명을 대상으로 [목포급식조례제정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
- 11.26 도곡온천관광호텔에서 전남생활계획협의회 회의참가
- 11.29 무안군 농업용수 수질개선 시범사업 감돈지구 현장에서 주민60명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수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
- 11.29 신안문화원에서 신안주부 3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2. 7 목포보건소 강당에서 시내 요식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강의
- 12. 7 목포대학교 강당에서 지도자 대학원생 8명과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간담회
- 12. 8 목포보건소 강당에서 요식업자 1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강의
- 12.20 목포서부초등학교강당에서 목포시 교육청주최 교사,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2.30 장흥군청휴게실에서 장흥학당 회원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3 상임위원회의
- 1.7 겨울독서교실 환경교육(목포공공도서관)
- 1.15 KBS라디오 인터뷰-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폐기물 매립장 관련 문제제기
- 1.16 제7차 정기총회 (대성신협)
- 1.17 무안 해제 마실 모래채취 현장조사
- 1.20 완도 핵폐기장 반대집회 및 대책회의
- 1.24 목포시예산네트워크 토론회 참석
- 1.27 의장, 고문단 간담회
- 1.28 유달산대책본부회의, 정책위원회의
- 2. 2 세계습지의 날(2.2)
- 2. 5 습지의 날 기념 서남권습지보전네트워크 좌담회
- 2. 8 아파트문제 관련 협의회 구성을 위한 모임 참석
- 2. 9 환경사랑 들꽃 정기모임
- 2. 11 영산강 골채채취 토론회 관련 의견수렴 좌담회(사무실)
시민단체연합회 관련 실무회의
- 2. 12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의- 서울
- 2. 13 영산강 골채채취 관련 토론회(영산강환경관리청)
- 2. 14 아파트문제 관련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 회의
- 2. 18 무안군 습지보호지역 관련 주민 간담회
- 2. 22~5 전국대의원대회 및 수련회
- 2. 28 전남권 골프장 건설문제 관련 간담회(장흥환경연합)
- 3. 1-3 봄맞이 사무실 전면 개편 (환경정리)
- 3.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지역 습지에 관한 간담회
- 3. 4 핵폐기장유치반대 호남대책위원회의 참석(광주)
- 3. 5 무안군수 면담(공동의장,위원장,사무국장)
시민단체 협의기구 관련 실무회의(4차)
- 3. 6 신안군수 면담(공동의장,위원장,사무국장)
- 3. 7 목포시장 면담(공동의장, 위원장,사무국장)
- 3. 8 전남서남권 습지보전 네트워크 회의
- 3. 9 영상모임 밝음이 -유달산 촬영

- 3. 11 푸른영암21협의회 환경강의(사무국장)
- 3. 13 핵폐기장유치반대 호남대책위원회 집회(고창)
- 3. 15 푸르미 축구팀 재기모임
- 3. 19 핵폐기장유치반대 호남대책위원회 집회(광주)
- 3. 22 삼향천 살리기 토론회 (푸른목포21협의회 공동) - 물의 날 기념
- 3. 22-3 상임위원회 '2003 환경정책' 워크숍(장흥 유치휴양림)
- 3. 25 전남지역 골프장 대책 관련 회의 (목포)
- 4. 2 환경운동연합 창립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및 기념행사(서울)
- 4. 4 서남권습지보전네트워크 모임(해남군 마산면 사무소 토론회장)
- 4. 5 식목일 유달산 우리야생화심기와 삼향천 생태기행
- 4.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최 연안관리계획 2차회의(목포)
- 4. 10 도시환경문제 1차 간담회(미항,폐선부지,하천,녹지등 제반문제에 접근하기)
- 4. 19 지구의 날 기념 자전거대행진 및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 4. 20 생태기행 - 완도수목원과 푸른 바다를 찾아서
영산강 생태환경 탐사 및 출사 - 영상모임 밝음이
- 4. 21 유달산 촬영 - 영상모임 밝음이
- 4. 24 도시환경문제 2차 간담회 (미항,폐선부지,하천,녹지등 제반문제에 접근하기)
- 4. 30-5/3 일본습지보전네트워크 우리지역 갯벌방문
- 5. 1-3 일본 습지보전 운동가 전남 서남권지역 습지조사 및 교류회
- 5. 3 제일중학교 체험 환경교육
- 5. 10-11 전남 환경연합 수련회 (장흥 유치휴양림)
- 5. 12 목포시 자전거도로 및 가로수 조사를 위한 간담회
(목포경실련, 목포KYC, 목포YWCA참가)
- 5. 17 새만금 3보1배 관련 전국환경연합 긴급 비상회의(수원)
- 5. 25 새만금 중단 특별결의문 채택과 국회의원 서명참가 촉구시민대회
(여의도시민공원)
- 5. 31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무현 대통령 중단선언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서울)
- 6. 4 토론회 : 바다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서남방송 공개홀)
- 6. 11 전남환경연합 모임 - 장흥 핵폐기장 반대 농성장
전국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새만금 제4공구 방조제 집결
- 6. 14 신입회원 환영 등반대회 (토요일 오후 4시 승달산)
- 6. 16 영산강 탐사 및 촬영
- 6. 26 청솔회 정기총회

- 7. 1-31 녹지조사 (경실련 공동)
- 7. 4 워크숍 -주제 : 목포환경운동연합 조직 재정비
- 7. 10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 회의
- 7. 11 새만금 자전거흥보단 환영식 및 새만금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 7. 13 소모임 들뜰 행사
- 7. 14 갯벌 가족캠프관련 모임
- 7. 19 새만금 간척 사업 중단 홍보 및 서명작업
유달산 촬영 - 영상모임 밝음이
전남환경련 운영위원회 (여수)
- 8. 2 제52호 소식지 발송
- 8. 3 군산동 수원지 생태계과괴 관련 조사
- 8. 5 공동의장단 모임
- 8. 9 영산강 탐사 및 조사 - 영상모임 밝음이
- 8. 11~15 해양환경교육 참가(장흥)
- 8. 15 가족갯벌체험행사(무안 홀통)
- 8. 16 군산동 수원지 관련 보도 및 성명서 발표
- 8. 23 진도 백조 도래지 - 소각, 매립장 조사
- 9. 2 북항하수종말 처리장 무단방류 조사
- 9. 6 핵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서명작업
- 9. 15 목포 청소년 문화제 행사준비 모임 (5시 : 목포시청)
- 9. 16 목포 환경련 7주년 기념 및 기금마련 행사 추진위모임
- 9. 20 해경 바다정화 행사 (오전 10시 : 평화광장)
부안 핵폐기장 반대 농성장 방문
- 9. 24 영산강 섬진강 네트워크 준비모임 (사무실)
- 9. 27 목포지역 녹지현황 조사 (하당)
- 10. 1 영산강 탐사
- 10. 4 제 25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 행사 (하당평화광장)
- 10. 3 부안 핵폐기장 농성장 및 농촌일손돕기 활동 참가
- 10. 5 영산강 탐사 조사활동 (영산호 청호리, 구정, 몽탄)
- 10. 7 목포시 삼향천 설명회 참석
청소년 축제 실행위 참석
- 10. 8 영산강.섬진강 네트워크 준비모임 실시(순천환경련)

- 10. 9 제4차 환경문화 큰잔치 추진위 모임 및 고문, 상임위, 추진위, 조사위, 지도위 상견례
목포시 바른 예산 수립을 위한 토론회(목포경실련)
- 10. 10 함평만 모래준설사업장 현지조사
영산강 모래준설사업 현지조사(환경운동연합 이채연님 함께 참여)
- 10. 11~12 다도해 섬탐방(비금)
- 10. 14 제5차 환경문화 큰잔치 추진위(환경연합 사무실)
함평군 어촌계장 면담
- 10. 15 쓰시협 모임(YWCA, YMCA, 환경운동연합)
- 10. 16 영산강 탐사 및 촬영-영상모임 밝음이
- 10. 19 영산강 탐사
- 10. 20 오염하천 삼향천 정화사업 관련 간담회(시청 하수과)
- 10. 21 제6차 환경문화큰잔치 추진위(환경운동연합)
- 10. 23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환경연합 사무실 저녁 7시)
- 10. 26 영산강 탐사
- 10. 29 영산강 · 섬진강 네트워크 모임(장흥)
- 10. 30 신입회원 및 회원교육-(환경연합 사무실 저녁 7시)
- 11. 4 목포환경문화 큰잔치 준비모임(각분과 및 상임위원)
- 11. 6 신입회회원 및 회원교육 (환경연합 사무실 7시)
- 11. 9 신입회원교육 - 영산강 탐사 (10시)
다도해 탐방 - 임자도 (8시)
- 11. 15 2003 목포환경문화 큰잔치 -극단갯돌 초청 빨소리 공연
- 11. 23 영산강 탐사 및 조사활동
- 12. 2 총회 준비 특위
민간단체 대표자 간담회(영산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12. 4 무안군 골프장 18홀 증설 관련 군수 면담
- 12. 6 상동복지관 노인 영정사진 촬영 - 영상모임 밝음이
- 12. 7 영산강 탐사
- 12. 8 삼향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관련 방송(KBS 라디오)
- 12. 9 전국 쓰시협 모임
- 12. 11 강진만 습지 조사-대추귀고동 서식지 확인/ 철새탐조(고니,백로)
- 12. 12 바닷모래 불법채취 모래 시판업체 수사의뢰-해양경찰서
- 12. 13 부안 핵폐기장 반대 전국대회 참가
- 12. 14 다도해 탐방 분과 - 압해도 갯벌, 문화유적 탐방

- 12. 18 모래채취업체 합동 지도단속 참가 - 무안군
- 12. 19 무안군-모래채취업체합동지도단속 관련 성명서
목포시 입암산 정상 철구조물 철거요구 성명서
- 12. 20~21 전남환경운동연합 수련회 및 정기총회

※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일지

- 1. 14 목포시청에서 열린 푸른목포21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참가
- 1. 20 광주시삼각동 조선시대 식당에서 열린 김명자 환경부장관과의 대담회 참가
- 1. 28 사회근로복지회관에서 회원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푸른목포21협의회 창립총회개최
- 1 월 환경과건강 제12호 발행
- 2. 15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 이사회에 참가
- 2. 20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푸른전남21협의회 제8회 정기총회에 참가
- 2. 21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생협소개와 지역연대]에 대한 강의
- 2. 25 갯바위일식집에서 남악회 회의에 참가
- 2. 26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보고회에 참가
- 2. 27 목포YWCA강당에서 열린 푸른목포21협의회 2003년도 1차환경토론회에
[습지와 환경보존]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
- 3. 3 송광사에서 전남생활계획협의회 모임에 참가
- 3. 4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민,관,파트너쉽 형성을 위한 워크숍에 환경자로 참가(250명참석)
- 3. 11 해남산이농협에서 주민10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3. 14 화순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화순환경연합회회원110명을 대상으로
[환경위기와 우리의 역할]에 대한 강의
- 3. 18 장성 한마음 환경농업교육장에서 열린 전라남도 품질인증농가협회가 주최하는
모임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사회적기능과 유통에 대한 발표
- 3. 19 순천YWCA에서 [환경위기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강의
- 3. 20 신라호텔에서 보령의료봉사상 수상
- 3. 21 해남화원농협에서 주민 13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3. 22 광주KBC홀에서 토요일마다 세계물의 날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
- 3. 25 삼성생명 호남총국에서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11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3. 26 전남대학 의과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열린 전남의대 제1회 졸업 50주년기념식에 참가
- 3. 28 곡성섬진강 자연학습원에서 주민4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축사
- 4. 03 노인대학에서 노인 15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4. 4 신안비치호텔에서 서울 YWCA회원 약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4. 7 함평천 고수부지에서 함평농민대회 약150명을 대상으로
[골프장과 슬러지의 문제점]에 대한 강의
- 4. 8 서남대학교의과대학 탐방에 참여
- 4.10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38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4.11 해남북평농협에서 주민 6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4.16 북교동동사무소에서 노인 60명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4.23 상동사회복지회관에서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강의
- 4.26 문화의집에서 열린 생협총회에 참가
- 4 월 환경과 건강 1~9호 합본 발행
- 5. 8 보현정사에서 신도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습관병에 대한 5분 스피치
- 5.14 하당동사무소에서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5.20 장흥푸른레미콘 광장에서 축하객 150명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강의
- 5.21 노송정마을회관에서 동민 30명을 대상으로 [감동저수지를 살리자]주제로 5분 스피치
- 5.23 광주남도예술회관에서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주체하는 행사에 참가
- 5.29 인천공무원연수원에서 지방의제21전국협회가 주관하는 물 워크샵에서 격려사
- 6. 6 월출산산장호텔에서 열린 전남생활계획협의회 모임에 참가
- 6.11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직원70명을 대상으로 바다와 식생활에 대해 강의
- 6.12 광주KT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정치개혁추진위원회 창립식에 토론자로 참가
- 6.19 환경부장관실에서 한명숙장관과의 대담회에 참가
- 6.21 목포양동제일교회에서 신도 3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6.25 정신교육관에서 강진 연대장병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관한 강의
- 7. 1 죽전마을회관에서 비닐,농약병에 대한 5분 스피치
- 7.10 목포시청회의실에서 주민 22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7.18 목포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올바른 먹을거리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
토론자로 참가
- 7.21 대한의협에서 열린 환경공해대책위원회 참석하여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입장발표
- 7.25 광주상록회관에서 전라남도 새마을 부녀회 150명을 대상으로 [수질오염예방]에 대한 강연
- 7 월 환경과 건강 10~12호 합본 발행
- 8. 1 영암군민회관에서 새마을회원 600명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8. 8 장흥수문해수욕장 송림에서 열린 전남생활개혁협의회에 참가
- 8.13 하당복지회관에서 노인1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8.27 목포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2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8.27 목포해양대학교 새누리호 선상에서 열린 [서남권갯벌의 현황과 친환경적 활용]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
- 8.28 ~ 9.2 중국여행
- 9.3 이창동문화관광부장관 면담
- 9.16 삼성생명호남총국에서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제18기 120명에게 [좋은환경과 건강한 삶]에 대한 강의
- 9.24 목포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3회 시민운동가 대회에 참가
- 10.7 옥암동회의실에서 열린 삼향천 오염정화사업실시 설명회에 참가
- 10.10 연산동에서 열린 시민환경감시단 발대식에 참가
- 10.10 목포역광장에서 이라크과병반대 목포에서 서울까지 걷기대회 참가
- 10.10 삼향천 현지답사
- 10.21 대전문화대청장 방문
- 10.23 목포YWCA에서 서울 현대아파트와 구로구 자매결연사에서 4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0.24 무안경찰서에서 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0.28 원산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노인회관에서 노인3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0.28 목포경실련에서 열린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대한 토론회에 참가
- 11.5 라이프아파트 노인회관에서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1.5 강진대대 역내 만덕관에서 장정1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의
- 11.7 라인아파트 노인회관에서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1.11 곡성섬진강 자연학습장에서 열린 전남생활계획협의회에 참가
- 11.15 목포주안교회에서 신도 약3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강의
- 11.20 호성웨딩문화원에서 열린 여성라이온스클럽 세미나에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1.25 YWCA에서 주부30명대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강의
- 12.1 영암소방서에서 소방대원 6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에 대한 강의
- 12.1 YWCA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주부2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강의
- 12.4 문화원에서 제1회 목요대화마당 [삼향천 어떻게 살릴것인가?]에 참가
- 12.5 YWCA강당에서 주부3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2.11 MBC공개홀에서 열리는 두레아카데미주제 김지하 시인과의 대화에 참가
- 12.18 문화원에서 열린 목포시민의 미술품관리는 주제 제2회 목요대화마당에 참가

- 12.20 시청회의실에서 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열린 음식물류폐기물 공공물류타당성조사 용역보고 및 시민설명회에 참가
- 12.24 현대삼호중공업식당에서 직원6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12.26 시청회의실에서 열린 열린시정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 간담회에 참가
- 12.29 초원관광호텔에서 목포문화원 주최 2003 시민문화 교양강좌에 참가
- 12월 환경과 건강 제13호 발행

목포환경운동일지

2004년도

- 1. 2 영산강 모래채취 조사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 용해동 캠퍼스 오후 3시)
- 1. 7 도시발전위 시민단체간담회 (목포여성의전화 사무실 오후 2시)
- 1. 8 전남환경운동연합 총회 참석 (장흥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오후 12시)
- 1. 9 영상모임 밝임이 모임
- 1. 9~10 습지연대조사활동(영산강, 함평만)
- 2. 3 시정평가단 간담회 (시청 오전 11시)
- 1. 15 제8차 목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대성신협3층 호후 6시 30분)
- 1. 25 흑한기 야생동물 먹이주기 (압해도 오전 10시)
- 1. 27 2004년 시정 및 미항목포 가꾸기 시정 보고회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오후 2시)
- 1. 28 삼향천관련 인터뷰(KBS 방송국-사무국장)
목포도시계획조례 공동 대처 간담회
- 1. 29 상임위원회의
- 1. 30 목포시 환경과 환경단체 간담회 (목포시청)
- 2. 5 세계습지의 날 좌담회 (목포문화원 오후 5시)
- 2. 6 긴급진단 목포지역 빈곤 실태 (의회운영위원실 오전 10시 30분)
- 2. 7 전남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 (광양 오후 4시)
- 2. 11 무안 창포호 송어 떼죽음 시료채취 (목포MBC 밤 9시방영)
- 2. 12 생태도시 워크숍 및 사업공모설명회(전북부안성당 오후 7시)
- 2. 13 영산강 촬영 (일로 망월리 오전 7시)

- 2. 15 영산강 조사활동 및 사진촬영 (함평 동강대교-몽탄대교 오전 10시)
영상모임 밝음이 모임(오후 4시-중등포)
- 2. 16 무안군 골프장 증설 2차 간담회(무안군청 오후4시)
- 2. 18 지도위원, 자문위원 간담회 (통운회관 7시)
- 2. 21 전국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 (서울 오후 4시)
- 2. 24 시민단체간담회(초원호텔 2층 오후 6시)
- 2. 27 임원단 워크숍(디아코니아 자매회 한산촌 오후 8시)
- 3. 4 유달예술촌 운동장 아스콘 공사 관련 좌담회 (문화원 오후 5시)
- 3. 7 삼향천 탐사(삼향천 갑문 오전 9시)
- 3. 8 진도군 행정소송(해사채취) 항소심 관련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지원단 변호사 2명
(박태현, 조성오) 진도군 부군수, 담당과장 면담 - 가사도 현장 방문 및 주민 면담
- 3. 9 불법모래채취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성명서 발표
전남도 자치행정과 - 시민단체 지원사업평가 보고 회의 (전남도청 오후 2시)
- 3. 12 2004년 에코페스티벌 추진위원회의 (목포시청 오전 10시)
제일정보고 환경강의 -양효식 소장 (오후 1시 30분)
전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 간담회 (장흥 유치휴양림 오후 7시)
녹색연구회 모임 실시 - 삼향천특위 참여, 주말농장 개설 준비
- 3. 13 생태도시센터에 관련 생태보전국 방문
입암천, 삼향천 현장 답사 및 촬영(3명) - 수질심각, 철새 많음
- 3. 14 탄핵규탄시민대회 (목포역 오후 5시)
들풀가족모임 (우미파크빌공원 오후 3시)
- 3. 16 탄핵시국-목포시민단체와 공동보조 (목포역광장 매일 7시 촛불집회 참여)
- 3. 19 제일정보고 강의
입암천 탐사 (오후 1시 20분)
- 3. 20 환경영상모임 밝음이 모임(오후 7시 30분)
- 3. 21 다도해 탐방분과 외달도 탐방 (여객선터미널 오전 10시)
- 3. 24 상임위원회의 (사무국 오후 7시)
- 3. 28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산강 탐사 (유달경기장 오전 9시)
- 4. 1 식목일 황칠나무 심기 행사 (오후2시 율도,하의도) - 황칠나무 회원분양
- 4. 8 주말농장모임 (통운회관 오후 6시 30분)
지역 환경교육 준비모임 (아파트연합회 오후 2시 30분)
- 4. 9 들풀모임 (하당 오후 7시 30분)

- 4. 11 영상모임 밝음이 모임 (양을산 등반 및 출사 오전 6시 30분)
들풀모임 (영광 염산 두우리 가족갯벌 탐사 오전 9시 30)
- 4. 13 목포 2004에코-페스티벌 행사추진위원회 회의 (오후3시)
- 4. 15 주말농장 현장 답사(남악신도심 입구 반대편 현장 오후 2시)
- 4. 20 생태도시센터 세미나(서울 정동 오후 1시~6시)
주말농장모임(통운회관 오후 6시 30분)
- 4. 24 주말농장 개장식(농장 오후 2시)
- 4. 27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현장 견학 (목포시청 오후2시 쓰시협,아파트협의회 38명)
에코 페스티벌 모임(오후3시)
- 4. 28 국립공원 공원관리 협의회 창립모임 참여(오전11시)
- 5. 1 주말농장 작물과종 및 모종식재 (오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 용해캠퍼스 오후 4시)
- 5. 2 영상모임 밝음이 상리천 탐사 및 사진촬영 (오전 7시)
- 5. 4 무안갯벌 및 해안탐사 - 습지보전위원회 공동
- 5. 5 압해도 갯벌 및 해안 탐사 - 습지보전위원회 공동
- 5. 7 습지보전위원회 정책간담회 - 안면도
- 5. 8 주말농장 묘목식재 및 씨뿌리기 (주말농장 오후 2시)
환경사랑 들풀모임 장흥유치 휴양림 생태탐사 (9일까지)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 용해캠퍼스 오후 4시)
- 5. 13 자연이 돌아오는 도시만들기 사업교육 목포지역사업설명 (대전 14일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취임식 (광주환경운동연합 5층강당 오후 6시 30분)
- 5. 14 전남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교육 (순천 성광사 조계산장 오후 3시~15일 금요일까지)
- 5. 15 전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순천 성광사 조계산장 오전 11시~오후 1시)
주말농장 농장 모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 용해캠퍼스 오후 4시)
- 5. 16 영상모임 밝음이 사진촬영 (유달산 오전 7시)
- 5. 19 환경연합 골프장 관련 내부 토론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오후 2시)
- 5. 21 전국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회의 (경주교육문화회관 오후 2시~22일 토요일까지)
- 5. 22 주말농장 농장모임 (주말농장현장 오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 용해캠퍼스 오후4시)
- 5. 23 갯벌 생태탐사 (무안반도 오전 9시)
- 5. 25 에너지시민연대 전남지역 간담회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오후5시)
- 5. 28 제51차 상임위원회 회의 (사무국 저녁 7시)

- 6. 4 2004목포에코-페스티벌행사 -목포시와 환경단체 합동 전야제
(하당평화광장 저녁 7시부터)
- 6. 5 세계 환경의 날 기념 2004 목포 에코-페스티벌 행사
- 본행사 (오전 10시30분부터 : 하당 평화광장)
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날 행사 (평화광장 에코 페스티벌 현장 오후 2시부터)
- 6. 9 바다의 날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서남방송 공개홀 오후 4시)
- 바닷모래 채취의 문제점과 대안마련
- 6. 12 주말생태 체험농장 모임 (임성리 현장 오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오후 5시)
- 6. 13 환경사랑 들꽃 가족모임 (무안 현경 습지 보호지 오후 2시)
- 6. 16 제3차 전국 사무국 처장단 회의 (청주환경운동연합 회의실 오후 3시)
- 6. 18 주말생태 체험농장 중간모임 (나무나루 카페 저녁 7시)
- 6. 26 주말생태 체험농장 (임성리 현장 오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오후 5시)
습지위원회 회의 (환경연합 중앙 사무처 회의실 오후 2시)
- 6. 27 영상모임 밝음이 모임 (임암산 - 오전 7시)
- 7. 7 전남 환경연합 집행위원회 (장흥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오전 11시)
전남 에너지시민연대 지역 간담회(장흥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오후 2시~8일까지)
- 7. 9 섬진강 지키기 네트워크 워크숍 (전남 곡성군 청소년 야영장 오후 2시~10일)
- 7. 10 주말생태 체험농장 (임성리 현장 오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오후 5시)
- 7. 11 다도해 섬 탐방 (율도/북항 수협건물 앞 오전 10시)
밝음이 모임 (오전 7시 - 사진촬영 등)
- 7. 12 쓰시협 회의 (골뱅이 오전 12시)
- 7. 15 조선대학교 국토대장정 팀 모임 (목포대학교 저녁 8시)
- 7. 17 제4차 전국회원대회 - 참가: 28명 -
(17일(토)~18일(일) 1박2일 - 부산해운대 및 금정산 : 부산 유스호스텔)
주말생태 체험농장 (임성리 현장 오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오후 5시)
- 7. 18 전국 대표자 회의 (부산 해운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연회장” 오전 9시)
- 7. 19 통일연대 대표자 회의 (대명춘 오전 12시)
파병반대 모임 (전교조 오후 5시)
- 7. 20 지역별 회원 교육 및 모임 (원산동, 북항동 인근)

- 7. 22 산단 개혁 연대 전국 워크숍 (안산 오후 2시 ~ 23일 오전 10시)
- 7. 24 주말생태 체험농장 (임성리 현장 오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오후 5시)
- 7. 29 갯벌 생태 체험 캠프 실시
(29일 (목)~31일(토) : 2박3일 - 비금 섬 일대, 숙소: 비금성당)
- 비금 섬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 (백사장, 갯벌(염전), 문화유적) 탐방
- 7. 31 주말생태 체험농장 (임성리 현장 오후 2시)
푸르미 축구모임 (목포대학교 용해캠퍼스 오후 5시)
- 8. 1 입암산 촬영-영상모임 밝음이 (오전 7시)
- 8. 6 영산강 모래채취 진정서 목포지검 접수.
- 8. 7 외달도 현장 조사 -조사위원회
- 8. 8 갯벌생태체험 - 무안 조금나루 10시- 환경사랑 들풀 모임
- 8. 10 창포호 현장조사
- 8. 16 창포호 어촌계 주민 면담
- 8. 17 위생매립장방문 - 폐토사를 매립토로 사용 문제 논의
- 8. 19 생태도시센터 현장방문 - 하반기 사업논의
- 8. 21 바다쓰레기 조사 (목포 앞바다) - 조사위원회
- 8. 24 폐토사 19개 항목 재검사 실시
정책위원회 회의
탐진댐 보전활동 관련 대책 회의 (장흥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오후 3시)
- 8. 25 영상모임 밝음이 회의 (오후 7시)
- 8. 27 전국사무처장단 회의 (광양 오후 3시)
- 9. 1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현장 탐방 (목포시환경과 쓰시협 공동)
- 9. 4 창포호 준설관련 현장 토론회 (창포호 현장 오전 10시30분)
- 9. 7 생태보전국 목포 압해도 도요새 조사참여 (압해도 오전 10시)
- 9. 14 전국 골프장 난립현장 조사보고 기자회견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오전 11시)
- 9. 18 전남환경연합 가을 수련회 (나불도 선착장 오후 16:00~19일 2시 까지)
- 9. 19 영산강 생태환경탐사 (나불도 한남호 유람선 선착장 오전 9시)
- 9. 22 위생매립장 방문 (위생매립장 오후 3시)
- 9. 24 국가보안법 폐지 목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목포역 오후 3시)
- 10. 4 영산강 모래채취 사진촬영
- 10. 5 목포시 자연보호현장 선포 기념식 참석 (달성공원 오전 10시 20분)

- 10. 6 광주,전남골프장난개발공동대책위(가) 간담회/기자회견/집회
(광주환경연사무실 및 도청 오전12시)
- 10. 7 목포시 미항 마스터 플랜 용역보고회 참석 (목포시청회의실 오후 3시)
- 10. 8 고하도 갯벌체험 (목포여중 350명)
보성환경운동연합 추진위 발기인대회 (별교역 오후 5시)
- 10. 15~16 원산동 트랙축제 화학조미료 안먹기/대안생리대 홍보(주부모임)
- 10. 17 광주,목포 환경연 영산강탐사
- 10. 18 고하도 갯벌체험(항도여중 300명-강사 4명)
- 10. 19 에코시티 4차 워크숍 (서울 배재정동빌딩 오후 2시~6시)
- 10. 22 광주 에코페스티벌 행사 관람 (광주 상무시민공원 2시~5시)
- 10. 29~30 국제생태도시포럼 (제주), 제주 산지천 조사활동
- 11. 3 창포호 준설 반대 주민과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 (광주 오전 11시 30분)
무안군수 면담 (무안군청 오후 5시)
- 11. 4 하당지역 회원모임 (하당 신대흥정 오후 7시)
- 11. 4~7 전국활동가 습지연수 (서천환경연)
- 11. 5 영산강 보전활동 관련 대학과 환경단체간 간담회 (도의회 소회의실 오전 11시)
- 11. 7 영산강 및 습지탐사 (영산강 조정경기연습장~나주 사포나루 오전 9시 30분)
- 11. 8 영산강환경청 토론회 (광주 오후 2시)
- 11. 9 총회준비위원회의 (사무국 오후 6시 30분)
- 11. 11 생태마을 가꾸기 주민 워크숍 (광주환경연 오후 2시)
- 11. 12 환경의제설정 토론회 (서남방송 오후 3시)
- 11. 14 영산강 탐사 (영산호 ~ 사포나루 오전 10시)
- 11. 18~19 습지보전연대 국제포럼 (환경연 습지위원회, 서산태안환경연합)
- 11. 19 탐진댐보전시민연대 출범식 (장흥군민회관 오후 2시)
- 11. 20 영상모임 밝음이 (사진촬영-입암산)
- 11. 23 해경 제민6호 취역식 (목포해경전용부두 오전11시)
- 11. 27 전국사무국처장단회의 (중앙환경연 오전 12시)
환경비상시국1만인선언 (서울열린시민공원 오후 2시)
- 11. 27 겨울철새탐조 (해남 고천암 - 광주국제연대 공동 오후 4시)
- 11. 28 겨울철새탐조 (해남 고천암 및 우항리, 강진만 오전 9시30분)
- 11. 29 쓰시협회의 (프린스 오전 12시)
- 12. 1 영산강 불법골재채취 조사 - 함평군 대행업체 불법채취 (영산강 함평군 일대)

- 12. 3 함평군 불법골재채취 관련 성명서 발표
함평 해보면 상공리 축분 폐기 조사 (해보면농공단지)
- 12. 6 나주 축산폐수 조사 (나주 일대)
- 12. 8 학교급식조례관련 시총무국장 면담 (목포시청 오전 10시 30분)
- 12. 10 영산강살리기 운동본부 창립식 참여 (나주)
대양동 생활오수 조사 (대양동 현장 오후5시)
광주전남 골프장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오전11시 도청앞)
- 12. 13 목포쓰시협회의 및 송년회
- 12. 15 창포호 무안골프장 저류지 방류조사
- 12. 14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사무국 오후7시)
- 12. 17 습지위원회의 (북제주 구좌읍)
- 12. 20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의(목포과학대 오후12시30분)
- 12. 21 총회준비위원회 (사무국 오후7시)
- 12. 22 환경정책협의회 (목포시청)
영산강수계관리위원회 지원사업 설명회(영산강환경청 오전11시)
- 12. 23 생태도시센터 4차 워크숍 (중앙환경련)
목포시 야생동물먹이주기 행사(영산호조정경기연습장 오후2시)
- 12. 28 광주전남 골프장 반대대책위 집회(구례군청 오전10시30분)
영암천 고수부지 불법경작-KBC와 합동조사 (오후2시30분 현장)
- 12. 29 영암천 고수부지 불법경작-MBC와 합동조사(오전10시30분 현장)
- 12. 31 종무식

※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일지

- 1. 8 목포문화원에서 목요대화마당 어떻게 꾸릴것인가? 주제 제3회 목요대화마당에 참가
- 1.15 목포문화원에서 목포진 이대로 좋은가? 제4회 목요대화마당에 참가
- 1.27 서광주교회에서 성도7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27 초원관광호텔에서 열리는 목중 · 고총동문회에 참가
- 1.29 고아도 모춘각에 대하여 주제 제5회 목요대화마당에 참가
- 1월말 환경과 건강 제 14호 발행
- 2. 5 목포문화원에서 습지의 문제점과 대책 주제 제6회 목요대화마당에 참가
- 2.12 담장허물기운동 주제 제7회 목요대화마당에 참가
- 2.19 목포문화원에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하여 주제 제8회 목요대화마당에 참가

- 2.23 영암읍 군민회관에서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하여 강의
- 2.24 신북면회의실에서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강의
- 2.24 영암시종면 회의실에서 주민 1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2.25 학산면 회의실에서 주민1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2.25 삼호면 복지회관에서 주민2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2.26 목포문화원에서 1926년 목포제유공장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역사적 의의 주제로 제9회 목요대화마당 참가
- 2.27 목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초당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주관 21세기 서해안시대 서부권 환경보전포럼 심포지엄에 참가
- 3. 4 목포문화원에서 달성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의 문제점과 대책 주제 제10회 목요 대화마당참가
- 3. 9 전라남도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2003년시행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종합 활동평가보고회에 참가
- 3.11 목포문화원에서 암태도 소작쟁이에 대하여 주제 제11회 목요대화마당에 참가
- 3.16 하당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3.30 해남현산농협에서 주부8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에 대한 강의
- 4.20 삼성생명호남총국에서 무등산사랑환경대학 19기 120명에게 [식생활개선]에 대한 특강
- 4.22 신안비치호텔에서 서울구로구 구의원 19명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4.23 해양유물전시관에서 13기 바다문화학교100명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교육
- 4.26 덕인고등학교에서 학생,교사86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흡연의 의학적 심각성]에 대한 강의
- 4.28 진도읍사무소에서 전남해병전우회 약50명에게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4.30 광주빛고을생협 강당에서 생협활동가 약40명대상으로 [식생활개선]에대한 강의
- 5.18 무안읍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5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해 강의
- 5.26 보현정사에서 신도 1200명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운동]에 대한 5분 스피치
- 5.29 보림사에서 전남생활계획협의회 제9차 정기모임에 참가
- 6. 2 호남동소방서에서 바르게살기운동 목포시협의회원 40명에게 [환경일반]에 대한 강의
- 6. 5 전남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용봉인의 밤에서 자랑스런 전대 동문상 수상
- 6.10 상동복지회관 강당에서 노인 약 100명대상으로 [식생활 개선운동]에 대한 강의
- 6.11 시청회의실에서 영산호부유쓰레기처리 간담회에 참가
- 6.19 남경문화회관에서 임기준목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 참가
- 6.24 목포문화원에서 우리의 먹을거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 제12회 목요대화마당참가
- 6.25 전라남도 농업기반강당에서 직원6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6.28 해양수산청에서 직원40명을 대상으로 [환경과 건강]에 대한 강의

- 1. 9 광주전남 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 회의 (10:30 - 구례)
- 1. 11 환경비상시국 관련 골프장 반대 집회 (10:00 - 해남 산이 서초등학교)
- 1. 14 광주전남 골프장반대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11:30 - 전남도청)
- 1. 20 목포환경운동연합 제9차 정기총회(18:30 - 목포대성 신협 3층 강당)
- 1. 25 목포시의회 국외여행심사위원회 (14:00 - 목포시의회)
- 1. 27 학교급식 전남본부 보고회 및 개편대회 (11:00 -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
장흥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17:00 - 장흥)
- 2. 5~6 새만금 생태조사단 참여
- 2. 15 목포시정보고회 (14:30 - 시민문화체육센터 소 공연장)
- 2. 16 SBS '물은 생명이다' 팀 무안 골프장 취재 협조 (무안골프장 하류)
- 2. 17 무안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청계면사무소)
- 2. 18 무안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성명서 발표
- 2. 19 목포환경운동연합 상임위원회 워크숍 (청소년수련관)
- 2. 22 에너지시민연대 지역회의 (여수환경운동연합)
- 2. 26 환경운동연합 총회 (서울보증보험)
- 3. 2 목포쓰시협 회의(13:00 - 골뱅이)
- 3. 5 폐기물 재활용 시설 현장 견학(구리시 재활용 선별장)
- 3. 7 무안 골프장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주민 의견서 접수
- 3. 12 J프로젝트 예정지역 현장답사(해남군 산이면 일대)
- 3. 17 목포통일연대 회의(12:00 - 대명춘)
- 3. 18 함평만 모래채취 반대성명서 발표
- 3. 25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환경교육(09:00 - 제일정보고)
- 3. 26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 회의(16:00 - 한국 프레스센터 7층)
- 3. 28 진도 바다모래 소송관련 진도군 협의(진도군청)
- 3. 29 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대책 간담회(14:00 - 목포문화원 강당)
- 3. 30 에너지시민연대 지역회의 (17:00 - 여수환경연합)
- 4. 2 전남 환경연합 2005년 대의원 총회(4월2일~3일 16:00 광양시 시민휴양소)
밝음이 무안 영정사진 촬영 및 무료검진(오전 8시: 무안병원)
- 4. 5 J프로젝트 특별위원회 구성 준비모임(19:00 - 향토정)

- 4. 6 광주, 전남 사회단체 J프로젝트 긴급 간담회(13:00 - 광주환경연합 4층)
- 4. 12 J프로젝트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11:00 - 전라남도 도청 앞)
- 4. 13 'SBS 물은 생명이다.' 팀 영산강 취재도움(11:00 - 영산강 휴게소)
목포시 교육청 오병인 교육장 방문(15:00 - 목포시 교육청)
- 4. 14 목포환경운동연합 주말농장 개장 준비모임(19:00 - 향토정)
- 4. 15 2005년 환경의날 기념 환경단체 간담회(11:00 - 버섯동네큰잔치)
- 4. 18 목포환경운동연합 전, 현 의장단, 고문단, 사무국 오찬모임(12시, 진동)
목포 쓰시협 회의(정오 12시: 대청)
목포 통일연대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목포공동위원회 준비모임
(오후 4시: 민주노총사무실)
목포환경운동연합 J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준비모임(오후5시: 사무국)
- 4. 19 임성리 도계장 현장, 무안 전남 서부채소농협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조사
(정오 12~4시: 임성리, 무안, 해남 송호리 해수욕장 등)
- 4. 20 무안 전남서부채소농협협동조합 현장고발
(MBC 방송국 방영, 시대일보, 무안신문 등 보도)
무안군 주민 공청회(오후 2시: 청계면사무소)
- 4. 21 광주, 전남 시민사회단체 J프로젝트 3차 간담회
(오후 2시: 광주환경운동연합 4층 교육실)
- 4. 22 목포제일정보고등학교 환경교육(무안군 용월리 철새탐조 교육)
- 4. 23 제35회 지구의 날 행사(오후 2시: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 정문)
목포환경운동연합 녹색연구회 주말농장 개장
(오전 10시: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농장)
- 4. 25 시민사회단체 주최 목포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오전 10시 30분: 서남방송 공개홀)
세계 환경의 날(6.5) 기념식 및 행사 준비 간담회(오후 2시: 목포 YWCA)
제13기 신입활동가 교육
(4월 25일~30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외 전국 주요지역)
- 4. 26 목포지역 통일연대 2005년 2차 대표자회의(정오 12시: 대명춘 식당)
- 4. 27 2005년도 상반기 공원관리협의회 팽목장 방문
(오전 9시 30분,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 서부사무소)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27일~28일 2일간: 연산동 신동마을)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오후 3시: 목포시의회)
- 4. 29 J프로젝트 전라남도 공청회(오후3시: 전라남도청)

- 5. 3 서남해안개발사업 관련 문화관광부 면담(오후 2시: 서울 문화관광부)
- 5. 6 목포환경운동연합 서남권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회의(저녁 7시)
- 5. 7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관련 임시상임위원회 회의
(오전7시: 실비복집)
- 5. 9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목포지역 단체 오찬 모임
(정오12시: 대명춘 식당)
- 5. 10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간담회
(오후2시: 목포시의회 소회의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의뢰해 온 해인여고 환경교육 실시
(오후2시 ~5시: 해인여고)
- 5. 11 생명평화 탁발순례 기자회견 참석(오전11시: 목포역)
환경의 날 행사 관련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총학생회 방문
(오후3시: 목포대학교)
- 5. 12 목포환경운동연합 서남권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모임(오후5시: 연세약국)
- 5. 13 2005년 세계환경의 날 기념 환경한마당 준비위원회 모임(오후2시: YWCA)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관련 광주, 전남 시민단체 4차 회의
(오후2시: 광주환경운동연합)
- 5. 16 토석채취장 관련 무안군 방문 및 조사(오전10시부터~)
- 5. 17 2005년도 생태, 환경 해설사 양성사업 설명회(오후2시: YWCA 강당)
- 5. 19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관련 전라남도 공청회(오후2시: 광주)
- 5. 20 목포시 요청 사회단체 대표 간담회(오전10시: 시청 상황실)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 준비위원회 1차 모임
(오후2시: YWCA)
전국 재활용위원회 회의(오후4시: 서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회의실)
상리천 터미널 부근 현장조사(현장조사 후 성명서 발표)
- 5. 23 해남군 송호리 김공장 관련 해남군 환경과 담당자와 면담(해남군청)
영암 영산강유역 불법 경작 현장 방문
- 5. 24 6.15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실무자1차모임
(오후2시: YWCA)
- 5. 26 전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회의(정오12시: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
- 5. 27 제일정보고 교육(오전10시~오후4시까지:)
목포해경 관용성 부두서 삼학도 부두까지 바다쓰레기 수거
(오후2시: 조사위원회)

- 5. 31 화요대화마당(오후2시: 목포문화원)
- 6. 2 함평군의 함평 항 개발, 영산강 준설 및 골재채취 관련 함평군수, 부군수, 신림수산과장 면담 (오후 4시 30분 : 함평군청 부군수실)
- 6. 3 영산강 둔치 내 불법경작 행위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회의 (오후 3시 :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 6. 4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오전 10시~오후 6시 : 하당 평화광장)
- 6. 7 6.15공동위원회 목포 실무자 모임 (오후 6시)
- 6. 9 6.15공동위원회 대표자 회의 (오후 3시 : YWCA)
환경교육네트워크 출범식 및 심포지엄
(오후 3시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6. 11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J-프로젝트’ 관련 제5차 간담회 (오전11시 :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오후 3시 : 광주환경운동연합)
- 6. 14 목포환경운동연합 서남권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오후 1시)
- 6. 15 목포환경운동연합 서남권 개발사업 특별위원회 조경만 교수 초청간담회 (저녁 7시 : 향토정)
2005년 전국 회원대회 준비위원회 1차 사무국회의 (오후 1시 :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 6. 16 서남해안개발사업 특별위원회 모임 (오전 10시)
- 6. 17 기업도시 전국회의 (오후 3시 : 대전환경운동연합)
- 6. 24 창립9주년 기념 김혜정 사무총장님과의 간담회 (오후 5시:초원관광호텔 3층다이아몬드홀)
- 7. 1 중간 사업 감사 (10:00 -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
- 7. 2 중간 재정 감사 (10:00 -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
- 7. 4 목포환경운동연합 조사위원회 회의 (11:00 -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
- 7. 5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기업도시 반대시민연대 입장 발표 (11:00 - 정부종합청사후문)
- 7. 7 목포해양경찰서 환경교육 (13:00 - 목포해양경찰서)
목포부패방지시민센터 발족 (14:00 - 목포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 7. 11 전남 해남 조선소 건설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관련 연안관리심의위원회 5명에 의견 전달 위해 목포해양수산청 방문, 이후 억수마을 현지 방문 (11:00 - 목포해양수산청 2층 회의실)
무안 기업도시 관련 SBS 뉴스 추적팀 무안취재

- 7. 12 해남화원 역수조선소 추진관련 현지주민 및 목포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10:30 - 목포해양수산청 앞)
- 7. 13 전남 화원 조선산업 집적화 단지 추진에 대한 KBS 라디오 인터뷰
(08:30 - KBS 라디오 방송국)
전남 해남 조선소 건설부지 공유수면 매립관련 연안관리 심의위원회 회의
(14:00 - 해양수산부)
- 7. 14 영암 대불산업(주), 영암 좋은산업 제보 관련 조사 (14:00 - 영암)
- 7. 15 해남 진도간 불가사리 민관 해양 생태 공동조사(14:00 - 목포인근해역)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 전라남도환경단체 간담회 (16:00- 도청상황실(3층))
- 7. 16 제5차 환경운동연합 전국 회원 대회
(16일 17:00~17일 14:00 - 충남 안면도 삼봉해수욕장 일대)
- 7. 18 무안도서 종합적 관리 및 법률(안) 제정방향 환경단체 간담회(14:00 - 해양수산청)
- 7. 19 환경에너지 센터 건립관련 제1차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14:00 - 목포시청 상황실)
- 7. 21 서남권 섬에 관한 토론회 (14:00 - 서남방송 공개홀)
영암군 시정면 구산리 (좋은산업) 퇴비공장 불법매립 현장방문 (14:00)
- 7. 22 환경연합 습지보전위원회 2005년 2차 정기
(16:00~23일 12시 - 서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
- 7. 26 농림부장관 면담 (16:00 - 정부종합청사)
전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회의 (18:00 - 순천환경운동연합)
- 7. 27 제4회 환경대화마당 (14:00 - 목포문화원)
- 7. 28 해양환경정책 간담회 (10:00 -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
- 8. 8~10 2005 어린이 갯벌캠프
(8월 8일 16:00~10일 18:00 - 신안군 비금도 비금서부성당 ; 2박3일)
- 8. 10 섬 관광자원 개발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10:00~16:10 - 신안군 임자면 청소년수련관)
- 8. 12 광주-전남 골프장 대책위,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11:00 - 광주환경연합)
- 8. 16 서남해안개발사업 특별위원회 모임 (12:30 - 연세약국)
주부모임 녹색리본 모임 (12:30 - 하당 엉터리 보리밥집)
- 8. 18 에너지의날 및 전국소등의 날 05년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10:00~18:00-목포역 광장)
- 8. 18~19 대기질 측정 조사 (18일 10:00~ 19일 10:00 - 목포시내 다중이용시설 6곳)
- 8. 19 광주-전남 골프장반대 대책위 기자회견, 영산강유역환경청 항의 방문
(14:00~16:00 - 전라남도청)

- 8. 20 주부모임 녹색리본 “어린이 칼라믹스 배움 행사”(10:30 -롯데마트 5층 문화교실)
해남 화원 역수조선소 구림리 주민대표 만남 (10:00 - 하당 부근 식당)
- 8. 24 기업도시 추가 선정 관련 환경부장관 면담 (11:00 - 환경부 장관실)
- 8. 26 ‘어린이와 함께하는 주말농장 체험’ (15:00 -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농장)
- 8. 31 토요일떼새 조사 (09:00~17:00 - 압해도)
- 9. 1 목포 앞바다 불가사리 출현에 대한 CBS 인터뷰
- 9. 2 목포 앞바다 불가사리 출현에 대한 목포MBC, 목포KBS, 연합뉴스 취재
(10:00 - 목포연안)
- 9. 3 상임위원회 워크숍 주제:“신도청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9월 3일(토)~4일(일),1박2일 - 무안군 월두마을회관)
목포연안 아무르 불가사리 출현, 노무라입깃 해파리 출현에 대한 서울KBS
라디오 방송 인터뷰
- 9. 5 도시 계획 조례 모임 (10:00 - 목포민주시민운동협의회 사무실)
목포연안 아무르 불가사리 출현에 대한 SBS 취재 협조 (10:30 - 목포연안)
- 9. 6 기업도시 관련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 9차 간담회(11:00-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
- 9. 7 전라남도 서남해안 섬 관련 용역 중간 보고회 (16:00 - 전남도청 상황실)
- 9. 8 전라남도 영산강 준설사업 계획 중단 촉구 KBS 라디오 인터뷰
호남뉴스라인 J프로젝트 기업도시 좌담회 (14:00 - 호남뉴스라인 회의실)
- 9. 9 광주, 전남 골프장 문제 관련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면담 (16:00 - 전남 도지사실)
- 9. 12 故 이난영 가수 기념사업회 출범 행사 (18:00 - 목포문화원)
- 9. 16 서남해안 개발 특별위원회 모임 (17:00 - 연세약국)
- 9. 21 목포해양수산청 준설토 투기장 문제 면담 (14:00 - 목포해양수산청)
- 9. 22 목포시 환경에너지 센터(소각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 후보지선정, 배점기준
확정, 현장조사(10:00 - 목포시 상황실)
광복60주년기념 평양 문화유적 참관 목포 6.15공준위 회의(12:00 - 대명춘 식당)
주부모임 ‘녹색장터 목포이로초등학교 방문 (16:00-목포이로초등학교)
- 9. 23 주부모임 ‘녹색장터’ 관련 아파트 홍보
제일정보고등학교 환경교육 (10:00~16:00 - 나주 석관정)
- 9. 24 주부모임 “녹색장터” (15:00~18:00 - 하당 평화광장 야외공연장)
- 9. 27 목포환경운동연합 운영규정 마련을 위한 의장단 회의 (19:00 - 향토정)
- 10. 5 목포시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15:00-용당동목포농협)

- 10. 6 목포시 폐선부지 공원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15:00-산정3동사무소,하당동사무소)
- 10. 7 목포향도여자중학교 해양교육연구학교 운영보고회 (13:00 - 목포향도여자중학교)
- 10. 8 제3회 녹색장터 (15:00~17:00 - 하당평화광장)
- 10. 11 목포환경운동연합 서남해안 개발 특별위원회 회의 (12:00 - 연세약국)
- 10. 12 “유달산 일등바위 야간 경관조명을 철거하고 야간조명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생명의 숲 공동 성명 발표)
쓰시협 교육 (12일~17일 쓰레기 감량화 교육 - 원산동 아파트 단지)
- 10. 14 목포 폐선부지 활용방안 시민사회단체 조찬모임 (08:00 - 갯벌마을)
목포MBC라디오 유달산 일등바위 야간경관 조명관련 인터뷰 (18:30)
- 10. 15 제4회 녹색장터 (15:00~ 17:00 - 하당평화광장)
전남환경운동연합 가을수련회 (15일(토)~ 16일(일) - 여수 돌산 하안연꽃)
- 10. 17 쓰시협 일회용품 실태조사
(17일~ 21일-롯데마트,이마트,농협 하나로마트 매장당 4시간씩)
- 10. 18 4차 목포시 환경 에너지 센터(소각시설) 보고회 (14:00 - 시청 상황실)
- 10. 20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유달산,고하도, 평화광장」경관조명 설치사업 및
시설현황에 관한 업무보고(11:00 - 목포시 기획총무위원회)
목포환경운동연합 의장단 - 전남환경운동연합 간담회 (12:00 - 향토정)
- 10. 21 서,남권 지속가능한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토론「서남해안 섬 발전 선차적
과제 및 발전방향」(13:30~15:30 - 호남방송사 : 하당웨딩홀 5층 컨벤션센터)
- 10. 22 제5회 녹색장터 (15:00~17:00 - 하당평화광장)
환경교육 (10:00, 14:00 - 임자초등학교, 임자남초등학교)
- 10. 26 목포환경운동연합 임원단 만찬 (19:00 - 궁전식당)
쓰시협 호남지역위원회 회의 및 음식물 쓰레기간담회 (10:00-광주환경운동연합)
- 10. 27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14:00 - 전남도청 회의실 7층)
영산강둔치 관련 강의 (16:30 - 영산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10. 28 삼향천 수질 모니터링 (14:00 - 삼향천 일대)
주부모임 녹색리본 모임 (18:30 - 하당 다미손)
- 10. 31 무안군 해제면 양계장 불법 매립 고발
- 11. 1 목포해양경찰서 김수현 서장, 환경연합 방문(15:00 - 사무국)
- 11. 4 제1회 목포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시민운동과 시민운동가의 리더십모색과
실천방안”(19:00 - 사무국)

- 11. 10 목포경실련, 목포문화연대, 목포포럼, 천주교정의구현목포현합 등과 부패방지 투명한 지역사회를 위한 민관공동캠페인(16:00 - 목포역)
- 11. 15 목포시 산정동 영성씨니빌 앞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고발
- 11. 16 목포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참여(15:00 - 목포시청 회의실)
유달산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16:00 - 시청상황실)
갯벌체험행사 기준마련을 위한 심포지엄(15:00 - 상그리아호텔)
- 11. 17 영산강(함평군) 상습 불법골재채취 관련 성명발표
- 11. 18 목포시장-목포환경운동연합 삼향천 입암천 살리기 공동노력 모색 현장방문
(14:00 - 삼향천)
영암군 삼호읍 산포리 폐기물(쓰레기) 불법 투기 행정지도 요청
- 11. 24 목포시 유달산 야간경관조명 문제에 관한 서남방송사와의 대담
- 11. 26 광주 · 전남 환경단체 영암호 금호호로 떠나는 철새기행전
(09:30 - 영암호 금호호 일대)
- 11. 29 폐선부지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모색 토론회(14:00 - 서남방송사)
- 12. 1 2005년 보성환경운동연합 창립총회 및 창립대회(17:30 - 별교초등학교)
- 12. 6 목포 쓰시협 회의(정오 12:00 - 곰집식당)
- 12. 8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소각시설) 최종보고회(14:00 - 시청상황실)
- 12. 9 2005년 쓰시협 · 자원순환사회연대 총회(14:00 - 대우센터2층)
- 12. 13 2005 목포환경운동연합 후원의 밤 개최(18:30 - 부영2차 맞은편 MAFIA)
- 12. 14 전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회의(16:00 - 보성별교 진석모텔산장)
- 12. 15 2006년도 목포시 예산안 평가와 목포시의회의 심의 · 의결에 즈음한 시민단체 공동제안
(목포경실련, 목포생명의숲, 목포환경운동연합,목포KYC,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습지센터운영 및 교육프로그램”워크숍(15:00 - 강화갯벌센터)
12. 26 광주 · 목포환경연합 공동주최 영산강 자생력 확보 토론회
(15:00 - 전남도청 영상회의실 4층)

목포환경운동일지

2006년도

- 1. 5 주부모임 녹색리본 '서한테 박사님의 밥상 이야기' 건강, 먹을거리교육
(10:00-11:30, 롯데마트 5층 문화교실)
- 1. 12 바다 살리기 대토론회(13:00, 신안비치호텔)
- 1. 13 2006' 제10차 목포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18:30, 대성신협 3층)
- 1. 18 이재용 환경부장관 연두순시에 따른 [이재용장관께 보내는 공개서한]발송
목포포럼 10주년 기념 출판기념회(19:30, 상그리아호텔)
- 1. 19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협의회(11:00, 하당사무소)
정기환경교육 『전국 환경교육 현황 및 우리지역 환경교육 개선방안』
(18:30, 사무국)
- 1. 20 증도 갯벌센터 운영 검토 신안군청 박창훈 투자유치단장 면담
(10:00, 신안군청 투자유치과)
- 2. 2 세계 습지의 날 기념식(10:30, 순천시문화예술회관)
- 2. 6 목포시 위생 매립장 관련 취재 협조
- 2. 7 호남고속철 대응을 위한 충청·호남권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모임
(14:00,대전환경연합 사무실)
- 2. 8 함평군 영산강 불법골재채취 검찰 조사(14:00, 목포지검)
- 2. 11 전남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14:00, 장흥)
- 2. 14 목포시 경관조례제정 및 이등바위 경관조명 설치 중단 기자회견(10:00, 시청앞)
- 2. 16 주부모임 녹색리본 "예쁜 조끼를 만들어보아요" 교육(10:00, 하당롯데마트)
- 2. 18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14:00, 서울종로5가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
- 2. 22 영산강 유역권 역사문화지도 제작 세미나
광주전남 골프장 관련 긴급 간담회
해양수산부 2006 정책 설명회
- 2. 23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17:00, 신양파크 호텔 1층 에머럴드홀)
- 2. 24 목포시 에너지 센터 입지선정위원회의(14:00, 부시장실)
- 2. 25 목포환경연합 상임위 워크숍(16:00, 하당 아모르 모텔-회원운영)
- 3. 2 목포시 야간경관 조명 관련 정종득 목포시장 면담(16:30, 목포시장실)
시민참여위원회 1차 모임(20:00, 연세약국)
- 3. 8 5.31 지방선거 관련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준비모임(12:00, 하당 아채부페)
광주,전남 골프장반대 공동대책위(준) 발족관련 사전간담회
(11:00, 구례 사포마을회관)

- 3. 10 목포환경운동연합 고문단 · 자문위원 · 상임위원회 연례모임(19:00, 궁전식당)
- 3. 12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전국 집중(12:00, 새만금 방조제 현장)
- 3. 13 함평군 영산강 불법 골재채취 현장 시위(13:00, 나주시 동강면 동강대교 부근)
- 3. 14 전남도청 환경보전과, 환경단속 관련 환경단체 간담회(14:00, 도청)
- 3. 17 목포해경, 해양쓰레기 ZERO화 운동(09:30, 압해도)
- 3. 20~22 세계물의 날 관련 목포지역 초, 중, 고등학교 방문
- 3. 21 목포시민신문 “5.31 지방선거”관련 대담(14:00, 하당 목포시민신문)
- 3. 22 세계 물의 날 관련 논평“영산강 살리기의 실효성 있는 접근을 촉구한다.
- 3. 23 시민참여위원회 2차 모임(19:00, 연세약국)
- 3. 24 전남환경연합 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2차 전국 사무국 처장단 회의
(14:00, 광양환경연합)
제5차 목포환경연합 정기교육(19:00, 사무국)
향도여자 중학교 물의 날 기념 강연(강사: 박 현 상임위원장)
- 3. 28 강살리기네트워크 2006년 3차 운영위원회 회의(14:00, 대전 KTX 회의실)
- 3. 30 쓰시협 재활용위원회 회의(16:00,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4. 6 목포환경운동연합 5·31 지방선거 방침 수립을 위한 제76차 임시상임위원회 회의
(장소 : 19:00, 사무국)
- 4. 7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나불리 중형조선소 추진계획 전면 폐기 촉구 성명발표
- 4. 8 정책위원회, 들풀 새만금 생태탐사(1박2일) (19:00, 전북 부안 새만금 일대)
- 4. 10 광주 · 전남 골프장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14:00, 도청 앞)
- 4. 11 환경운동연합에 목포지역 녹색후보자 3인 추천
- 4. 13 바다 살리기 전국워크숍(해운대 아르피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 구축방안 심포지엄(13:30, 김대중 컨벤션센터)
- 4. 14 전국대표자 회의(15:00, 진주환경운동연합)
2006년 광주 · 전남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반대 운동(17:30, 부주산 일대)
- 4. 15 목포환경운동연합 주말농장 개장(14:00, 무안군 몽탄면 봉명리 농장)
- 4. 18 삼향천 하천정비사업 목포시청 하수과 면담
- 4. 19 공유수면매립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정책토론회(14:00, 국회의원회관)
- 4. 20 2006년 환경한마당 행사추진 간담회(14:00, YWCA)
KBS 1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영산강 하구둑 중형조선소 추진 관련 인터뷰
- 4. 21 현안 보고 관련 의장단회의(12:30, 3호광장 향토정)
영산강 물환경개선 T/F팀 1차 회의(15:00, 영산강유역환경청)

- 4. 22 환경사랑 들풀 흑산도 장도 습지 조사(07:40, 장도)
- 4. 24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 마무리 향의 표시 전국 환경연합 사무국 1일 폐쇄
5·31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목포지역 시민단체 간담회(13:00, 목포YWCA 2층)
- 4. 25 5·31지방선거목포지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제1차전체회의
(09:10-11:00, 하당 갯벌마을)
쓰시협 호남회의(14:00, 순천 YWCA)
- 4. 26 영산강 불법경작 관련 공동보도문 발표(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 4. 28 5·31 지방선거 관련 의장단-녹색후보3인 간담회(14:00, 나무나루)
- 4. 29 제1회 어린이 녹색장터(15:00, 하당 평화광장)
- 5. 1 5·31지방선거목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5·31네트워크)
목포시장·시의원 후보자에
보낼 정책 및 조례안 마련 정책팀 사전 협의(10:00, YMCA)
- 5. 2 5·31네트워크 정책 워크숍(14:00 YWCA)
- 5. 4 영산강·섬진강 수질개선 TF팀 회의(10:00, 영산강유역환경청 3층 회의실)
- 5. 6 제2회 어린이 녹색장터(15:00, 하당 평화광장)
- 5. 9 환경운동연합 녹색후보 선정 관련 기자회견(11:00, 목포시의회 소회의실)
- 5. 10 함평항 사전환경성 검토 주민설명회(14:00, 손불면사무소)
5·31지방선거목포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회의(17:00, YWCA 2층 회의실)
- 5. 11 목포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 워크숍(10:00, 하당장애인종합복지관)
- 5. 15 5·31 네트워크 회의(13:00, YWCA)
- 5. 17 5·31네트워크 목포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 준비모임(16:00, 경실련)
- 5. 18 목포시의원 후보자에 보내는 질의서 발송(10:00, YWCA)
5·18 민중항쟁 26주년 기념행사(19:00, 목포역 광장)
- 5. 19 환경영향평가제도 워크숍 및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13: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산·원산 회원모임(19:00, 진생고기집)
- 5. 20 6·15 남북공동행사 광주개최에 따른 간담회(10:00, 환경연합 사무실)
제3회 어린이 녹색장터(15:00, 하당평화광장)
- 5. 24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 무산에 따른 우려표명 기자회견(10:00, 시청 공보실)
- 5. 25 영산강 경작지, 영산강 대탐사, 쓰레기 현장조사(13:00, 영암군)
목포환경운동연합 제5차 정기교육(19:00, 사무국)
- 5. 26-27 호남 쓰시협 활동가 워크숍(10:00 여수)
- 5. 28 들풀 소모임 우포습지 방문
- 5. 29-30 5·31 네트워크 선거참여 캠페인(14:00, 목포지역 전역)

- 5. 30 녹색후보 지원(사무실 방문, 소개 전화 및 문자발송)
- 6. 1 영산강 쓰레기 실태 조사(16:00, 영암군 일대)
- 6. 5 영산강 대탐사 추진위원회 1차 연석회의(14:00, 전남도청 16층 소회의실)
- 6. 7 환경의 날 기념 목포 MBC 라디오 광장 인터뷰(18:00, 목포MBC)
- 6. 8 당선 녹색후보자 · 함께 사는 길 인터뷰(10:30, 목포시의회)
- 6. 9 바다문화학교 『영산강 유역의 고분문화』(14:0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6. 10 제 11회 환경의 날 행사(10:30, 목포시 연산동 산정농공단지 녹지공간)
- 6. 12 5·31 지방선거 목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평가회의(10:30, 목포시의회)
- 6. 13 대형할인점 불매운동 관련 상공회의소 간담회(11:00, 목포상공회의소)
- 6. 14 영산강 강변도로 조성과 지역발전 연계방안 토론회 참석(14:00, 영산강연구센터)
- 6. 19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추진위원회 2차 연석회의(14:00, 전남도청)
- 6. 20 전라남도 환경정책간담회(14:00, 전남도청 9층 회의실)
홍도 탐방로 및 훼손지 전수조사(08:00, 홍도1구~2구)
서남해안 환경 연구소(가칭) 설립을 위한 간담회(18:30, 사무국)
- 6. 23 지속가능위원회 영암호, 금호호 방문(16:00, 한국농촌공사 영산강 사업단)
- 6. 26-27 영산강 대탐사 추진 관련 나주시, 담양군 방문
- 6. 27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 9주년 기념 식사 간담회(19:00, 통운회관)
- 6. 28 해양경찰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관련 방문(14:00, 사무국)
목포시 위생매립장 방문(18:00, 목포시 위생매립장)
전국 회원관리자 워크숍(28일-29일,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
- 6. 29 2006년 상반기 공원관리협의회 회의(11:00, 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전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 회의(11:30, 보성)
바다의 날 환경의 날 기념 토론회
“신개념의 영산호를 생각 한다”(14:00~16:30, 해양유물전시관)
- 7. 3 영산강 하구 지역포럼 1차 : 하구의 관리전략 및 비전 공유(14:00, 전남도청)
- 7. 4 『제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추진위원회 제3차 연석회의(14:00, 광주시청)
목포시 해안선 야간 경관 조명디자인 개발사업 1차 중간보고회(14:00, 시청)
- 7. 6 5·31지방선거목포시민단체네트워크 정종득 목포시장 면담 및 헌수식
(11:00, 자연사박물관, 하당식당)
- 7. 8 강살리기 네트워크 조직위원회 목포방문 간담회(19:00, 수산백반전문점)
소모임 들풀 결산모임(19:00, 옛날밥상)
- 7. 10 호남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체계의 공존을 위한 실천적 연구방안서남해 갯벌 생태계와 인간의 공생과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실천 준비회의(10:00, 인문대 4층 대학원 세미나실)

- 7. 13 영산강 대탐사 관련 나주 방문(14:00, 나주 동신대학교)
- 7. 14 [전국 환경 활동가 워크숍] 5.31지방선거와 풀뿌리 정치 전망에 관한 토론
(용인숙명여대연수원)
- 7. 18 신안 자은중학교 교육
- 7. 19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10:00, 전남도청)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목포시 쓰레기 정책 토론회(15:0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7. 20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관련 광주CBS 인터뷰
신안 섬 갯벌 올림픽 관련 신안군 관광과장 면담(10:30, 신안군청)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중간보고회(경기도 김포 용진수련원)
- 7. 22 중간 재정 감사(09:00, 사무국)
- 7. 24~28 제1회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담양, 광주, 나주, 무안·영암, 하구둑 일원)
- 8. 10~11 [국제심포지엄]해안공동체의 형성과시민사회의 역할
(14:00,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새누리호)
- 8. 19 2006 중간 사업 감사(09:00-13:00, 사무국)
- 8. 21-24 영산강 탐사 자료집 및 CD 제작(목포대 다도해문화콘텐츠 사업단)
- 8. 25 목포 연안 불가사리 국회 현장 조사(12:00, 해남군 화원면 해상~영암 해상)
- 8. 28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용역보고회(10:30, 목포시청 2층 상황실)
영산강 살리기 대탐사 평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14:00, 푸른나주21협의회)
- 8. 29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소각시설) 주민설명회(16:00, 삼향동사무소)
- 8. 30 환경운동연합 습지해양팀『전국도요물폐쇄』조사(08:30-18:00, 압해도)
- 9. 1 유달산 매미 떼죽음 관련 언론보도(MBC, KBS, 연합뉴스 등)
- 9. 2 이승우 재정감사 신입활동가 회계 교육
- 9. 4 아무르 불가사리 관련 간담회(14:00, 목포 해양경찰서)
- 9. 6~8 제5회 전국 강의 날 대회 참가
- 9. 12 초록정치연대 목포환경운동연합 방문(14:00, 사무국)
- 9. 13 영암군 대불대학교 연락수로 앞 논 불법매립 현장조사(13:00, 조사위원회)
- 9. 14 환경운동연합 전국 연구소 모임(13:00, 사무국)
- 9. 19 2006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시민단체 기자회견(14:00, 목포시청 공보실)
삼향천·입암천 공사 문제점에 대한 목포MBC 라디오 인터뷰
- 9. 20 삼향천 현장조사 및 방송 취재 도움(14:00, 목포KBS)
- 9. 22 목포시의회 예산결산심위원회 추경예산안 관련 참관(10:00, 목포시의회)
- 9. 24 소모임 들풀 증도 방문

- 9. 25 목포시의회 예산결산심위원회 추경예산안 관련 시의회 방문(10:00, 목포시의회)
- 10. 2 목포시 국외공무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 회의(11:30, 사무국)
- 10. 11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칭) 구성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11:00, 나주시청)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 조명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상황 최종보고회
- 10. 12 영산강 둔치 쓰레기 조사(11:00,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 도청 부근)
- 10. 16 부흥산 인공폭포 조성 관련 KBS라디오 인터뷰
아무르 불가사리 국정감사 출석(14:00, 해양수산부)
- 10. 20 영산강 둔치 쓰레기 조사(11:00, 영암~무안~하구둑 일원)
- 10. 21 어린이 녹색장터(13:00, 연산동 초등학교, 아파트 일대)
- 10. 23 전남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회(14:00, 여수환경연합)
- 10. 24 영산강 둔치 쓰레기 조사(15:00, 함평~나주~화순~영암 일대)
- 10. 27 영산강 하구 지역포럼 2차 속기록 :하구 보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논의
(15:00, 전남도청 영상회의실)
- 10. 28 어린이 녹색장터(15:00 하당 부영초등학교 앞)
- 10. 30 유달산 사랑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준비모임
- 11. 2~3 영산강·섬진강을 가꾸는 사람들의 만남-연찬회(14:00화순금호리조트)
- 11. 3 시민들이 만드는 푸른 길 가꾸기 선포 걷기행진(15:00, 미관광장)
- 11. 6 무안태봉골프장 투쟁 방문, 도청 모니터링 회의
- 11. 10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발족식
- 11. 12 2006 회원가족 유달산 등반대회
- 11. 13~14 영산강 삼각망 수거 활동
- 11. 20 도민 철새 기행 (압해도)
- 11. 21 무안폐기물처리 업체 조사
- 11. 24 섬 문화 탐방 (증도방문)
- 11. 28 해남화원조선소 건립 공유수면 매립 반대 해양수산청 방문
- 12. 7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관리협의회(11:00,다도해해상서부사무소)
- 12. 11 해남화원조선소 관련 KBS라디오인터뷰(11:00, KBS라디오)
- 12. 12 해남화원조선소 관련 행정소송 법원심의
영산강 감시단 구성을 위한 기획예산처 면담
- 12. 13 영산강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집담회(15:00, 광주환경운동연합 4층회의실)
- 12. 14 여수환경운동연합 10주년 창립기념식(16:00, 여수청소년수련관)
- 12. 15 생태 관광 녹지 세미나(14:00, 전남도청 9층 서재필실)

- 12. 19 삼향천 살리기 토론회(14:00, 옥암동 사무소 2층 회의실)
환경영상모임 밝음이 모임(18:30)
- 12. 21 영산강 하구보전을 위한 통합적 전략논의(13:0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12. 26 목포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위원회 회의(14:00, 시청 상황실 2층)
- 12. 27 목포시 명예감사관 회의(14:00, 시청상황실 2층)
- 12. 28 2007 목포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11:00, 목포시의회)
삼학도의 문화적 발전방향과 가능성 모색(15:0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시청각실)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자 회의 및 정기총회(15:00, 서울 대우빌딩 2층)
'2006년 서남권 환경 뉴스' 목포 MBC 라디오 인터뷰(18:00, 목포MBC)



부록

4

창립선언문	207
정관	209
회원명부	213
소식지	214
환경과 건강연구소 정기발행지	215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수천년을 이땅 남도의 대지를 적시며 흘러온 영산강이 푸른 바다와 만나 어울러지고, 아름다운 다도해가 그림같이 펼쳐진 향도 목포에서 이 지역 환경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목포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을 엄숙히 선언한다.

오늘의 이 역사적인 창립은, 그동안 이 지역 환경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목포녹색연구회, 영산호보존회, 삼학도보전회, 유달산보전회, 신안환경보전회 등이 하나가 되어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되었고,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운동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운동으로의 발전을 이루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목포지역 환경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1983년 우리나라 환경운동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된 영산강지킴이 범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삼학도 유달산 보전 운동을 거쳐, 88년 목포녹색연구회 창립에 이르면서 한 차원 발전된 이 지역 환경운동은 이후 92년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회의, 96년 목포환경과 건강연구소 설립에 이르기까지 한시도 쉬지 않는 노력과 전진의 나날이었다. 그러나 환경운동의 역사가 오래되고 많은 활동가들과 각계층 시민들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의 환경문제는 심각하고 불완전하다.

하늘이 내린 자연의 보고인 바다와 갯벌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며, 26만 목포시민들은 무려 100년이 넘도록 물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신안 압해와 해남 황산은 핵발전소 건설예정후보지로 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나라전체는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로 포위될 운명에 놓여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창립선언문

어디 그 뿐인가, 쓰레기는 넘쳐 삼천리 금수강산이 쓰레기강산으로 변하고, 이 땅의 이름있는 산, 쓸 만한 땅은 모두 개발이란 미명아래 파헤쳐지고,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경제논리에 밀리고 힘센 쪽으로 기울어 그 형평성마저 잃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에게 15년에 가까운 환경운동의 빛나는 역사가 있고,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지역민들의 강한 열의와 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 지역민의 삶 속에 건전한 생활양식이 뿌리내려 변화를 가져오는 운동, 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 환경관련법규의 환경친화적인 개선 운동 바로 이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운동의 참된 모습이다.

아울러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 지역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땅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는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단체들과도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다.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오늘 이땅의 환경운동은 모든 인류가 더불어 건강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이 시대 지고의 가치이며 미래 지향의 운동이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민의 생명이요, 미래인 이 지역의 물과 땅, 바다를 맑고 푸르게 지켜나갈 환경의 파수꾼,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다함께 쾌적한 환경,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하여, 힘과 지혜를 모으고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자.

1997년 6월 24일 목포환경운동연합

- 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본회는 목포환경운동연합(이하 본회, 영문으로는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Mokpo-약칭 KFEM Mokpo)로 한다.
-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목포시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들의 생활과 환경운동을 통해 모든 이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2. 환경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교육사업
 3.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4. 환경피해지역 현장조사, 감시활동 및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업
 5.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6.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 제 2 장 회 원 -

- 제5조 (자격)
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6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정관과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2)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3)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내규를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7조 (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2.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조직 및 회의 -

- 제8조 (임원 구성과 임기)
 1.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5인 이하의 공동의장(상임위원장 포함)
 - 2) 위원회 위원장, 부설기구 대표, 소모임 대표, 약간명의 선출직 위원

목포환경운동연합 정관

- 3) 감사 2인
 - 4) 사무국장
2.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의 궐위시 상임위원회에서 30일 이내 선출하며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제9조 (의결정족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단, 총회성원은 총회시점 회원을 기준으로 한다.
 - 제10조 (회의)

본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와 상임위원회의 등의 회의를 가진다.
 - 제11조 (소집)

총회는 공동의장이 개최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한 소집공고를 서면으로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 회원 1/3이상의 발의로 소집된다.
 3. 상임위원회의는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다.
 - 제12조 (총회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3. 임원 및 감사의 선출
 4. 본회의 분할 또는 해산
 5. 기타 본회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 제13조 (상임위원회 구성과 기능)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상설 의결 및 집행기관이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상임위원회는 공동의장, 위원장, 부설기구대표, 사무국장, 소모임대표, 약간명의 선출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상임위원장은 공동의장 중 1인이 맡는다.
 2.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 가, 내규 및 준칙의 제정과 개정
 - 나, 특별 위원회(기구)의 설치 의결
 - 다, 실무간사 임명 승인
 - 라, 회원 상벌 의결
 - 마, 총회 상정 안건과 기타 주요사업의 의결
 - 바, 회비의 결정
 - 제14조 (공동의장)

공동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목포환경운동연합 정관

- 제15조 (고문 및 지도위원)
 1. 상임위원회는 각계의 원로 중에서 상임고문을 포함한 약간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 상임위원회는 환경운동의 각 분야를 지도받기 위하여 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16조 (자문위원)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제17조 (위원회)
 1. 정책위원회
 - 1) 본 회의 제반 정책 및 기획업무를 담당한다.
 - 2) 위원장 1인, 약간명의 팀장과 위원, 간사를 둔다.
 2. 조사위원회
 - 1) 환경오염현장, 자연생태 등 제반 조사·감시업무를 담당한다.
 - 2) 위원장 1인, 약간명의 팀장과 위원, 간사를 둔다.
- 제18조 (부설기구)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1. 생태환경연구소

본회에 소속한 전문가로서 환경정책개발, 환경영향평가 등 전문적인 환경사업을 담당한다.
 2. 조직 및 인적구성은 제 20조 특별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 제19조 (감사)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인의 감사를 둔다.
- 제20조 (사무국)
 1. 사무국은 국장, 실무간사로 구성된다.
 2. 사무국장은 공동의장단을 보좌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지며 회원 및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한다.
- 제21조 (특별위원회)
 1. (위원장 및 위원선정)
 - 1)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2) 위원은 선출된 위원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교체) 본회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교체할 수 있다.
 3. (해체) 특위구성의 목표가 완결되었을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해체한다.
- 제22조 (소모임 및 동호회)
 1. 소모임

(구성)동호회로 1년 이상 활동 후 총회승인을 받는다(지역모임의 경우 예외)

목포환경운동연합 정관

2. 동호회

(구성)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상임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 제 4 장 재정 및 회 계 -

- 제23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24조 (예산회계 준칙)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예산편성과 집행, 재정수입의 종목과 지출 및 회계방법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 제25조 (예산 및 결산)
사무국장은 본회의 예결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 (재정수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회비,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 5 장 보 칙 -

- 제27조 (정치활동의 제한)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내규 및 준칙,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 6 장 부 칙 -

-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를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일 : 1997. 6. 24.
1차 개정 : 1998. 1. 22.
2차 개정 : 2000. 1. 25.
3차 개정 : 2001. 1. 16.
4차 개정 : 2002. 1. 11.
5차 개정 : 2003. 1. 16.
6차 개정 : 2004. 1. 15
7차 개정 : 2007. 1.19

목포환경운동연합 회원명부

❖ 단체회원

(주)현대조선 (주)현성건설 김영재(오성식품) 남옥건설 목포공공도서관 목포시민사회단체공
동사무실 목포의료원 무안공공도서관 박재동 보워터코리아유한회사 보해양조(주) 서남방송
세브란스약국 오승재(동양환경) 일등자동차공업사 임정호(해성전력) 진용수(한국상사) 청솔회
태평연전 한국제분 한사랑병원 해바라기치과의원 (유)서남환경 목포상공회의소

❖ 일반회원

강구일 강명곤 강성도 강성선 강성수 강성희 강순집 강승천 강영규 강인성 강재석 강제서 강창민
강창원 강혜정 강호근 고송자 고용진 고유혁 광기태 광명희 광상호 권철원 김 탁 김경완 김경운
김경희 김기현 김낙형 김대중 김대중 김덕배 김도순 김도형 김동욱 김동진 김명중 김명화 김무영
김미화 김민국 김민규 김민선 김민수 김병욱 김삼구 김상석 김상열 김상윤 김석봉 김선경 김선석
김선중 김성기 김성희 김순례 김순자 김연지 김영남 김영미 김영복 김영숙 김영식 김영아 김영철
김영하 김영현 김용욱 김용원 김용일 김용진 김우영 김원창 김육남 김윤미 김은수 김은호 김일오
김일중 김재규 김재기 김재만 김재영 김재웅 김정민 김정봉 김정용 김정춘 김제은 김종국 김종봉
김종원 김진성 김창민 김창식 김창용 김철수 김철오 김철수 김평규 김해준 김형기 김형애 김형진
김형호 김혜영 김홍구 김휴환 김홍수 김홍수 김홍환 나광봉 나영진 나윤경 나천귀 나춘기 남현선
노애란 노영희 노용규 류미현 마영식 마홍식 모원중 문성자 문성희 문용신 문원규 문윤욱 문정아
문 호 민경진 박 현 박갑수 박건준 박경례 박남규 박말단 박삼임 박순상 박승학 박영단 박영임
박영주 박원진 박용호 박유찬 박유택 박은숙 박은태 박일훈 박종순 박종위 박지현 박창수 박창훈
박최규 박한진 박해경 박 현 박현두 박현숙(박성원) 박희서 배군태 백동진 백수정 백재봉 백초원
서길자 서병권 서상열 서성철 서연순 서조원 서찬호 서창호 서한배 서한태 서형식 서호성 성상훈
소병준 손 현 손순호 송경순 송원형 송은향 송진선 송행미 송환승 신계호 신동영 신동호 신용길
신정순 심상유 안규숙 안철수 안태봉 양대영 양덕수 양승희 양정조 양정호 양호식 엄익표 염송주
오 욱 오승우 오승화 오익성 오지은 오현중 위준철 유기석 유승선 유원석 유재길 유정태 유혜련
윤규욱 윤명렬 윤성광 윤양덕 윤용석 윤원희 윤재권 윤종인 이경우 이경진 이경택 이규만 이대훈
이동훈 이명식 이문희 이방수 이상욱 이석제 이선우 이성원 이성철 이승우 이승철 이승한 이영욱
이운찬 이일호 이장식 이재승 이재심 이재인 이종만 이지현 이창섭 이창하 이창현 이철수 이춘자
이형록 임경아 임성남 임소영 임용일 임정수 임종범 임종재 임진욱 임채영 임채점 장근현 장동춘
(박민아) 장성훈 장영미 장우영 장은철 장화진 전경란 전생춘 전성복 전재호 정경이 정관수 정국수
정기범 정무상 정문일 정병달 정선일 정성우 정순용 정순진 정승원 정연목 정일승 정일현 정재권
정중국 정중삼(박난정) 정창권 정철배 정철환 정현희 정훈기 조경일 조광필 조규채 조명운 조병국
조병동 조상현 조석현 조성수 조성철 조세용 조애령 조영교 조용수 조용준 조원소 조정희 조혜향
주성현 지옥순 진 아 진남원 채수산 천낙만 천대웅 천명주 천연순 천정선 최광선 최대일 최병찬
최복숙 최성국 최성국 최영선 최영섭 최영자 최원수 최용준 최윤숙 최은정 최이문 최장원 최정관
최정삼 최진배 최태욱 최현일 최홍림 최화영 하영성 하창용 한병균 한석진(한정아) 한성수 한은섭
현승철 형광석 홍광복 홍기출 홍석희 홍선기 황순민 황정원 황형수 대현상사 두레교회 이모니카

목포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목포환경운동연합은 지금까지 총 100편의 소식지를 제작 하였습니다.
앞으로 회원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환경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07.9
제 100호 한가시는 길 부락
목포환경운동연합
530-220 목포시 북만동 2-25(2층)
Tel : 243-3189 Fax : 244-7345
E-mail : mokpo@kfem.or.kr
홈페이지 : http://mokpo.kfem.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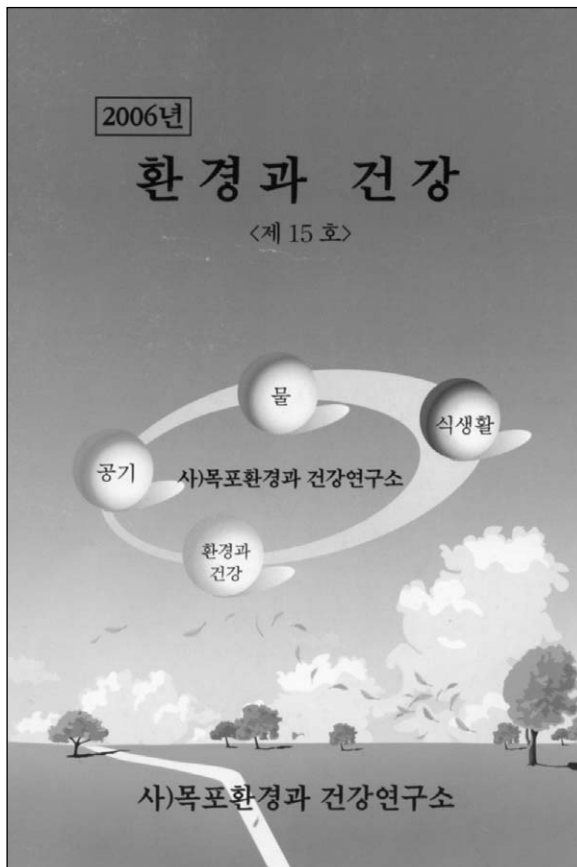
**가
목
포
의
행**

제호 설명 - "일맛으면 마음된다. 이글은
김지환(목포출신, 본래 김명인)씨만이
사람의 역사에 남고 싶다 함께 보내온 것.
83년 영산강에 주상동굴이 들어서는 것은
딱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다.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황제 테봉 골프장 주민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상당한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골프장으로 인한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이위에 비하여 주민들이 생존권인 침해당하고, 자연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크며 미래적인 판결을 내렸다.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정기 발행지

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는 전문적이고 세세한 내용보다는
일반사람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총 15편에 걸쳐 알기쉽게 정리 발간 하였습니다.





목포환경운동25년사

2007년 10월 23일 인쇄
2007년 10월 26일 발행

- 역 은 이 : 25년사 편찬위원회
(김영철 조상현 김경완 박갑수 유영업)
- 펴 낸 곳 : 한라디자인
- 발 행 처 : 목포환경운동연합
- 주 소 : 우 530-220 목포시 북만동 2-25
- 전 화 : 061)243-3168, 3169
- 팩 스 : 061)244-7345
- 홈페이지 : <http://mokpo.kfem.or.kr/>
- 전자메일 : simindream@hanmail.net
- 후원계좌 : 예금주(이재인 목포환경운동연합),
782301-01-404399, 국민은행